朝鮮日報
夕刊
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ノ一六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刊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幼年(同上)

敵陣地續々占領

我陸軍部隊一齊攻擊으로 敵、全面的으로退却！

【○○에서一日松尾同盟特派員發】三十一日吳淞鎭을 占據한我陸軍의 ○○部隊는同日午後一時頃부터 다시 殘敵을 追擊하야 午後二時좀지나 ○○○占領 다시 同夜楊家宅齊家嶋를 陷落시키고 ○○크리크와交叉되는 ○○크리크線을 確保하엿다

【上海方面○○에서 一日松尾同盟特派員發】殘敵을 追擊하야 ○○크리크線에 進出한 陸軍○○部隊는 一日朝來 友軍○○部隊와 緊密한 共同作戰下에 一齊攻擊前進을 開始하엿다 敵은 全線에 亘하야 頑强히 抵抗을 繼續하면서도 死體多數를 遺棄하고 步一步後退하고잇다

我空軍徹宵敵爆擊

【上海一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機는 昨夜半부터 今早朝에 至하는 徹宵閘北上空을飛翔하야 同方面의徹底的爆擊을加하엿다 敵은 一發도 應射지못하고 또 前日深更에至하야 空襲하여온 敵은所夜부터 디디여 그 姿를감추엇다

杭州嘉興爆擊

【上海一日發同盟】支那側官憲의 傳하는바에依하면 我海軍機○○臺는 昨卅一日午後四時杭州上空에 出現하야 飛行場及附屬建物에 爆擊을 加하고 또機首를轉하야 上海 杭州間鐵道交通의要衝인 嘉興의 敵軍事施設을爆擊하야 大損害를與하엿다

夜襲白兵戰으로 寶山縣城占領

【上海一日發同盟至急報】三十一日吳淞鎭을 占領한 陸軍○○部隊는 日沒을 기달리여 夜襲戰에드러가 隨處에 白兵戰을 演하야 今朝未明 敵의 最重要地點인 寶山縣城을 占領하야 黎明과함께 凱歌를 올리엿다 그리고 吳淞鎭攻略에 我方의 犧牲은 死傷者百四十八名、敵의損害는 遺棄된 屍體만하여도 數百에 達하엿다

我軍三方으로猛擊 ○○鎭을遂占據！

【上海三十一日發同盟】午前十時半 我海軍의 空襲에 繼續하야 同十時五十分 ○○部隊는 ○○鎭에 總攻擊을 開始하고 右翼○○部隊는 黃浦江을 나려가며 ○○鎭西方으로부터 中央○○部隊는 鐵路에 沿하야 또左翼○○部隊는 ○○鎭을 迂回하야 三方으로 敵의十字砲火를 不顧하고 猛擊을 加하엿는데 모도 二百米乃至百米로부터 突擊을 敢行하야 全線에 亘한 壯烈한 白兵戰을 展開하야 一時間余로서 드디어 ○○鎭을一擧로 占據確保하게되엿다

【○○沖에서同盟特派員三十一日發】鷹森部隊長이 引率한 ○○部隊는 海軍航空隊○○機의 爆擊、艦艇의砲擊 陸軍部隊의 援護下에 三十一日午前十時 主力으로서 揚子江岸으로부터 吳淞方面으로 向하야 一擧로 進擊을 開始하야 勇戰奮鬪約一時間後午前十一時 드디어 ○○鎭을 占據하엿다 我部隊가 上陸한 第一日인 二十三日以來 執拗한 攻擊을 繼續하고잇든同地의 敵은마침내 完全히 ○○鎭으로부터 擊退되엿다 ○○隊는 同地를 占據하자 卽時屍體를넘어서 또 前進하야 ○○方面으로 猛烈한 進擊을開始하엿다

○○鎭陷落後 果敢한追擊戰開始

【○○에서同盟特派員卅一日發】今日은 快晴이다 殘霧가 아직도 醞藉하다 我將兵의 意氣益益 旺盛하다 上陸한以來 我의 前進을 阻止하고잇든 敵殲滅의 命令을바든 我○○部隊는 着着攻擊準備를 進行하야 勇氣凜凜히 다만 攻擊命令을 기달렷다 午前九時十分 我飛行機는 大擧하야 吳淞上空에 雄姿를 나타내여 翼과 胴의 眞赤色 日丸旗가 朝光에 번득이며 黃浦江을 隔하고 울려인다 我艦船部隊의 全砲가 ○○으로 向하야 待機의 姿勢를 整頓하고잇다 午前九時半 壯烈한 爆擊과 砲擊이 開始되자 轟然한 爆音과 砲聲이 一時로 萬雷와가티 울리여 와다 約三十分에 亘한 掩護爆擊판에 ○○部隊의 攻擊命令은 發하엿다 이보다먼저 我快走○○艇隊는 數十天로의 超速力을 利用하야 江上으로부터 吳淞크리크에 가까워옴을보자 煙幕을 치고 一瞬으로 敵根據地를 包圍하여버렷다 準備는 完了하엿다 鷹森部隊長스스로 手兵을引率하고 ○○鎭의 敵陣地에 突入하얏다 이와同時에 ○○部隊의 德弘部隊는 敵의側面을 衝하고저 敵陣에突擊을 敢行하엿다 敵은 手榴彈機銃小銃으로써 頑强한 抵抗을試하엿스나 勇猛鷹森部隊長下에는 弱卒이업스므로 戰友의屍體를넘어가며 突擊又突擊約一時間에亘한 壯烈한 白兵戰을 演하야 마침내 ○○鎭을 陷入하엿는데 또쉬일사이도업시 斷乎한 追擊命令으로 果敢한追擊戰은 開始되엿다 目下○○鎭은我砲擊과 敵敗殘兵의 放火에依하야 大火災를 이르켜 黑煙이 濛濛하게 衝天하고잇다

御多忙中에도 御敬神의大御心

【東京電話同盟】聖上陛下께옵서는酷暑中에도 不拘하압시고 御政務御軍務를 攬하압시사 日常御精勵하압심에 對하와 側近者도 다만恐懼하옵뿐인데 御敬神 御崇祖의 御心이 기프신 陛下께압서는 御多端한 御日常에도 一日 十一日 二十一日의 旬祭御親拜를 缺하압신 일이업스시고 一日도 早朝御起床 午前八時三十分賢所皇靈殿 神殿에 御親拜하압시엿는데 當日陛下께압서는 特히 戰線出動의 皇軍의勞苦를 偲하압시고 또銃後의 民草에 大御心을 垂하사 神明의御加護를 御祈念하압시엿다고 承聞된다

事件擴大는遺憾 政府는隱忍自彊

臨時議會開會劈頭에行할 近衛首相演說要旨

【東京電話同盟】臨時議會劈頭에 行할 近衛首相의 演說要旨는左와如하다

一、政府는 事件의 情勢變化에 對應하기爲하야 臨時議會召集을 奏請하야 事變關係軍事豫算案及經濟立法案을 提案하기로되엿다

一、蘆溝橋事件에서 發端한 日支事變은 支那側의 不法行爲로 益益惡化하야 마침내今日과如한 事態를 誘致한것은 實로 遺憾이다

一、我方은 事變發生當初에는局地解決 不擴大方針을 堅持하고 支那側의 反省을 促하엿스나 效果가업서 玆에東洋平和維持를 爲하야 徹底的膺懲을不得已 行하게되엿다

一、政府는 이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 隱忍自彊 時局收拾에 當하야 聖慮를 奉安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寫眞은 近衛首相)

樞府定例會議

【東京電話同盟】樞密院에서는一日午前十時부터 宮中東溜間에서 定例本會議를開하고 平沼、荒井正副議長以下 各顧問官村上書記官長 政府側으로부터 近衛首相 廣田外相以下 各閣僚和法制局長官出席하야 河合委員長으로부터 一、大正十二年法律第五號中改正法律案(辯護士試驗延長에關한件) 外一件 에對하야 審査委員會의 經過와 結果를報告하고『委員會에서는 本法에서定한 期間延長은今回로써 最終으로하고 政府에서 將來또延長하는일이업시 善處할일을 希望하고原案을 承認하기로 決定하엿다』라고附言 委員會의 決定대로 可決同十一時十分散會하엿다

滿洲國軍苦戰奮鬪！

【新京卅一日發同盟】滿洲國治安部着公電에 依하면 滿洲國西南國境附近에서 支那軍과 對峙警戒中이든 滿洲國軍○○枝隊는八月中旬以來 破竹之勢로써 進擊하야 皇軍協力下에 敵을 潰走케하엿는데 八月二十六日滿洲國軍○○部隊長官 德江俊雄少佐는 兵十數名을 引率하고 敵陣附近에이르러突然敵行力部隊의砲擊을바더 勇敢히 應戰하야 多大한 打擊을 與하고 敵을 潰走케하엿스나 同戰鬪에서 德江少佐는 壯烈한 戰死를 遂하엿다 또 十七日○○方面의 戰鬪에서 ○○部隊軍事教官以下 滿洲國軍將士는 優勢한 敵과 遭遇하야 敎官以下各將校는 白刃을 휘둘르고 先頭에서서 敵陣에 斬入하야 敵에 殲滅的打擊을 與하엿스나 同戰鬪에서 軍事敎官 相馬勝美中佐、市川忠作上尉 岡田勝男上尉 吉田實氏等은 모다 壯烈無比한 戰死를遂하엿다

唐官屯敵을攻擊 廿九軍運命도朝夕에切迫

津浦線方面의戰況

【天津三十一日發同盟】○○○附近에 布陣한 我○○部隊는 三十日深更으로부터 三十一日에걸처 數回에 亘하야唐官屯附近의 敵에 對해 攻擊을 繼續하야 多大한 成果를 어덧다 이에依하야 敵의前面部隊는 全然算을亂하고 動搖하게되엿다

【天津三十一日發同盟】赤柴部隊의 ○○部隊는 숨도쉬일사이업는 追擊으로 第二十九軍 三十七、三十八兩師의 敗殘兵主力一部 中央軍은 마침내 馬廠을中心으로 唐官屯附近에 至하는 地域을 重要陣地로하야 堅固한塹壕를構築하고 野重大砲機關銃等을 据置하야 觸艇度로 十數里에 亘하는데 이에 對하야 我部隊는 ○○으로 進擊하고잇스므로 暴戾한 廿九軍의 最後의 運命도朝夕으로 迫하여왓다

居留民撤退援助次 米、巡洋戰隊急派？

U・P通信社의情報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프레시덴트・후ー버號 爆擊事件에鑑하야 米國汽船의 上海寄港을 一時中止하도록 希望을 各汽船會社에 內達하엿는데 三十一日U・P通信社가 確實한側의情報로서 傳하는바에依하면 支那各地에는 現在아직 六千名乃至七千名의米國居留民이 存在하므로 政府는 此等居留民撤退를 援助하기爲하야 近近太平洋岸으로부터 偵察機二個中隊를 包含한巡洋戰隊를 支那에急派할지도알수업다고한다 但右에關하야아직公報는업다

蘇聯、綏芬河의 領事館閉鎖

【綏芬河三十一日發同盟】蘇聯政府는 압서 日滿側의 壓迫을口實로 綏芬河領事館을 閉鎖하기로決定하엿든바 마침내이를 實行하기로되어 카르조르領事以下館員九名은 二日當地를 撤退하야 哈爾濱으로 向하기로되엿다 이로써 在滿蘇聯領事館은 哈爾濱、大黑河、滿洲里의 三個所가되엇다

國府、邦人에對한 糧道遮斷令發布

違反者는死刑에處한다고

【上海一日發同盟】國民政府는三十一日附로서 食糧을 敵에 供給하는者는 死刑에 處한다는旨를公布하고 邦人에對한 食糧攻擊을國民에게 命令하엿다 一般支那人은 此等死刑法令의 續發로全혀 戰慄하고잇는데 法令內容은

一、本條令에잇서서 食糧이라고稱하는것은 米、小麥粉、雜穀其他食糧이될수잇는物品

一、食糧을 敵에게 供하는者는 死刑에處함

一、犯人을 保護하는者도 同樣으로 處罰함

等의 十個條에亘한것으로公布日부터 實施되엿는데 國民政府는方今 常軌를 逸하야 狂亂狀態에잇서서 國民은 모다 戰慄하고잇다

青島市도 中央軍手中에

【青島一日發同盟】稅警團이 青島市內의 治安을維持하기爲하야 市內에 드러온件에 對하야 市政府側과 稅警團과 折衝中인데 結局安協이成立되여 丘團長의指揮하는 稅警團五團은 市內에入하야 市政府側과 協力治安維持에 當하기로되여 靑島市內는 드디여 中央軍手中에 歸하게되엿다

鬧北을爆擊

【上海三十日發同盟】午後六時三十五分我海軍○○機의 編隊飛行으로 鬧北上空에나타나 敵陣爆擊을敢行하야 敵軍의據點에莫大한損害를與하엿다

蘇聯、極東海面에서 陸海空軍攻防演習

三十日 海蔘威放送局의 放送에依하면 蘇聯極東軍에서는 九月一日부터 三日間에亘하야海蔘威를中心으로 포시에트灣에서陸海空共同의 攻防大演習을 實施하기로되엿다 또右日을 蘇聯沿岸航行의 各船舶에도 通達하엿스므로 時節이時節이라 注目되고잇다

支那敗殘兵 佛宣教師를襲擊

【天津一日發同盟】卅日朝 北平萬壽山北方修道院을襲擊한 約百名의敗殘兵은 佛蘭西人宣敎師一名에 重傷을負하고 宣敎師十名을拉致하엿스나 彼는身代金五十萬元을要求하고잇다 目下我軍은此를討伐中이다

支那大使王正廷 米政府에陳謝

P・후ー버號事件으로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支那大使王正廷은 三十一日헐國務長官을訪問하고 프레시덴트・후ー버號事件에對하야 深甚한 陳謝의意를 表하엿는데 國務省辭去後 新聞記者團에 對하야 事件의 經過에對하야 支那側의 立場을說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후ー버號事件에對하야는 진실로遺憾에 不堪하는바이나 如斯한 不祥事가이러낫것은 同船의位置가 日本軍艦二隻사이에잇섯기때문으로 支那航空士가 日本의軍用船으로 誤認한것이다 그러나 何如턴지 航空士가友好國의 船舶을 誤認한것은全然不注意한바이어다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華盛頓駐劄支那大使 王正廷氏는 三十一日國務省에 헐國務長官을 訪問하고 三十日上海前面에 잇서서의 支那軍用機의 米國汽船 프레시덴트・후ー버號 爆擊事件에對하야 深甚한 陳謝의意를 表明하엿다 席上 王大使는 爆擊의 結果에依한 物質上及精神上의 損害는國民政府에서 充分히 賠償에應할 用意가잇고 또操縱士에對하여는處罰의意가잇다는旨를述하고 諒解를求하엿다 (一方國民政府는支那駐劄米國大使조슨氏에 對하여도 同樣陳謝의 意를表明하엿다

人事・集會

◆安俊鎬氏(湖南銀行頭取)三十一日入京備前屋에

八面鋒

◇蘇支不可侵條約發表의 뒤를 니어서 兩國間에 密約이되엿다고도傳한다。

◇今日의 極東形勢를보고 不可侵云云하는것을보면 어느程度의密約쯤은 잇슴직한順序。

◇金鑛出願만해도 利權이나 어든드시 헛배를불리고다니든것도옛날。

◇當當한許可가잇는鑛山도 일을안코면안되게되얏스니 群小鑛業家에게는大打擊。

◇北支在留同胞 一千戶를 蘇河沿岸에定着시킨다고。

◇滿洲國內의安全農村에鑑하야 좀더豐富한豫算으로 根本策을樹立하라。

張家口의 治安維持協議

【張家口卅一日發同盟】張家口治安維持會는 綏日派各界代表百餘名出席下에 卅一日午前十時 省政府에서 開催하고 治安維持에 關한 協議를 行하엿다

上海方面의支那軍 總兵力十三個師十數萬

蔣直系、劉峙、顧祝同이指揮

【上海三十一日發同盟】情報에依하면 上海附近에 集中한 支那軍의 總兵力은 十三個師十數萬이라고하며 左右兩翼及 總本隊의三方面軍에 分裂되여 最高總指揮로 劉峙 副指揮로 顧祝同이任命된 模樣이다 그런데劉峙顧祝同은 何應欽과함께 蔣介石麾下의 三將領이라고하야 바야흐로 蔣介石이 自己의股肱으로 밋는三名中二名까지 上海戰線에 보내게된것은 蔣이 이方面에서 我軍과 勝負를가리는 一大決戰을試하려는 魂膽이라보이여 極히注目된다

蘇支密約內容

佛紙의報道

【巴里三十一日發同盟】蘇支不可侵條約에 附帶하야 軍事密約說이 傳하고잇는데 三十一日紙上에서 密約의 內容으로서 左와如히 指摘하엿다

一、蘇聯政府는 國民政府에 對하야 今年十一月末까지에 飛行機三百六十二臺(그中戰鬪機百五十臺 偵察機一○○臺)戰車二百臺 其他軍需品을 引渡함

前線總指揮에白崇禧

上海地區總司令에張治中 抗日防敵陣營內容

【南京三十一日發同盟】國防會議는 抗日防敵陣營의 構成에關하야協議한結果 如左히 決定하엿다

前線總指揮 白崇禧
蘇浙皖總司令 張發奎
上海地區總司令 張治中

그리고 蔣介石夫人宋美齡도正式會議에 出席하엿다고한다

(寫眞은 白崇禧)

空陸海呼應猛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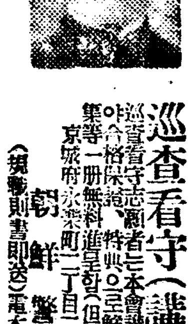
【上海三十一日發同盟】今朝吳淞方面에잇서서 陸軍의積極的進展에 따려 海軍航空部隊及江上艦艇은 이와協力하야 目下敵陣에對하야 猛烈한爆擊砲擊을 加하고잇다

長城方面戰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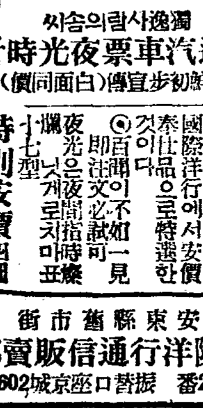
【○○山海에서同盟特派員三十一日發】長城以南의 支那軍을 擊破하고 二十九日 ○○을 占領한 予田部隊의 前線部隊는 三十日早曉 殘敵을 追擊하야○○方面으로 進擊하엿다 또○○의 山嶽에잇는 湯發部隊의 一部는 殘敵掃蕩次 三十日未明에 ○○方面으로 出動하엿다

辭令

京城帝國大學敎授 宮本和吉
補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長
同
依願免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長 上野直昭
總督府判事 古川初男
補京城地方法院判事
總督府檢事 松岡 [illegible]
補平壤地方法院檢事
總督府判事 [illegible]
補京城地方法院判事
總督府檢事 [illegible]
補釜山地方法院檢事
同 永國 [illegible]
補京城地方法院檢事兼淸津地方法院檢事
同 李 [illegible]
補全州地方法院群山支廳檢事
總督府判事 有吉 正 [illegible]
補大邱地方法院判事
同 村田 [illegible]
補京城地方法院鐵原支廳判事兼京城地方法院判事
同 名嘉眞武勝
補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判事
公州地方法院大田支廳檢事 青山 良 [illegible]
補海州地方法院檢事
京城地方法院春川支廳檢事 山田 敏 [illegible]
補公州地方法院大田支廳檢事
公州地方法院忠州支廳檢事 杉本 [illegible]
補京城地方法院春川支廳檢事
咸興地方法院檢事 伊藤 淸
補公州地方法院忠州支廳檢事
海州地方法院檢事 中村 [illegible]久
總督府技師 岡田 [illegible]
同 加藤 正 [illegible]
總督府遞信副事務官 [illegible] 貞三
同 竹內 安房
同 內田 俊一
同 [illegible]谷 恒外
同 小林 辰吉
同 [illegible] 三平
依願免本官(各通)
(新義州) 朝鮮公立高等普通學校長兼教諭 目黑 [illegible]
總督府獸疫血淸製造所技師兼總督府技師 民野恒太郎
依願免本官兼官(各通)
朝鮮產業技師 有賀 [illegible]人
依願免本職
總督府技師 涌井 [illegible]治
命朝鮮總督府獸疫血淸製造所長事務取扱兼務
朝鮮總督府事務官 堀下 [illegible]太郎
命總督官房資源課長
同 奧村 重正
命財務局關稅課長
命財務局理財課兼務
同 井坂圭一良
總督官房資源課長丹下郁太郎外國出張不在中命同課長代理兼務
同 松永 幹
命總督官房資源課勤務



巡查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合格保證의特典으로解人巡查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郞送)電本(2)三〇三〇番



獨逸사람의솜씨
獨逸汽車票夜光時計
(朝鮮初步宣傳白面同價)
超非常時目下防空燈火管制에 一個式準備할만한夜光時計
이時計의일홈이 獨逸汽車票이니만큼獨逸鐵道局員의專用品 國際洋行에서安價奉仕品으로特選한것이다
◎百聞이不如一見 即注文必試可
夜光은夜間指時를 하게로치마표 七型
特別安價四圓
全部先金送料負擔
安東縣舊市街
國際洋行通信販賣部
電話208番 振替口座京城30602番

勿驚？ 勿笑!!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及編入學受驗準備)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番)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最近校舍新築大擴張(元黃金町簿記學院改稱)(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五、三三六○番)
(後期)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八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丁目(東電車) 電話本局(2)一八四八番

朝鮮唯一 綜合鐵工
◎難物設計 製圖製作請負
諸機械工具設計製作修繕
鑄物・木型 鍛金・鈑金細工 鑄物ボーリング 鐵板ポンプ 水道看板 金屬挽物
(ロクロ機械)
◎新商品試作大歡迎
極光發明品 特許出願近日出來
製作發賣元
極光工業株式會社
京城府永登浦町一一○番地
電話永登浦五三○七番
振替京城二六五二七番

商標
元
고추장 (元)
仁川花水町
天一製粉工場
賣都商 進呈
價格表見本品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部全給女 新陣容으로
九月一日 開業
京城府仁寺町
어와한ー라
電話光化門二八八番

引繼問題는第二段 當面經費가問題

六七兩月은起債로서充當 崇專서緊急理事會

【平壤支局電話】 인계문제로파란을거듭하야나오든 평양숭실전문학교는 그후기두리든 뉴욕잇는 외지전도국의인계가부소식도 묘연하고무엇보다도 당면경비의부족으로 큰고통을받고 잇는중에 삼십일일 급박한이당면경비문제를 토의하고저 숭전교장 모의리(牟義理)씨집에 숭전리사회와 실행위원회를 열게되엿다

이당면경비문제를보면 숭전은 매월칠천원의 경비보조가업스면 경영할수업는터에 미국으로부터 매변나오든교회보조금 일만원이 금년은나오지아니햇스므로 지난유월칠월두달은 리사회에서칠천원 빗을어더 간신히경비를 지불하야왓고그후는팔월도조순에 미국으로부터 삼천오백원돈이 나왓슴으로 간신히 이것으로 팔월달교수들의월급은 치럿스나 아프로 신학기구월부터는 이경비에 아무런대책이 업시되엿슴으로 이문제에대한 중대토의를 한결과지금형편으로서는 도저히 다른방도를 가질수가업고 역시 기채(起債)이외에 도리가업다하야 기채위원으로 동교리사 김인준(金仁俊)모의리 방위량(方偉良)삼씨를 선거하야 기채를 일임하엿다 금후이위원들의 기채가여의치 못할때는 폐교도 도리업는사정으로 이학교의 전정은 드되여 절박한상태에 빠저잇다고한다

직하고 훈련을 개시하얏는데 구월일일오후네시반부터 조선신궁에서·단장 야구(野口)리사이하 단원백구십여명이 참열하야 단기입혼식(團旗入魂式)을 집행하리라한다

引繼與否討議는 今月十五日開催

—萬人注目을끄을고잇는— 外地傳道局의態度

인계문제에잇서서는 뉴욕잇는 외지전도국에서 오는십오일부터 나 겨우이문제를 토의하게되엿는데 만약원만하게 토의가되여 인계를결정한다고 하면 이십일경에는 결정지시에대한 전보가 올려이요 만약인계 문제가부결이된다고하면 결국서면회답을하게되어 시월초순에나 회답이오게될것으로 어차어피간에 금번 외지전도국의 태도는 날이갈사록 긴장하야주목을 끄을고잇다

起債以外無策

在籍生卒業責任도못지겟다 崇專校長牟義理氏談

숭전교장 모의리씨는 리사회를 마친후 다음과가티말한다

현재도칠천원 빗을지고잇지마는 구월부터는도기채를하지아니하면안될터이다

선교사회에서 현재 재적생은책임지고 졸업을 할때까지 학교경영을 하게다고햇는데 금후어찌할터인가한 기자의질문에 그것도 책임을질수업는 형편이다 고 자신업는 표시를하엿다

中樞院參議四人 皇軍慰問使派遣

중추원(中樞院)에서는 북지(北支)전선에 출정중의 황군장병을 위문하기위하야 참의사인을 위문사로 이일오후삼시오십분평양성역발열차로 파견하기로 되엿는데 일정은 왕복이주간예정으로 위문사는 다음과갓다

成元慶(忠南) 張稷相(慶北) 金寬鉉(京城) 李基燦(平南)

殖銀防護團結城

식산은행에서는 방호단을 조

全朝鮮宣教師大會 教育事業再檢討

監理會와南北長老派合同 來十八日부터開催

오는십팔일부터 사일간 부내정동정(貞洞町)『모리스홀』외국인학교안에서 제이십륙회 전조선선교사(宣敎師)대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이대회는 전조선각지에잇는 남북감리교(南北監理敎)와 남북장로교(南北長老敎)의 선교사련합대회로 그토의할 내용인즉

一、조선교회경영의 교육사업에관한문제

一、조선선교사업에관한문제

一、조선교회의 사회사업에관한문제

등기타여러가지인데 남북장로교경영의 각학교존폐문제를 가지고 오래동안 분규를거듭하야오든 이때이므로 이번대회는일층긴장할모양이다 이번 대회에는 남북장로교경영의 각학교존폐여하를 재검토하야 조선주재선교사로서 다시 방침을 결정할모양임으로 일반의 관심과 주목을 끄을게되엿다 출석할 선교사는 칠십여명이로 일본내지에서도 전일본선교사대표가 출석할터이며 총독부에서는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 이십일일 오전동대회에 림석하야 일장의 인사연술(演述)을 할터이다

各寺庵이蹶起 猛烈한獻金運動

벌서二百餘圓을醵金

부내 수송정(壽松町)에잇는재단법인조선불교중앙교무원(朝鮮佛敎中央敎務院)에서는 비상시국을 극복하기위하야 부내각사암(寺庵)과 포교소(布敎所)에서는 황군위문금을 모집중 위선이백오십일원륙십전을 모으게되여경성부윤을 통하야 헌납하엿다또 계속하야 전조선 일천오백여사암과 포교소의 중(僧侶)과 신도 이십삼만명을 총동원하야 황군원호에 유감이업도록 지령을발하고 목하갱일층구호적구를 위한기도와 시국인식의 철저를긔조하며 위문금모집 각부대송영 접대군인과 그가족유족의 위문격려 전병사자조문위령천도(薦度)등 총후의 임무로서 충성을다한다고한다

大醉한人夫가 中毒되여急死

부내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의 오십칠호 서산장의사(西山葬儀社)인부 정금룡(鄭今龍)(二〇)은일일 오전령시 박게서 술을마시고 대취하야 전기장의사에 도라와 근처에잇는 한강통십삼번지 철도용지(鐵道用地)제오호소재의 서산장의사천막속에서 놉히사척가령이나되는상(床)우에올라가 잠을자든데 오전일곱시쯤 그자리에서 그대로죽어잇는것을 발견하고 의사를청하야 검시하엿는데 그는 다량의술을마시여 급성주정중독(急性酒精中毒)으로 그와가티죽은것이판명되엿다한다

품관돈獻金

【西湖津】 북지풍운이 급박하여가는이때에 서호면 서중리(西中里)에사는 마응룡(馬應龍)씨는 그날그날로동하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절약하여가면서 푼푼히 저금하여온돈 십원을지난이십오일 서호면장에게 전하면서 국방비로 보태여써달라고 기탁하엿다

貨客車大輛增備

貨車一千十輛과客車九十輛 千七百廿萬圓豫算

철도국에서는 차량증비(車輛增備)오개년게획의 둘재 해인 소화십삼년도에 일천칠백이십만원의 예산으로 객차(客車)구십량(輛)과 화차(貨車)일천십량을 신조할터인데 객차는 경쾌차(輕快車)를 만히 제조할터이라한다 그러고 기관차(機關車)도『파시형』(型)『미카드형』으로 약삼십수량을 신조하야 차량부족을 철저히완화시킬 예정이라한다

同日同時兩處서 渡船顚覆 六名式溺死

鴨綠江과長津江兩處에서 不吉！卅一日午後五時！

【咸興支局電話】 작삼십일일 오

長津江

후네시오십분쯤 되여 함남삼수군자서면상동구리(三水郡自西面上洞口里) 장진강도선장(長津江渡船場)에서 리요근(李要根)(五〇)이라는 사공이 나루ㅅ배를 저어가지고 건너면으로 향하여 건너가든중 장진강과 허천강(虛川江)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급류에밀려 미처 배머리를 돌릴사이업시 전복되는바람에 배에탓든 선객 열여덟명중 다섯명은 현장에서 또 다섯명은 조난지점으로부터 칠백『미돌』가량 떠러진 하류에서 각각구조되엿고 남어지 남자두명 남학생세명 그리고 여자한명은행방불명이되엿는데 이들은 모두 의사한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들의 주소성명은 방금조사중이다

鴨綠江

【新義州支局特電】 평북 의주군가산면(平北義州郡加山面) 면사무소에서는 삼십일일에 지주간담회와및 구장회의를 개최한후 이날오후다섯시에 대안에잇는 만주국 관전현(寬甸縣)의 부락을시찰하고저 림면장(林面長)이하십팔명은 고리선을 타고가든중 암초(岩礁)에 부닥처서 선체를대파하야 승객십삼명은 겨우구조하엿스나 남어지 옥강공립보통학교장(玉江公普校長)과 면서기(面書記)구장(區長)등 여섯명은 거친물결에 휩쓸려 행방이불명케되엿다한다

【義州支局特電】 당지가산면옥강동(加山面玉江洞)에서 나루ㅅ배를타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다가 물에빠저 행방불명이된 여섯명은 다음과갓다

◀玉江公普校長 崔鳳休(五七) ◀同校訓導 方錫濟(三五) ◀實業家 崔春鳳(四二) ◀加山面書記 金享務(三五) ▲玉江洞區長 金鳳鉉(四五) ▲葛溪洞區長 任錫司(三七)

京畿道衛生課서 虎疫、黑死病豫防注射

江華附近五六千名接客業者에 一般에도無料實施

향항(香港)에서 발생된 호열자(虎列剌)는 상해(上海)에까지 만연되야 얼마전에여덜명이 발생되엿다는 정보가들어오고 신호항에도 호열자환자한명이 들어오다가 검역(檢疫)때에 발견되엿다함으로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상해 청도(靑島)등지와 선박려락이 빈번한 인천과 강화도(江華島)근처 세관관계자 선부 접객업자 운송업자등 오륙천명에게 이일부터 호열자예방주사를 실시하는동시에 경성시내에서도 경기도위생과 시험실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호열자예방주사를노아주기로되엿다 그리고 고마주방면에는 흑사병(黑死病)이류행중임으로 그방면에 려행할사람으로 희망자에는 흑사병예방주사도겸하야 무료시행하여주기로되엿다한다 그리고 인천항에서는 더욱검역을 엄중히하는한편만일을 념려하야 당분간입항선박과 승객수및그들의 행방을분명히 조사식히기로 되엿다한다

江西郡서 時局講演

【江西】 강서군에서는 시국인식을 강화코저 지난이십칠일 관내각면장을 (순회의실에소)집하고 호군수의시국에대한 훈시가잇슨후 산회하엿다

故金鍾翊氏未亡人 四千圓을獻金

慰問金과防護團費等

부내동숭정(東崇町)일백이십구번지 고김종익(金鍾翊)씨의부인 박춘자(朴春子)여사는 삼십일일에 경성군사후원련맹에 국방헌금으로이천오백원 황군위문금으로 일천원 경성방호단 조직제로 일천원에 오백원으로 합계사천원을바첫다한다

三對一의就職率

京城府立職業紹介所八月中成績

팔월한달동안에 경성부직업소개소의 문을 두드린 사람의 수효는 근례에 보기드믄 만흔 수짜를내엿다 구직자는 약삼천명이엿스며 취직자는 약일천삼백명으로 삼분지일이 취직되엿세음이다 이것은 전쟁관계로 중공업(重工業)방면에서 사람을만히 수용하게된영향인듯하다한다

七月中의屠畜 三萬九千餘頭

지난칠월중각도에서도살된 도야지와 소는 총독부위생과조사에의하면 총계삼만구천사백오십팔두로 그중소가 일만칠천오백칠십사두 도야지가 이만일천팔백팔십사두인데 이것을 지난일월이후 도살된 그것에 합하면 실로 삼십이만이천삼백사두에달한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각도별로 보면 경기도를 필두로평안남도 평안북도등의순서인데도야지는 사칠량면으로유명한 평안남도 사천일백일두와 평안북도 이천칠백팔십칠두가 단연제일위를점령하얏고소는 평안북도 삼천이백사십팔두가 역시제일위를가지고잇다

◇各道別牛豚屠殺頭數

	牛	豚	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一、九六二	四、一〇一	六、〇六三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三萬九千四百五十八頭

晝寢禍！

큰길가에서 곤히 자든굴뚝소제부경전(京電)『뻐쓰』에부상―삼십일일 오후아홉시반쯤에 경성역(京城驛)압『뻐쓰』정류장아래서 운전수김초득(金初得)(三七)이가 서계정(西界町)으로 가려든『뻐쓰』의 제동기(制動機)를 잘못놀려 차가믹그러저나가며부근에서자고잇든 봉래정(蓬萊町)삼정목거주굴뚝 소제부 최창희(崔昌熙)(五八)를 치어억개에 전치약이주간을 요할 상처를 입혓다고한다

入場料로獻金

【龍井】 현하시국여하를 기피인식시키기위하야 본보지국주최와 룡정친목부인회 간도일보사후원으로 지난이십팔일오후 여덜시부터 당지공회당에서 『시국강연과밋음의무도회』를 열엇섯는데 크게성황을이루엇다고한다 그리고수입전부는 국방금으로헌납하기로되엿다한다

虎列剌警戒와 避難따서-健康診斷

전화(戰禍)의 국제도시 상해(上海)에서 공포와 전율의 닷세동안을 새인후 입을것도 채입지못하고 초초한얼골을 이십이일아츰 고국서울에 낫하낸딴써-일행 김일선(金一仙)(三七)외 열명의 피난은 기보한바이다 그후 이들은 인사정(仁寺町)백삼십번지의이호에서 상해에 평화가 도라올날을 기두르며 롱성(籠城)을 계속하고잇는데 하로날아츰에는 그들일행 열네명이(아해가세명이잇다)은 대거종로서에 나타나 서원을 깜작놀내게하엿다 이것은 홍콩(香港)에서 상해에든어난호열자가 드되여 상해에도 이러왓슴으로 만일을경계하기 위하야그들의 건강진단을 하기위함인것이데 경찰부의사 고산박사(高山博士)가 두시간이상이나 걸여면밀한 검사를한 결과전부가 오、케라는 대선언을 기록하고 열두시경 의기양양하게 농성소로도라갓다

峯野時局講演盛況

【峯野】 해주경찰서 보안계주임 묘이산(卯耳山)씨는 지난달삼십일오후 여덟시 취야(峯野)에와서 미시장(米市場)에서 시민을모아노코시국에대하야 강연을하여오천시민에게 철저한 인식을주엇다한다

安東省下洪水에 死傷者六百餘名

溺死者만三百十九名

【安東縣】 안동성하의 지난수해에 피해된 인명사상자는 최근겨우 조사판명되엿는데 행방불명된자는 조사할수업고 현창에판명된 의사자만이 삼백십구명이고 부상자가 삼백십이명이라는데 합하면 사상자수가 륙백삼십일명이라고한다 그수를 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縣別	溺死者	負傷者
安東縣	四〇名	二六名
鳳城縣	一三七名	一八五名
莊河縣	一三五名	一名
岫岩縣	七名	一名
計	三一九名	三一二名

車掌이重傷

삼십일일 오후세시삼십분에 안동(安東)을 떠나 룡산(龍山)으로가든 제일백륙십이렬차(第百六十二列車)의 차장반도충치(飯島忠治)군은 그날 오후아홉시반에 서흥역(瑞興驛)에서 중간차(화차)의 짐을 나리우는데에 참견하고 잇든중차엿든 짐짝이 떠러지는바람에머리와 가슴에 상처를내여 중상을당햇다

水害救濟費七十萬圓 第二豫備金에서支出

特別議會는提出不能

평안북도(平北)미증유의 대수재복구비일백삼만원(토목복구비와구제비)은 오는구월삼일부터 열리는 림시의회에 제출할예정이엿든바 이번림시의회에는시국관계예산이외에는 제출하지안키로 되엿기때문에 평북수재복구비도림시의회에 제출하지안코 제이예비금에서 지출하기로되엿는데 이중에 삼십이만원은 명년도예산으로 돌려서 오는통상의회에 제출하기로되엿슨즉 결국이번제이예비금에서 지출하는것은 칠십일만원이다 그런데삼십이만원을 명년도예산으로 돌리는것은복구공사가 소화십이년도내에는도저히 끗날수업스므로 부득이명년도에 일부를 돌리는것이라한다

歸鄕과旅費 當局에서斡旋

避難朝鮮人保護策

전란의지나로부터도라온 조선사람은 모두일천사백명에 달하고잇는데 그들에게는선박 철도모두 당국에서려비를주어 보호하여왓는데 철도연선으로부터떠러진곳으로 도라가는자에 대하야서는 아직그런편의가업서 그중의사백명이나 부산 신의주기타철도연선에 머무르고잇는 형편임으로 내무국에서는 각도지사에게 통첩을보내여 그들의보호와지도에 만전을다하기로되엿다

電線切斷盜犯被捉

【江東】 강동군만달면대성리조선무연탄 주식회사대성탄항(江東郡晩達面大成里朝鮮無煙炭株式會社大成炭坑)에서는 지난팔월십칠일동탄항부속오리동변전소 전선절단사건(同炭坑附屬五里洞變電所電線切斷事件)을 소관승호리주재소에 신고하여 동주재소원일동은 시국이시국인만치 각처에 수사망을 느려노코 십여일동안 혈안으로 수사한결과 범인을일전에 체포하얏는데 그는동면신창리 리인선(李仁善)(二五)(假名) 동탄항인부로 지난팔월오일경 사흘동안이나 전선약팔백미돌(重量六十餘貫)을 절취한사실을 자백햇다한다

五十圓罰金과 廢業命令決定

衆生醫院事件後報

기보=지난이십팔일 종로서에서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백사십팔번지 중생의원(衆生醫院)주인 채인석(蔡仁錫)(三一)을 마약밀매혐의로 엄중취조를시작하엿다함은 기보한바와갓다 취조한결과 그는 소화십년팔월일일부터 의사의면허를 가지지안헛슴으로 표면으로는 박모(朴某)라는 의사를고용하야 그의명의로 전기병원을시작하야 자기는 다만자본주임에도불구하고 지난삼월경수경에는 남대문통사정목칠십삼번지 김덕홍(金德洪)외일곱사람에게 엉터리진찰을하야 투약까지한일이잇슬뿐아니라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박게는 살수업는마약도-물산(散)등을 병원간판을내세우고 팔기도한것이 판명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의사규측위반(醫師規則違反)과 조선마약취체령위반(麻藥取締令違反)으로 단호한처벌을하기로결정하고 하룻날 오십원의벌금에처하는동시에 병원은단연폐업식히기로되엿다

小作爭議增加 港都鎭南浦에

【鎭南浦】 진남포법원지청관내작년도 소작쟁의(小作爭議)건수는 삼십일건이엿든데 금년은 팔월까지 벌서칠십칠건이나된다고한다 이현상대로 나가면년말까지 백여건을 돌파할것으로 예년에 약삼배나증가되리라는바 원인은 룡강일대 평안철도공사관계로 토지매매가 격증함에따라 소작이변동이 만케되다고한다

惠山普校學父兄들 運動場修理費醵出

【惠山鎭】 혜산공립보통학교는지난삼일부터 신교사건축을 시작하야 팔월이십오일까지 공사가완료되얏는데 운동장이 정리되지못하야 어린학생들이 매일조곰식정리하고잇는것을 참아볼수업다하야 지난이십팔일 오후두시부터 학부형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주채히(朱埰熙)씨사회로 운동장수리에대하야 부형회에서 이백원을지출하여 인부를사용하기로되엿다한다

天氣豫報

豫報 今夜와明日은 흐렷다가 小雨가나린다

昨日最高 三〇度三 同 最低 一八度九 今朝最低 二二度五 今日正午 二七度二

스포-츠 蹴球界二大行事

大日本蹴球協會理事會는 지난廿九日午前十一時부터 大阪堂島濱町新村빌딩有恒俱樂部에서열고 世界選手權 日滿交驩戰等의 重要問題에對하야 協議하엿는데 世界選手權極東「존」은 明年에 第三國인上海에서 行할豫定이든바 今般日支事變勃發과 同時에 上海에서는 到底히 不可能하게 되엿슴으로 善後策을 協議한結果 明年一月中에 日本에서擧行하자는데 意見이 一致되여 곳 國際蹴球協會와 FIFA에 그旨를 通告하고準備에 着手하기로 되엿스며日滿蹴球戰은 事變中임으로 中止說이잇섯스나 一方이와가튼 時局에잇서서 日滿親善을 위하야有意義하다는 意見이 만흐며 따라서滿洲國의 熱烈한 希望도잇서 이를決行하기로되여 滿洲軍은 來九月七日熱河丸으로 日本을訪問하기로되엿다

喘息·神經痛과 高血壓中風 不治가아니다

血液의「混濁을除去하야 原因부터治療하라」

取扱으로有名한今津研究所에서 研究員과 協力하야 此等疾病의 原因을徹底히研究한結果 酒煙草 或은 內臟의障害等으로 身體血液을不淨케하는 貴重한血液이混濁不潔케되야 血行이不順하고神經이侵害되야發生되는것으로 血液의混濁을 除去淸淨하야 血壓을 整調하고 血行을 順調케하야 神經의 障害를除去하면 治療되는것이고 決코 不治의病이아니라는것을 多數의 實驗에依하야 確證을엇고 貴重한 植物로부터强力한

淨化素 服用과 リキシソ或은 イマヅミン의併用에依하야此疾病으로苦生하는 사람들을 原因부터治療하야 非常히好評을 맛고잇다

●中風으로不隨麻痺하야苦痛하는이 ●高血壓 動脈硬化로 肩背痛 耳鳴 頭痛 眩暈 動悸 어지럼증 ●便秘 不眠 神經衰弱 다리부은대 수전증 저린대 腦溢血의危險이잇는데 ●喘息으로 기침 숨가분데 呼吸困難 헐덕거린데 ●神經痛과 류마치로 手足腰 脊中과關節이아퍼서 苦痛하는분은 하로빨리

大阪市阪急線三國驛側 今津化學研究所로直接가더지 藥書에적은 遠方은 괴로운症狀을 어급히申込하시요! 血液을淨化하야原因부터 治療하는新療法을 親切丁寧하게가르처준다。

이질과설사에는 赤玉固腸丸 家庭에常備하라 定價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五十錢 金一圓

어린아이의배앓이에는 小兒止瀉整腸劑 特效이 兒科散 兒科散을

信用第一 第一メキキ 正 赤玉 AKA TAMA 痢病靈藥 固腸丸

樂天堂製藥株式會社 カゼビリン本舖

慢性急性 淋疾 オネヂリン 定價一圓·二圓·三圓·五圓·十圓 各地有名藥店에잇다

攝生法 一、淋疾에걸린사람은患部를만지든손은그當場에비누로洗滌하고決斷코눈을부비지안토록注意해야한다 二、酒類를一切禁할것은勿論炭酸瓦斯의飮料도禁해야한다 三、食物은淡白하고消化잘되는流動飮料를먹어야한다 四、淋疾에第一效果잇는オネヂリン을連續服用할일

製造元 山本回生堂製藥所 京城府本町四丁目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電話本局二一七九三番 二〇五二、五〇四番 振替京城四五七番 私書函京城八九番 藥店에는安心하고去來할수잇는藥品卸問屋이다

自動車運轉者養成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運轉手試驗ニ合格セントスル者ハ來レ ◆今ガ入學ノ絶好時期 ◆練習車 練習場完備朝鮮第一 ◆絶對責任教授 學費最低廉 ◆就職無料紹介 (學則送呈參觀歡迎) 場所 京城府若草町大通り 經營 元京畿道運轉者試驗官 溝見良 電話本局六七〇四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九月一日부터三日間 每日二回 晝夜開映 낮一時 밤七時四十五分 大米國新作社 ▲新秋三大映畫巨彈陣▼ ▲米國마스곳트特作 大爆笑 大連續長篇活劇 流線怪盜列車 前篇 熱血兒샤웨인 大猛演 (前中後篇二十五卷三回續映) ◇유니이버―트提供特作映畫 全發聲 쿠캉의大成功 日本語版 天才兒 쟛키쿠강主演 ◇極東映畫社中陽特作映畫 連續時代 晴の鍔鳴り 前篇 亂鬪篇 劍豪嵐寬三郎 主演 往十里町 光武劇場

8月30日より9月5日まで 千惠藏美ち奴の顔合せ 時代劇 謳へ春風 11·30 2·50 6·50 ニュース 北支上海戰況 12·50 3·10 8·00 一世の名作映畫化完成 現代劇 眞實一路 1·00 3·20 8·10 各席全部 大人30錢 學生小人30錢 黃金座

躍進·三和鑛山의全貌!

丈餘의大脈幅에 含金量豐富輝煌

現在設備만도十五萬圓의巨額

交通至便採鑛隊雲集

鑛山의諸條件具備

交通

새로 開發되여 新興氣分속에 破竹의 勢로써 探鑛되는 三和鑛山은 平南安州郡雲谷面龍林里에所在하여 山間地帶라고는하지만 京城서ㅣ平壤ㅣ平壤서 滿浦線으로 一時間半을 가면 中坪驛에 나리게되는데 여기서는 一里半을 三和鑛山自動車로 往復할수가잇서서 鑛山으로서 가장重要한交通도 至極히 便利한 곳이다 더구나 中坪서 三和鑛山까지는 一金五千圓을던저 二十餘尺幅의 新作路를 만드럿기 때문에 山間地帶이나 都會地道路에 지지안케 便利하여 이 人跡未踏의 山間은 三和鑛山으로써 開拓되엿다 얼마를 가지안허 點點히 探掘한 鑛山의 모양이 보히는데 더구나 嶺上을 넘어서면 바로 三和鑛山이 보히고 그아래 이鑛山때문에 새로建設된 三百餘戶의 양철집이 太陽빗에 金인듯銀인듯빗나고잇서서 新興氣分이 漲溢하여 보힌다 것는者 누구나 이연기어린이마을을 함석집을 보고 文明은 이길로山間까지 征伐하엿다고 三嘆할것이다

이제 이三和鑛山은 順安郡과 安州郡사히에 잇서서 附近住民은 이鑛山이 터지게됨을따라 全部潤澤한 生活을 營爲하고잇는데 每日 이곳으로 雲集하는靑年男女는 씩씩한 함마를들고 이山間地帶를 어렵지안케 征伐하고 잇는것이다

더구나 이 龍林里일홈으로는 맑은 시내가 흘러 背山臨水로 朝鮮的인 마을을 形成하기에 適當하고 또空氣가 新鮮하고 生活이 豐饒하야 모ㅣ도 平和한 우숨속에 지내게되는데 누구나 한번 求景하고십흔 鑛山으로더욱 交通이 至極히 便利한데 一般의雲集이 만케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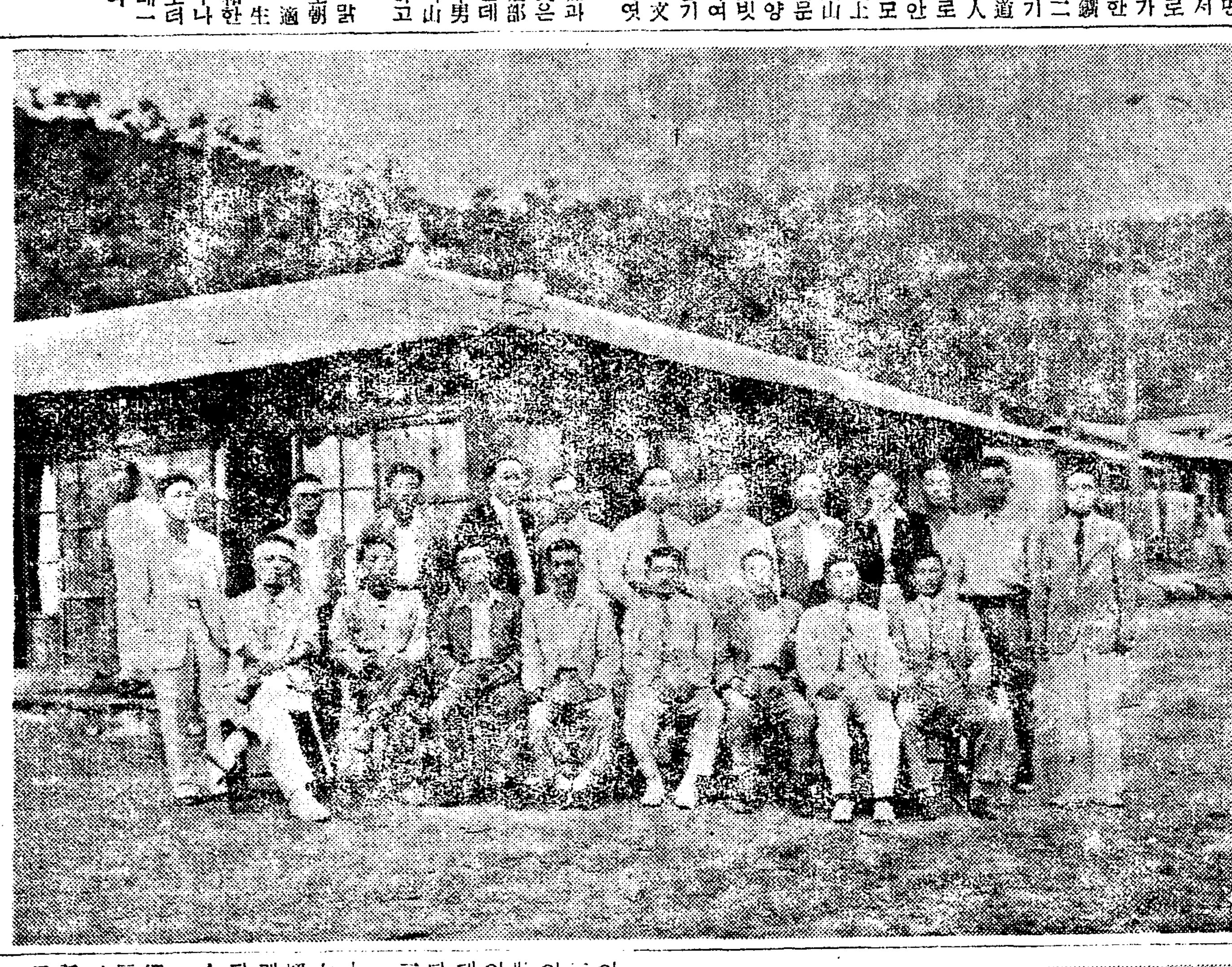
地質及鑛床

三和金山一帶는 太古時代에 變質片麻岩으로構成되고 鑛床은其中에 胚胎되여 含金石英鑛脈으로되엿는데 走向으로 北二〇度 東傾斜 北西四五度乃至八〇度이다 그런데 鑛脈은 二條로되여 同一走向 同一傾斜로 併走하고其延長은 鑛區를 貫하야 他鑛區로入하고 片麻岩地帶의 鑛床의 性質을 表示하야 蜿蜒히 北東에延하야 總延長은 實로 六粁에及하고 深部의鑛床은益益히有望하야 無盡藏한金山의 그將來가더욱 明待되는것이다

金山의 含有鑛物은 大槪가 乳白石英中에 方鉛鑛, 閃亞鉛鑛 黃銅鑛 黃鐵鑛 硫砒鐵鑛等을 含有한것으로서 金平均品位는 二五瓦以上의好成績을가진것으로 脈幅은三尺乃至七尺으로 他金山에 比하야 훨신그金質이豐富할뿐外라 그質에잇서서도또한 優秀한 金山으로 어데를내어노코도 자랑할수잇는것이다 硫化鑛物中에 잇는金粒은微細하지만 脈中富鑛帶一部에서는 간혹自然金이잇서 때로는 노다지가쏘다저 이含有量이만흔 金山의面目을 가추잇게 여러사람의눈을 휘황케하는것이다

現在開發된 富鑛帶의 金의狀況을보면 上部第五區의 露頭로부터南쪽傾斜로잇서서 延長一六〇米深度一〇〇米에 達하야現第四區水平坑押坑道下底에서 現下採鑛作用을 하고잇는데 第三착개항을 디는데서 광장한 富鑛帶의出現을 본다한다

鑛床의 酸化作用은 深部三〇米에達하야 酸化帶로부터 硫化帶에移行하는 部分에 二次富化 一次的富鑛帶中間이 原因한다고볼 야 變質하야 綠色을 보이作用이 되여서 때로는 錦白色을 닐수잇다하며 石英中에 多量의 自然金이 含成하는 部分은 百界의 存在를 往往보며 富鑛帶生成은 鑛床生成時에 熱作用으로 因하는 有한部分으로보면 것이라한다



事務所와職員一同

社會奉仕的精神一貫
鑛主金浚相氏
文化事業에進出決心

오늘날 豐饒한 三和鑛山의 主人이된 金浚相氏는 어떤분인가?

氏는 明治三十三年 朝鮮이 暗黑世界에서 새로히 變革되려든 三時代에 平北定州郡葛山面老東洞에서 呱呱의聲을 發하엿다 兄弟中次子로 태여난그는 거기 公立普通學校를 卒業하고 咸興高等普通學校에入學하엿다가 事情으로五山高普에轉校하야 該校를 卒業하고 米穀商을始作하엿다 그러나 學校를가지못한 白面書生인 金氏는 父母의遺産 五六千圓을 모조리 업새버리고 말엇다. 그리하야 하는수업시 黃海道私立學校로가서 敎員生活을 하다가 다시 定州吉川學校로가서 敎員生活을하엿다 그러나 元來착한마음과 또 社會奉仕的 精神을 갓고잇는氏는 月給으로써 가난한學生들의 學費를 도아주고 때로는 점심그릇을 주리는 애들에게 엿과사탕을 사주어 師弟의 따뜻한情을 매젓다한다

그러나 氏는 그것으로 滿足할수업서 東京으로건너가 日本大學專門部에 入學하고는 苦學으로 苦心慘憺數年을지내다 身病으로 中途退學을 하엿다

不得已하고 다시 故鄕에도라와 少年會를 組織하고 少年指導에努力하다가 定州에 光明學院을 創設하고 적지안흔 努力을 하엿다

其後는 朝鮮日報支局長, 中外日報支局長等을 歷任하는동안 地方發展을 爲해 적지안흔 努力을 앗기지안엇다. 그뿐안이라 靑年會를 爲해 協同組合運動을 한일도 잇서 그는 半生을 오로지 이런文化的運動에 獻身해왓섯다 그러나 무슨일을 하려면 아모래도 財產이 잇서야겟다는 決心을 하고 그는 決然히 昭和七年一月二十七日 金允煥氏에게서 三和鑛山을 繼承하여 가지고 努力하여 今日의成功을 보게되엿든것이다 그런데 이鑛山이 좀더 盛旺하여 巨財를 蓄積하게되면 그가지고 잇는 朝鮮文化事業에 全心하려한다니 또한 그將來가 적지안케期待된다

以上과가티三和金山은 地質的으로볼때 優秀한金山이 所有한 諸條件은 具存하고 잇슴으로現在에도 優秀한것은 말할必要도 업거니와 더욱더욱 그鑛區의無盡藏과 質의優秀한것을 보아더욱더그將來가 期待되는것이다

設備

平南安州郡雲谷面龍林里에所在한 三和鑛山은 總面積二十萬坪으로 金含有脈이 宏大한데 여기現在設備金만으로도 十五萬圓의 巨額을드렷다 五千圓을드려延長八千尺의大道路를 만들고또한 一萬圓을드려 電氣工事를完了하여 電力을 마음대로 쓸수잇게 하엿거니와 機械設備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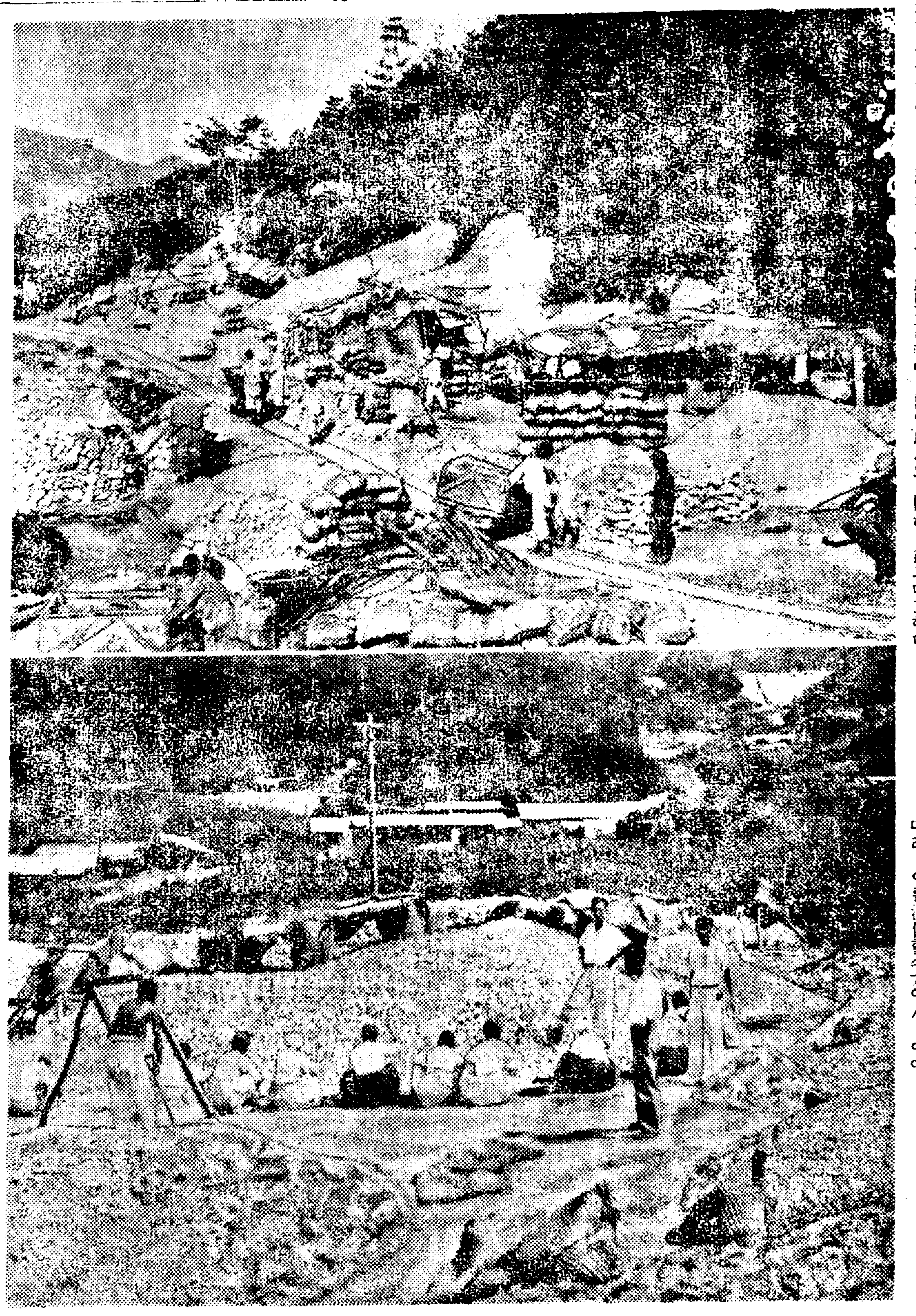
電氣 모ㅣ터ㅣ二〇馬力
搗鑛機二五〇封度杵十五本
貨物自働車一臺
靑化製鍊場 滲出槽十個
事務所 一棟(百坪)
事務員舍宅四棟(百五十坪)
火藥庫一棟(一九二貫入)
見張所 一棟
坑夫合宿所 十棟

으로 每日採鑛하는一千八百貫의 金石을 搗鑛하고잇는데 이것만으로는 日日採鑛高가 놉흠으로 이에따라 이를消化할수가업서서 이에 相應한設備를하려고準備中 이것도 今年內로完成될模樣이라한다 이제그설비할 내용을보면

電動機 六〇馬力
搗鑛機 三五〇封度杵三十本
工場一棟 (建坪七〇坪)
靑化製鍊場 滲出槽二十個
事務員舍宅 三棟
運動場 一千七百坪
坑內通氣設備 一萬圓
콤프레사 二臺
火藥庫 一棟(三六四貫入)
乘用自働車 一臺
貨物自働車 一臺
選鑛場 三棟
事務所 一棟(建坪二十五坪)
電話 一個

등으로 이중에는 특히운동장설비가 눈에띄이는데 이는 일반사무원과 덕대 광부들의 심신을 단련식히기위하여 일부러 일천칠백여평의 대운동장을 만드럿다한다

이도한 김준상씨의 평소 사람의 건강이란것이얼마나 일하는데 필요하다는것을 인식한 진보적 두뇌를가진것으로 여기야말로 직업적이아니라 가족적으로 평화한가운데 집단적로동을 하고 잇는것이 특히 눈에띄이는것이다



上은第四坑面作業現場 下는選鑛場

僅僅七個月에 產金三十萬圓

이鑛山에서致富한者가十數名

德大에게特히寬大!

三和鑛山은 비록 二十萬坪이라는 적은面積을 가젓지만이 三和鑛山이야말로 그金質가 金이라해도 過言이 안일만큼 宏壯한 含有量을 가진 金山이다 이鑛山의 鑛質은 大槪가 金인데 若干의 銀이 섞겨잇을뿐이다 이제 그金의含有量은 平均二〇瓦으로써 產金額이 昭和十一年度十二萬圓에 達하고 昭和十二年에 이르러서는 一月부터七月까지 七個月동안 三十萬圓의 產金額을 내엿다한 보고래도 이金山이 얼마나 豐富보다도 그將來가 有望한것인지알수잇는것이다

그런데 이鑛山中에서도 特히 第四坑區가 有望한것인데 이坑區의 堀進은 一千百尺 堀下가一〇〇尺 堀上이 二〇〇尺 脈延長四〇〇尺 脈幅 五尺乃至六尺인데 이坑口에서 나는 金의含有量은 勿驚八〇瓦으로 이는世界無比의 大金鑛이라 할수잇는것이다.

그리고 이三和鑛山은 鑛主인 金浚相氏는 말할것도 업는것이지만 이三和鑛山에서 德大로써 巨大한資金을 모은사람이 잇는것만보드래도 이鑛山이 얼마나 價値잇는것인지 알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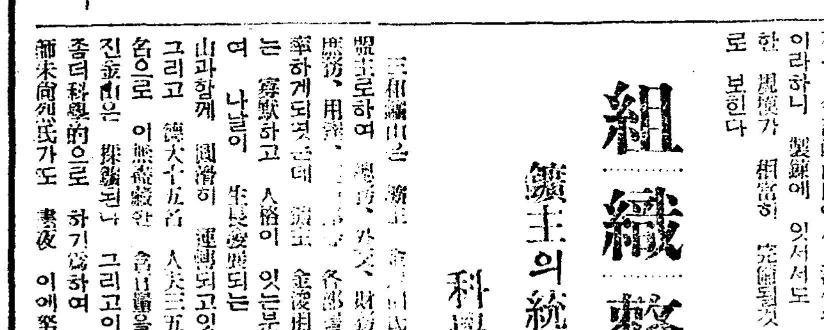
이제이것을 證明하기爲해서 그들의 財產을 여기摘記하기로한다

張泰日 七萬圓(昭和十年)
金興穀 外五人 六萬圓
金聰濟 一萬圓
張錫煥 一萬二千圓
朴享鎬 八千圓
李鎭圭 一萬五千圓

이것은 昭和十一年에 始作하여 一年間에 모흔것인데 一年間德大로써 七萬圓이란 巨額을 모앗다는것은 三和鑛山의 金含有量이 宏壯히 만타는것을 如實히 證明하는것이 안이고 무엇일가?

그러고도 德大가 그만치 돈을 모게된 裏面에는 또한가지 잇지못할것이잇스니 그것은 鑛主가 德大에게잇는 比率이 훨신 만키때문이다 이제그比率을보면 分鑛率에잇서서 金石一箱(二十五貫入)所出重金二分以下는無分鑛 二分一厘以上五分以下는八分鑛, 五分一厘以上一錢五分以下는六分鑛, 一錢五分一厘以上三錢以下는 五分鑛, 三錢一厘以上五錢以下는 四分鑛 五錢一厘以上一兩以下는 三分鑛 一兩以上은 二分鑛으로定하는데 이것으로서 넉넉히 鑛主가 德大에게얼마나 厚하다는것을 알수잇는것이다

新興하는 三和鑛山의 產金高가 昭和十一年에 十七萬圓 昭和十二年(一月ㅣ七月)에 卅萬圓이란 巨額에 達한다는것은 以上과갓거니와 鑛山에서 現在不足된 設備로나마 製鍊한것이 적지안흔데 昭和十一年度에 二萬三千四百九十六圓(一九三七分) 昭和十二年(一月ㅣ七月)에는 三萬四千二百三十二圓(四二七九分)으로서 그餘의 鑛石은 鎭南浦製鍊所에 買鑛하엿는데 今後設備가 完備되면全部 이鑛山內에서 消化할것이라한다 그러나 이제 參考上昭和十一年度에 買鑛量을 살펴보면 精鑛이 九十七噸 汰鑛이 十七噸의 巨量이오 十二年度에 와서는 一月부터七月까지 七個月間에 精鑛이 四十九噸(八萬一千八百七十六圓價値) 汰鑛四噸(一萬一千八百八十圓價値)으로 이도한 巨額이라하지 안흘수업는것이다 더구나 現在消化되지못한 鑛石이 三百噸(三萬圓)以上이나되여 그將來가더욱 期待된다 明項設備하에서 이것에 對해서는 詳細히 記述하얏거니와 이設備가 完成되면 여기서 生產되는鑛石을 全部鑛山內에서 消化할것이라하니 製鍊에잇서서도 또한 規模가 相當히 完備될것으로 보힌다



平南三和鑛山 第四坑內坑道斷面圖

組織整備

鑛主의統率指揮下에 科學的方法으로探堀

三和鑛山은 鑛主 金浚相氏를 盟主로하여 鑛務, 外交, 財務, 庶務, 用達, 各部를 統率하게되엿는데 鑛主 金浚相氏는 寡默하고 人格이 잇는분이여 나날이 生長發展되는 鑛山과함께 圓滑히 運轉되고잇다 그리고 德大十五名 人夫三五〇名으로 이 無盡藏한 含金量을 가진金山은 採鑛되나 그리고이를 좀더科學的으로 하기爲하여 技師朱商烈氏가도 晝夜 이에努力하고잇서 科學의힘과 또힘찬勞働力에 依하여 三和鑛山은 날로發展해가는것이다 이제三和鑛山組織은 大槪 左와갓다

鑛主 金浚相
鑛務 金衡銓
外交 盧實根
火藥主任 白京煥
財務係 朴德基
庶務係 金貞稷
用達主任 崔星三
技師 朱商烈

萬難排除猛突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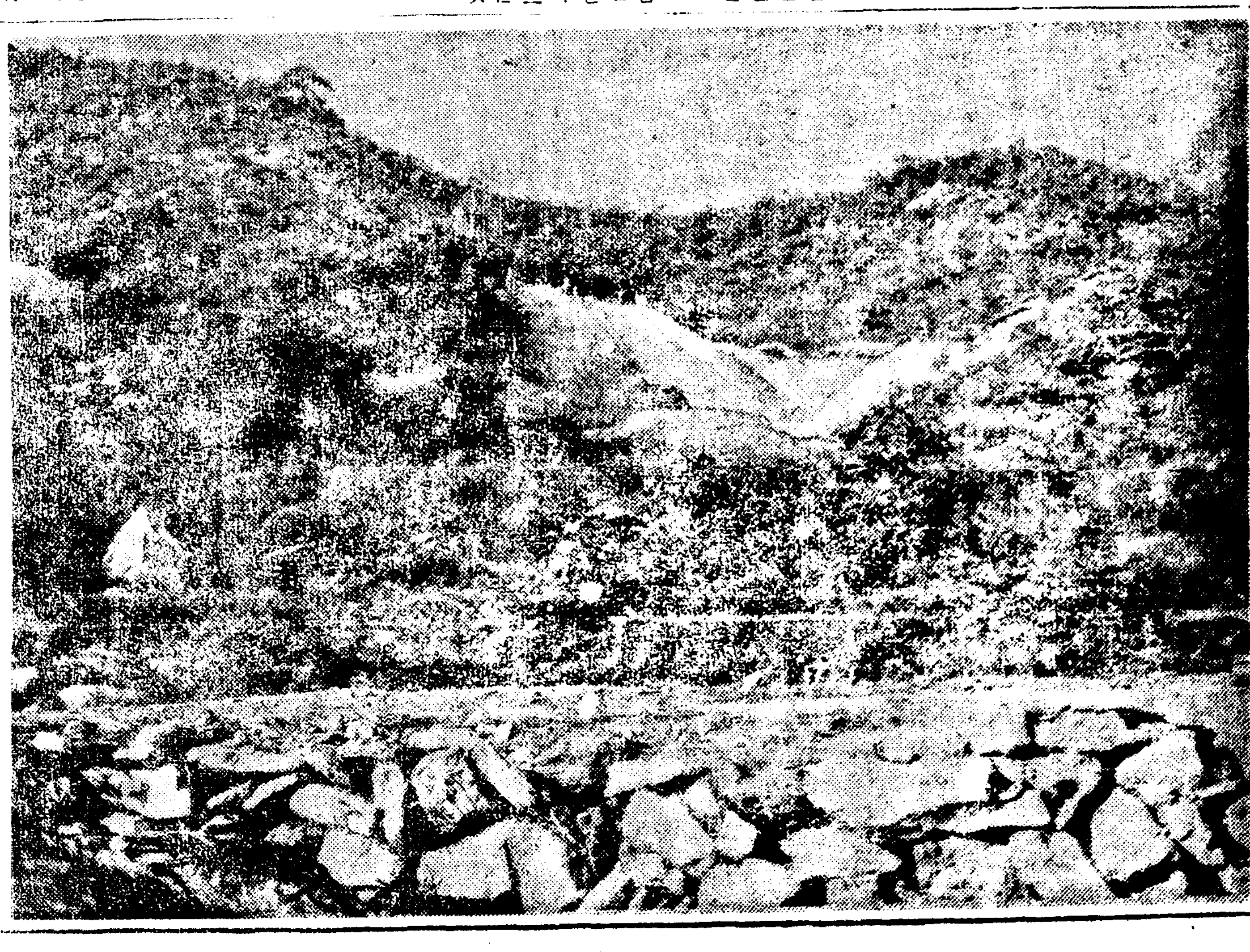
人跡未踏의山間僻地를 三百戶의大部落으로!

嚇嚇한三和鑛山沿革

生長發展하는 滿浦線의一驛 中坪驛에서 西北으로 約五粁 平南安州郡雲谷面龍林里에 所在한 三和鑛山은 安州郡과 順安郡에 揆해잇서 그鑛價가날로 노파가거니와 이런 훌융한 鑛山도 約二十年前엔 人跡未踏의地이엿섯다 그리든것을 大正六七年頃에 金允煥 金仁楷氏等 外三人이 鑛山으로서 將來 有望할것을 豫測하고 共同名義로 出願하여 作業을 開始하엿는데 처음에는 德大式으로 採鑛하야 鎭南浦久原製鍊所에 多量으로 買鑛하게되엿섯다。이成績이 매우良好하야 前記諸氏는 資金을내지안코도 그鑛山에서 生產되는 金으로써 넉넉히 事業을 계속하고 따라 發展식히게되엿섯다。이리하여 鑛山의名聲이 到處에 나게됨을따라 男負女戴로 살길을 차저 이鑛山으로 몰려오게 되엿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一分錢이업시 와섯건만 얼마하지 안어서 生計가되고 또 貯蓄이 잇게되여 自然히 이人跡의 山間地帶엔 三百戶란 적지안흔 戶數가 平和한마을을 建設하게되엿다

그런데 好事多魔라고 漸次로 坑堀이가퍼짐을따라 出資할金額이 相當히 만허지게되자 그들은 이조흔鑛山에 投資할 餘力이업서서 그만 大正十一年 不得已廢鑛을 하게되엿다 그러나 事業慾에불탄 前記鑛業權者中 金允煥氏는 이것을 그대로 放棄할수가업서서 다시 現在面積의 鑛區를出願하야 發鑛을하고는 作業하기始作하엿는데 이또한 資金不足으로 失敗하엿다 그런데이 中止되엿든鑛山을 다시 金允煥氏가 七年前에 委任經營하엿는데 이또한 失敗로 歸하야 作業이不能하게되자 이를 現鑛主 金浚相氏가 金允煥氏로부터 讓渡바더가지고 鑛業權者登錄과 同時에 事業을 다시 [illegible] 一月二十七日이엿스니 그때만해도 여러가지로 作業進行上 困難이 적지안엇든것은 말할것도 업는것이다 그러나 堅忍不拔의 精神으로 一路邁進하는 意氣를 가춘 金氏는 이萬難을 排除하고 昭和八年六月二十七日 登錄番號 六五九七號로써 完全히 登錄한뒤 昭和十年 여름 十萬力二五〇封度 杵十五本의 製鍊場을 設置하고 德大들 各處에서 몰려드러 採鑛을 本格的으로하게되엿다 이리되자 採鑛成績은 良好하게 昭和十一年에이르러서는 金山으로써의 面貌가 뚜렷해지고도 그採鑛方法이 漸漸改善하여 金山은 漸次鑛價가 노파지게 되엿다 이러케 事實에잇서서 發展해나가는 金山을 잘運用하기爲해서 金氏는 倉庫等八九棟을 建設하여 또한 躍進三和鑛山의 面目을 一新하게되엿다 더구나 昨年末 눈이날리는 겨울에 이르러서는 稀有의 大鑛脈을 發見하야 金山의成績은 더한칭 鑛價가 놉게되엿스니 이리하야 最上品의『노다지』가 多量的으로 採堀될뿐안이라 이事實을 알게된 各處德大들이 또한 多數集中하여 只今은 宏壯한 人氣속에 每日每日 大量의 金石을 採鑛하고잇다 이러한 一大飛躍的採鑛의 記錄的大發展을따라 今日의 德大式採鑛에서 純全한 企業的採鑛形式으로 고치기爲해서 이鑛山은 今春부터 五千圓을던저 延長八千尺의 산넘어新道路를 새로닥거 險路山間地帶를 開拓하는一方 從來는 牛馬車를 利用하여 鑛石을運搬하든것을 只今은 貨物自働車로써 大量生產되는 金石을 運搬하고잇다 그뿐안이라 지난八月五日에는 一金一萬圓也를던저 西鮮合同電氣로써 電力을利用하여 作業을 하게되엿스니 이리하여 名實共히 이鑛山은 近代尖端的科學的으로 採鑛하고 잇다。

果然이처럼 設備로나 또採鑛으로나 秩序整然, 또將來性잇는 鑛山은 또그類例가 적은것이다 이것은오즉 金浚相氏의 精力的인努力의 所產인것은 말할것도업다



三和鑛山全景의一部

우리차지

우리집개와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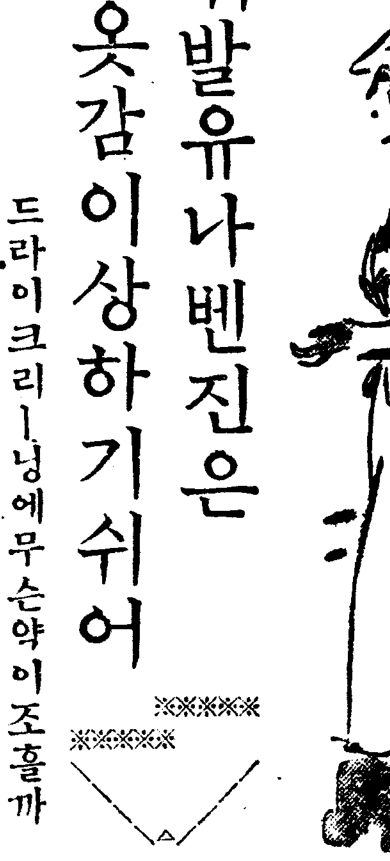
우리동리집집마다닭이 잇서두 우리집 닭이 대장인가바。새벽에 제일먼저 꼬꾀-하고 운다。그러면우리마을아랫마을닭이 따라서 운다。

개도 우리집개가 대장。동리에 낫선사람이 드러오면 먼저 지즈며 알린다。그러면 동리개들이다나와 짓는다。

(글쓴사람 최복한)

휘발유나 벤진은 옷감이상하기쉬어

드라이크리ー닝에무슨약이조흘까



요사히는 빨내를 하는데 소위『마른빨내』라는것이류행합니다。이것은 요사히말로『드라이크리닝』이라는것인데 여기에는 데퍼노코휘발유가 보통쓰이고 그다음에는 조곰규모가크게 벤진기름을 쓰고잇습니다。

휘발유나 벤진은 불이잘 부틀뿐아니라 기름속에 드러잇는 불순한 물긴때문에 옷감의 빗갈을 변화시키며 엇더한 군때라도 곳빨수잇는것이 아닙니다。

세탁소가 아조큰데서는벤진이 불이부터서 폭발이되기쉬운까닭에 이것대신으로 사염화탄소(四鹽化炭素)를쓰고잇스나 이것은 군때가잘 지기는하나 일하는사람의위생에 대단히 조치못하며세탁기게의 파입과 기타쇠끗츨석게 함으로 조치 못합니다。

그러나 요사히는 휘발유도벤진도 사염화탄소도 모다그결점을 업새여버리고아조 리상적으로 이 모든것의 장점만 따서만든 약품이생겨낫습니다。

그것은 또리크로ー루에치링이라고하는 걸직한 일홈을가진약품인데 아세치링으로부터 정제(精製)된 합성용제(合成溶劑)이나 이것은 인화력(引火力)도 약하고 세탁기게도 상하지 안흐며위생에도 큰해가 업슬뿐아니라 축축하게 놓은데로 잘퍼여드러가서 수분을빼내고 기름기를 빠라내는성질을 가진것입니다 그러나 휘발려은 제일큰때문에 조곰식가정에서 쓰기는 불편한점이잇습니다。

그다음에는 과붕산소ー다(過硼酸)라는것이 새로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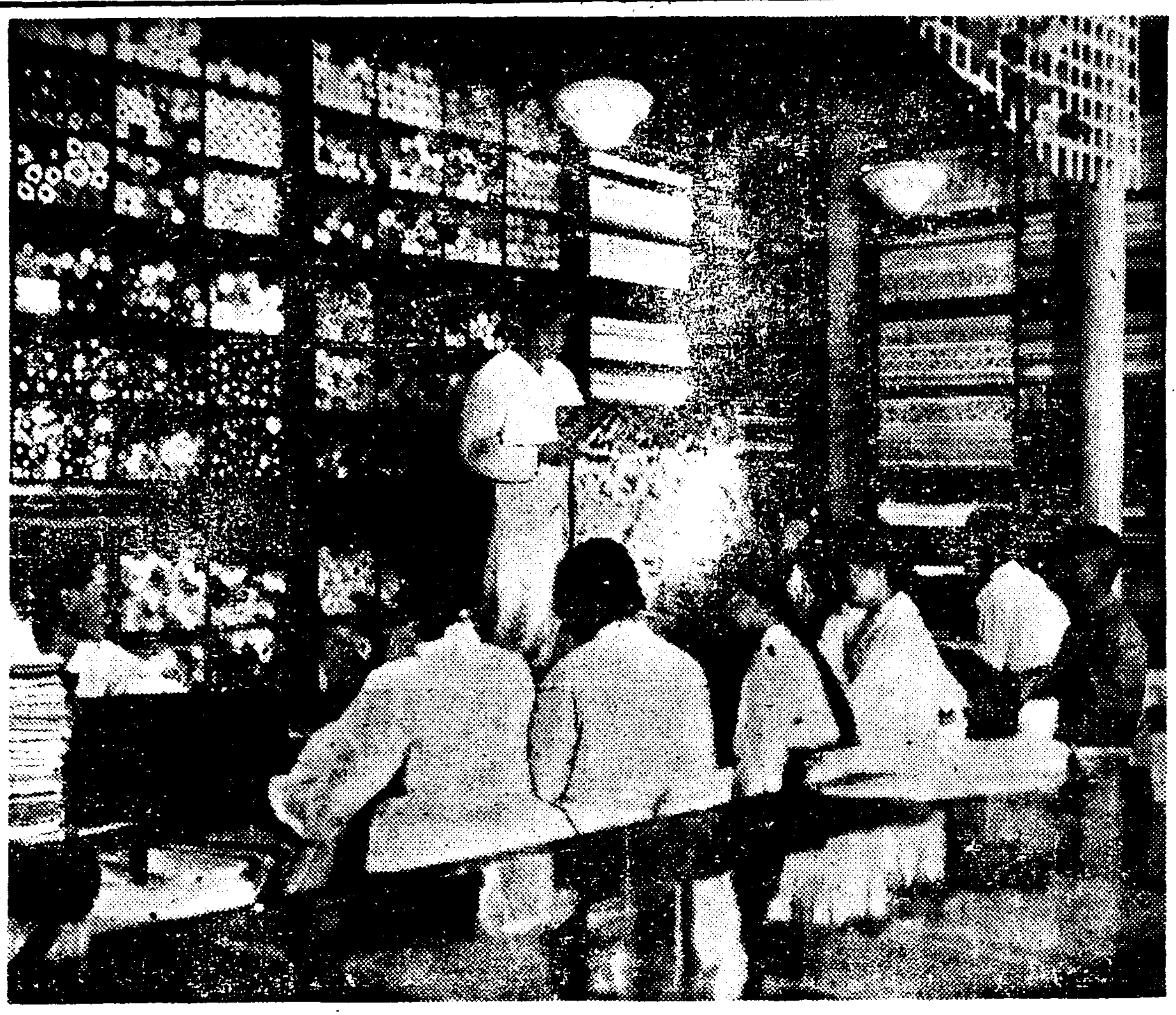
이것은 붕사(硼砂)에 아르카리와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를 작용시켜서 하야코 냄새안나는가루로서 가정에서쓰기에 아조 편리한약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방법은보통세탁을 할때는더운물에보통가루비누에 그것보다조곰만흔 과붕산소ー다를 석거서풀고옷을 두시간가량 이속에너허두면 알카리는기름기를유화(乳化)시켜서빠라내고 더러운때는집니다 더욱과산화수소분에는 표백작용이잇스니업스나 때는맑끔하게씨처집니다。힌옷에 응용하면 일거리가 간단하고 맑은빨래를 할수가잇스므로서 서양서는 이약을 자동비누라는일홈으로팔고 잇습니다。

잉크자욱을 빼는데는 아조리상적입니다。이가루를오배의물에 푸러서 잉크자욱에바르고 그것을 뒤집어안으로 뜨거운윤도를 대이기만하면 빼집니다. 간장떠러트린데나 누른자리나 땀에도잘듣습니다。더욱곳자리때문는데나 마루 딱는데도훌륭합니다。

그밧게 이약은 살이어되부다처서 상햇거나 손이검질이상해서 피가나는데 소독제로도 조흡니다 이가루를 목욕통에푸러서 목간을하면 피곤한것을 푸러주는가정오천도됩니다 뿐만아니라 살결을하게하는 까닭에일거양득입니다。

문제의 벤진비누는 때빼는데와 마른빨내에는 잘들을뿐안이라 분(粉)올르ー르벤키 진흑자욱가치 잘빠지지안흔 빨내에는 석잘듣습니다 이것은 상등의알콜에 바르세르비누와 벤진과레인기름을 석거서만든것입니다。



사진은 세탁소

리화학적 미용술

산소흡입을 살결에리용

새로발명된젊어지는법

옛날과달려서 지금녀성의 화장이란것은 모다가다른사람의손으로 되고잇스므로 미용기게가 발달되고잇습니다

머리카락을 모ー던석가여래처럼 만드러주는 퍼ー메넨트기게가 센세숀을 이르킨때는 벌서오랜옛날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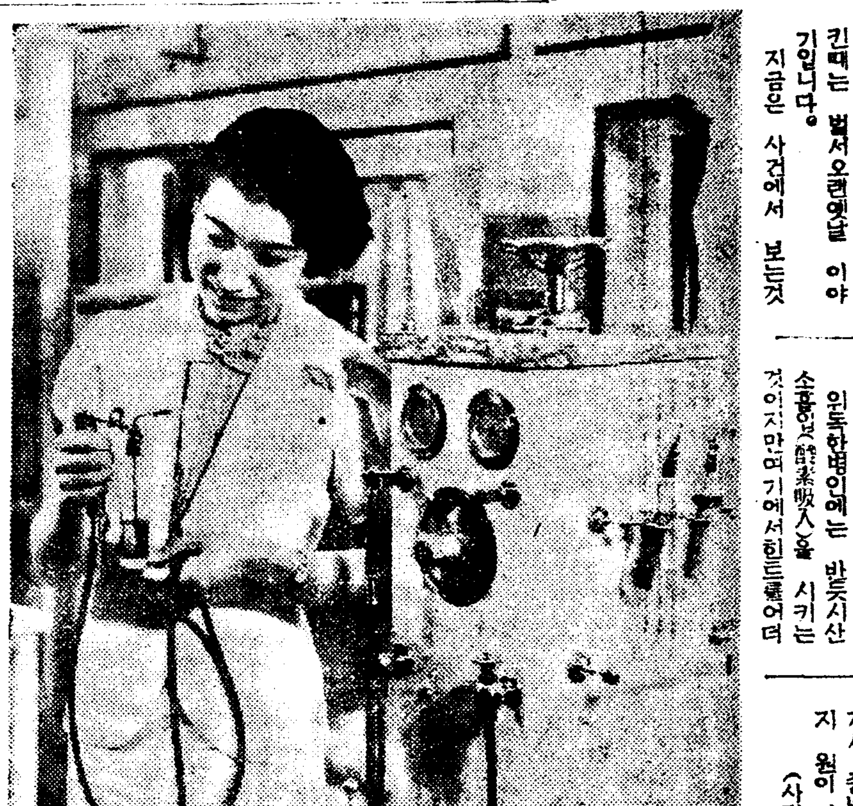
지금은 사건에서 보는것과가튼『젊어지는기게』가발명되엿습니다。

이것은 옥수레이손이라고하는것인데 느러진피부와 여드름 죽은깨 살결이검은것빗갈이 윤택해지지안흔살결들을 히고아름답고 젊어지게하는것입니다。

위독한병인에게는 받도시산소흡입(酸素吸入)을 시키는것이지만 이기계에서는이것을어더가지고 발명된기게입니다。이기계속에는 언제던지산소ㅅ가스가 드러잇서서 피부에 특수한화장수를 뿌리면서 조곰식산소를 내여보내면 이상분뒤에는 살결이고와진다고합니다。

산소까스에는 표백력(漂白力)이잇서서 흡사히 옥씨풀가트므로 강한약품과달너공기와가튼 까스체이므로 조곰도 피부를상하게할 념려가업습니다。

다섯뒤에는 가벼운맛사ー지를하고 여러번 이것을계속하면 놀나우리만치 젊어저서 중년부인에게는 한가지 원이 더러진다고합니다。



(사진은 옥수레이손)

"수술"이야기 ❷

생각하기보다는겁안나는치료법
수술도제때를노치면별도리업서

城大松井外科 文仁柱

지금으로부터 삼십오륙년전만하드래도 일본에서는 맹장염(盲腸炎)의수술을 할줄몰낫습니다。그때에 맹장염이터저 복막염을 이르켯다면 거진 죽고말앗슬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맹장염의수술은 아주쉬운수술의하나이며외과를 일년만 전공하드래도맹장염쯤은 자신잇게 수술할수가잇슬것입니다。그러고 옛날외과의는 피부 근육 골격에관한병만 취급하얏스나 요새는옛날내과의 에게만 맛겨두엇든내장(內臟)의병까지도 만히 취급하게되엇습니다。사실상 외과의 수술을 밧지안으면 낫지못할 내장의병이 만히잇습니다。

균을업새고나서

근세에 세균학의 진보에따라완전한 살균법과방부법이 발견되엇습니다。옛날에는 수술을하기만하면 곰기게하야 무한한고통을 겪겨온 외과의사는 살이곰기는것은 세균이 전염하기때문이란것을 알게 되엇스며 살균법을 수술에 응용하게되엇습니다。수술한자리가 곰기지안케하랴면 수술할곳에대이는 기구는물론이요 그부근에 잇는것을 모조리살균하야 균이업도록 맨듭니다。수술자의손은 비누로써 창시간씻고 다음에리졸(솔홍)알콜등의 살균약으로써 완전하게 살균하야 손에세균이 부터잇서수술할때에 환자에게 전염되지안토록합니다。그뿐아니라 수술자는 증기로써 완전히 살균한 모자、마스크、수술복으로 몸을싸버립니다。수술기구는 펄펄끌는물로써 살균해버리고 수술할자리도 살균약으로써 세균이부터잇지안토록 잘소독하며 수술할자리만남기고 다른곳은 살균한베로써 덥퍼버립니다。이러케하면 완전히 무균적으로 수술할수가잇스며 외과전문의는 누구나 모두 무균적으로 수술을시행하고 잇습니다。무균적으로 수술한것이 곰기는것을 량심잇는 외과의는 큰 수치로 생각하고 잇습니다。그러고 근육에염증이 생겨 곰긴곤염을 수술할때에도 이것은 벌서 어떠한세균이 전염되어잇스나 이때에도 무균적으로 수술해서 다시다른세균이 전염하야 딴병이생기지안토록합니다

아무지안케해서

우리는 부대친다든지 살이째진다든지하면 그곳이 몹시 아프다는것을 잘알고잇습니다。그와낫찬가지로 우리의살을 아모런 마취약도 쓰지안코 그냥수술한다면 그압흠이 대단할것입니다。옛날에 아모런 마취약도쓰지안코 태연자약하게 안저서수술을 바덧다는사람도 잇스다고하니 압흔것을 참는것은 사람사람의 참을성에 따라 다르겟지만은 마음약한이는 조곰만 압하도 기절하기까지합니다

수술밧기를 실혀하는 리유는 여러가지가 잇겟지만은 제일첫재로 압흐다는것이、큰리유일것입니다。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의사에게 제일먼저 부탁하는 것은 압흐지 안케수술해 달나는것입니다。수술을 밧게되면 누구나할것업시 압흠에대하야 큰 공포심을 갓게되고 사실상 몹시 압흐다면 환자는 수술이 끗나도록 참고잇지못할것이며 수술중에 몸을 움지기게됨으로 의사도 수술을 완전하게 잘할수가 업게됩니다。

그럼으로 수술을 압흐게하는것은 환자자신이 참고잇지못할뿐아니라 의사도 아모런 결점이 업는 완전한 수술을 할수업게됨으로 자연히 수술의결과가 조치못하게됩니다。

요새는 마취법이 거진 완전하다십히 진보되어 잇습니다。그러서 마취약만 잘리용하면 환자에게 아모런 고통도 주지안코 수술을 마칠수가 잇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마취약이 완비되여잇다고 하드래도 이것을잘리용하지못하면 다시말하면 의사의기술이 서툴다면 마취약은 그효력의 전부를 나타내지못하고 환자에게 다소의고통을 주게됩니다。그럼으로 수술을 밧고저하는 환자는 될수잇는대로 서툴지안은외과의의 수술을밧는것이 걱정업는것입니다。

익숙한 외과의는 메스를 환자의살에 대이기전에 먼저 환자에게 압흔고통을 주지 안트록 마취가 완전하게되도록 애를씁니다。그럼으로 의사만 잘선택한다면 아모런 고통도 맛보지 안코 수술을 바들수 잇슬것입니다。압흐지안케 수술하는것이 현대 외과의의 큰자랑이라고생각합니다。

요새는 웬만한 수술은 거진 다 국소마취(局所痲醉)로써 넉넉합니다。수술할자리에 마취약을 주사하면 그곳만 감각이 아프지안케됩니다 개복수술일지라도 국소마취로써 수술할수가잇습니다 그러나 마음약한 이나 어린애들은 아프지안트래도 겁을내여소리를 질으고 야단을 함으로부득이 전신마취로써 수술을게속하게됩니다。

전신마취라는것은 에텔크로로홈 가튼약을 호흡과동시에 흡입시켜서 전연 의식을 이저버리도록맨듭니다。전신마취약을 흡입시킬때에 하나 둘하고 큰소리로 세이게 하는것은 환자가 의식을 이젓는지 그러치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될뿐아니라 마취약을 호흡에따라 잘흡입시켜 속하고 완전하게마취되도록할목적으로 그러케하는것입니다 또 요추마비법(腰椎痲痺法)이란것이 잇는데 이것은 요추내에 약을너으면 배꼽아래로 반신(半身)이 전연 아프지 안케됨으로 부인과병 생식기병 항문병 다리병등에 잘리용하며그효력이 완전하다고합니다

잇습니다 수술을 밧드래도 결코압흐지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이올습니다

추석명절압두고 옷감시세보기

물까폭등도마이동풍 되려일할가량이내려

추석명절도 아프로 이주일남짓하게 남엇습니다 모든산업이 전시체제라는 엄격한통제속에 노혀잇는이때 금년추석대목의옷감은、엇더케되엿나하고 남대문통의 태성상회라는 포목점엘 가보앗습니다。

모든물건이 전쟁을모르고오르기만한다고들떠드러대는때이라 옷감도 의례히 빗싸젓스려니 생각하고 이것저것금년가을에 입을만한것들을 살펴보니 오르기는커녕 모다들떠러저잇섯습니다

첫재 우리네가정에서 제일만히쓰는 인조견은 그원료인『펄프』의 부족으로 말미아마 대단히 빗싸젓슬것인데북지와상해에 뜻하지아니한전쟁이이러나서 인조견을 제일만히 먹든곳에 물건이갈수업스므로 갑시뭇척 떠러젓습니다 금년봄시세에 비교해보면 약일활가량 떠러젓스며 아프로도전쟁이계속되는한 절대로 더오르지 안흘것이며 더떠러지지도 안을터이나 한가지 물건이만히밀여서 가음프리기가대단히 조타고합니다 그도운종하는기차기선의 제한이되지안햇스면 협신협하게되엿슬것이나 운송제한으로 말미아마물건을투고도 가저오기가 힘들어서 갑시조곰비싼편이라고합니다

그다음 교직과 면포등속가령 옥양목이나 광목가튼것도 떠러젓는데 이것은 인조견보다는 덜떠러저서 한 오륙부가량헐해젓스며 본견가튼것이라던지 조선에서 생산되는모시포목은 조곰 떠러지지안햇습니다。

대체로 작년가을에 비하면 이것도 대단히헐한편이며 추석대목에도 이모양으로 오르지도 안코 나리지도 안코리라하며 지방에는혹간 운송관게로 오르내림이잇슬뜻도 하나 금번사건으로 조선와서방방곡곡에 떠저잇든 지나사람포목상들이 철거하는판에 그물건들이 헐가로처분되엿기때문에 금년추석 옷감들은 비교적 헐하게 살수잇겟습니다。

옷감이야기가낫던김이라 금년가을옷감으로는 요사히에 류행하기시작한빗갈은남빗갈에조곰지튼것이 대단히팔리는데이것은 어데서 누가 먼저입기시작하얏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빗갈이흔하지 안흠으로 제각각연해서입고잇는형편이며 비치빗갈지튼것도 한편에서 류행하는데이것은 비상시를 상승하는 국방색으로 조곰점단을 것는다는편입니다。

이러케 류행하는 옷감으로본견이면 저고리한감에 일원팔십전 교직은 칠십전정도라고합니다。

―사진은 세나는드롱전―

복주머니

식빵부스러기 잘모아두십시요

식빵을먹을때 식빵거죽에부튼단단한껍질은 대개버리는것이보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보면 빵가루대신으로 쓸수잇슬뿐아니라보통빵가루보다 훨신조흔것이되는것을 모르고버리는것은 원통한일입니다。

빵껍질을 청결한곳에 두엇다가 볏살이 쨍쨍할때 신문지가튼데펴서 하번말리엇다가 그것을 나종에 커틀렛、푸라이등속양요리를만들때 빵가루대신으로쓰면 가루보담훨씬이 맛날뿐아니라 분량도헐신붓습니다。

또한 빵껍질을차끈허서 참기름에 찌저서 설탕을처서먹으면 버젓한과스크과자와가티 맛이조켓습니다 그뿐아니라 빵껍질을 물에노겨서 푸러버리고 그속에 소고기를써러너코 참외쪼각을써러너허서 찌면 버젓한양요리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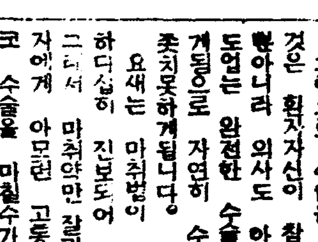
옷에먹무든자리

힌옷에 먹물이떠러진 자욱은잘지지안코 보기에흉합니다。이것을업새는데는 간단한방법이잇스니 가르처드리겟습니다。

첫재 밥풀을이기고 그밥풀과가른분량의 비누가루를 석거서때자욱에 한불질하야둡니다。그다음 때자욱을 여러번문질너서 보통비누로 씨치면 웬만한것은 지워집니다。

長篇小說

찔레꽃 【113】



金末峰作 金熊超畫

적자(赤字)(五)

『러비는 변통되섯세요?』

『응 뵈올가? 자』

근호는 안포켓트에서 뭉칙큼직한 지전뭉치를끄내 방바닥에 떠노앗다

『아이 어쩌면』

부르짓는 오란은 달겨들어 근호의 얼골에다 입을 마추고

『난정말 행복이야』

정말 행복에 취한듯이 사르르 눈을감으며 부르짓더니

『모두 얼마얘요』

하고 소근거린다。

『이게모두 이만오천원이야 이만하면되겟지?』

하고 근호는 자기가슴에 처박혀잇는 오란의 얼골을 내려다보앗다。

『네 그런데 어데로 가는것도 조치만 우리여기서 이대로살어요 네? 여기가 낫지안허요?』

『그래도 자피면어쩌게』

하고 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영창문을 흘겨보앗다。

『누가 아나요? 머』

『은행에서 벌서 고발을 햇슬렌데』

『머 그래도 우리가 감쪽가티 숨어잇다면 저이들이 어떠케 알어내요 이곳은 장안천지에서 안그래요?』

근호는 잠자코 한참 안저잇다가

『그래도 제일 먼저 오란이가 두취에게 고발을해놧스니까그게 위험하지안허? 하하하』

소리를내여웃는 근호는 놀래서 벌덕이러나안는 오란의 어엽분 뺨을 물이번쩍나게 한번갈것다

『요망한게집가트니……난 하마터면 너가티 량심도의리도업는 게집때문에 큰일을 저즐를번햇구나……나의악몽도 인제야 깨엿다』

『아 아ー니 건또무슨말슴이야요 무어인지 오해하시지 안헛세요』

하고 아픈듯이 뺨을만지는 오란은 별로놀라지도안는다

지긋지긋한듯이 근호는 부루루치를떨고는

『진주를 도야지에게 주지말고 거룩한물건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말이 아마도 천고의 진리인가부다……내전신전령을다해서 밧치는사랑을 비둘여자는 아마따로 잇슬게다』

말을마친 근호는 자리에서 돈을주섬주섬모아서 도루품속에다 넛코 벌덕이러서 박그로나왓다

근호는 그길로곳 근처자동전화실로 뛰어드러갓다

『거기가 ××은행 지배인댁이야요? 저는 최근호입니다 지배인과 좀바꿔주십시요』

전화로통해서 들려오는 지배인의음성이 이러케도 당황할수가 잇슬가 근호의출현이극도로 그를 놀라게한모양이며 전화통아페섯는 근호는 쓰듸쓰게웃고

『지금 평양서 오는길입니다 ××고무회사 현금은 최다바닷는데요 네네 지금곳 댁으로 가뵈겟습니다 네네』

전화실에서나온 근호의얼골은홍운을물코나온 둥근달처럼 펑명하여젓다

갑작이 신열이나서 중간에서하로밤 하차한 때문에 늣저다는 근호에게 이만오천원 현금을종

도리자 바다된지배인은 커ー다란안심과 즐거움에 넘치는얼골로 몃번이나 근호의등을두드려주고 먹지못한다는술까지 손수따라 대접을할때 따라 대접을할때 미상불 근호의맘은 상쾌하엿다

열시가지나 지배인댁에서 나온근호는 지배인이불러준 택시에올라 자기하숙으로 도라올때진실로 날개가 백개나 돗친(평양에서올때와는 다른의미로)훨훨공중으로 날라가는듯한 맘의가벼움을 느끼엇다

물론 오란을 영원이 일허버린슬픔은컷다 그러나 그것도 옥란이란기생이 얼마나 무섭고미운존재인것을 생각할때 그는단지 위험한 호랑이굴을 버스난때처럼 슬품보다도 다행한생각이오 히려압섯다

효자정하숙에는 아직 방마다 불이켜잇다 근호는 민수의방아페이르러자

『리군!』

하고 소리를첫다 민수의영창이 열리면서

『자네 인제도라오나? 그래 만히고단햇지 자어서 드러오게나』

하고 근호아프로 손을내민다

『응, 근데 과히바뿌지안커든 우리박그로 나가세 출장보고도 잇고 그리고 좌우간 내한턱 함세』

두사람은 끌목을끼고 큰길로나왓다

그들이 드러간것은 서대문통에 잇는 어느조용한 차집이엿다

두사람앞에는 곳 따끈한커피가 나왓다

『웨 얼골빗이 좃치못햇는데 어데가 편치안엇나?』

하고 심상치안케 바라보는 민수의시선을 마조볼끄럼이 건너다보는 근호는 고개를 끄덕끗덕하면서

『응 지독한열병을 알르리구 그랫서』

하고 빙그레우스며 차잔을집는다

『열병이라니』

하고 민수가 뭇는말에

근호는 빙긋우스며 방안을 휘휘살펴보고 실내에는 자기네두사람박게 업는것을 확인하자 그는 태연스럽게

『자네 나 오란이란 기생에게 실련당한것알지?』

『응 알지』

『나 암만해도말야 계집을 일허버리고 살맛이업데 그래서 이번에 평양출장에서 바든돈 이만오천원을 가지고 계집을 데릴려가지안햇겟나』

민수는 근호의 거친업시 술을 내리가는 이야기소리에따라 그의두눈은 놀라움으로 점점커젓다

『햇터니말야 들켯서』

근호는 급사아이를불러 위스키를 명하고

『그래서말야 부득이 도로도루갓다주엇서』

『아니 갓다주다니 누구에게로』

『××은행 지배인에게 지금갓다주고 오는길야 할수잇나게 집의망은 딴데잇는걸 머』

『그래서 열병을알엇구먼』

『안야 열병은 그전에 일이고 벌서 오란의맘이 내게업다는것을알자 열병은 나아버렷서 하하』

바로 남의일이나 이야기하는것처럼 여상스럽게지꺼리고 안저잇는 근호는 민수에게 비해서 약간 자약하게보이는 그체격어느구석에 이러한 굵다란 남성적도량이 감초여잇는가시퍼 민수는 근호라는 청년에게 새삼스럽게 친분과우정을 감각하엿다 잠자코 민수를위하여 식비를 내준것이라던지 산성액체에다 쇠쪼각들을 녹이다가 민수에게들키자

『은행금고를 깨처보겟다』

고통당상아 바른말을한것이나 이모든것은 결코 보통남성이 흉내지못할 근호독특의 호방한성격이 아닐수업는것이다

주문한 위스키가왓다 민수는 손수 술잔에따르며

『자 열병퇴치한 기렴으로 간빠이하세나』

근호와민수가 내미는 잔과잔은 찰각하고 소리가낫다

『근데말야』

근호는 술을입에다 탁드러너코는 매운듯이 눈살을지프리며

『내이것을 자네에게 보고를해서 조홀지어떨지 지금 망서리고잇네만……』

하고 령수가담긴 꿉부를 입으로가저간다

『응? 무슨말인데? 최군의성격에 어울리지안는말은 그만두기로하고 자 어서드러보세나』

하고 술잔을 터에가저갓든 민수는 그광채나는 아름다운눈으로 근호를 쏘아보앗다

『응 그러면하세 좌우간 큰맘을먹고 드려야한단말야 계집이란 본래 마물(魔物)이라는것만 생각하면 고만이니까』

이러케시작한 근호의 이야기는 마침내 살대와가티 이야기의관혁(貫革)을 뚤코야마렷다。

『머? 가정교사? 저런죽일놈이잇나……』

하고 민수가 벌덕이러서는바람에 상우에노혓든 유리잔이 땅바닥으로 굴러떠러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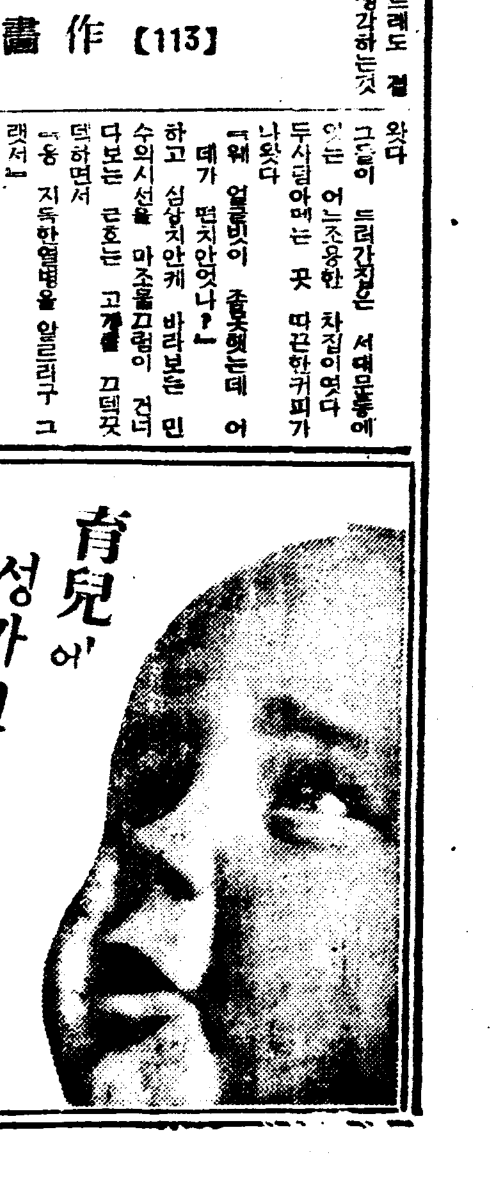
『이놈 이놈、조마노롬 그냥두다니 이놈을 한주먹에』

부르짓고 박그로 뛰어나가는민수를붓잡고

『여보게리군 내말좀듯게나』

하고 근호는 젓먹든 힘을다하여 민수의 어깨를안엇다。

失敗가업는夏節의育兒料



育兒에 성가신때가왓다!

일로부터는疫痢와赤痢、腸炎의季節인만치放心할수가업습니다突然히猛烈한症狀을하게되는것은大槪腐敗物로因한것이며新鮮하다고생각되는牛乳나煉乳일지라도일로부터는쯧다하면腐敗해잇기가쉽습니다。

그러나여러가지로일이만흔어머니로서不斷의注意를하기는여간困難한일이아니여서일로부터는腐敗치안코安心할수잇는育兒料를써야됩니다。

그러케함에는粉乳처럼理想的인것은업습니다。그러나粉乳에도種類가만히잇서서選擇에가실지리도擇하실려니와左의條件에相符한것을使用하시면틀림이업습니다。

―外觀―
①無糖粉乳라고明記한것
②罐이새롭고罐詰法이完全한것

―原料―
①原料를一一히吟味해서眞摯한態度로製造한것
②品質이均一하야不同이업는것
③品質에不斷의研究를한것

―販賣―
①全國的으로一般이使用하고、또어데서나販賣하고잇는것
②品質이優良함으로써팔리고賣價이나其他의興味꺼리를가지고購買心을일으키게하지안는것

―實績―
①永年에亘하야全國的으로小兒科醫의臨床報告의數가만흔것
②長久한歷史와光輝잇는實蹟을들어서育兒界에貢獻하는것
③日本一의優良兒를育成한것

이어려운條件을파스한것은아마라クトーゲン以外에는업슬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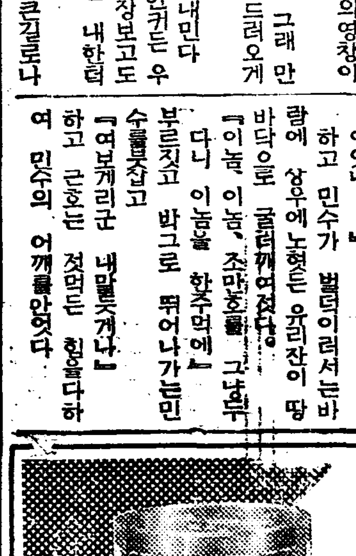
母乳兒를물리치고 日本一의優良兒(木村美生君)를 만드러낸것은百의宣傳보다도優秀한實例입니다

腐敗하기쉬운때를當하야完全安心한無糖粉乳ラクトーゲン을使用하심은얼마나어머니의愛苦를덜하게하는것이겟습니까!

左의카ー드에記入하시고發賣元으로보내여주시면『育兒相談카ー드』를作成하야 育兒上家庭衛生上諸般의相議에應하고또育兒健康向上에關한各種의參考資料를그때마다送附하겟습니다

育兒相談カード

氏名
年齡
住所



ラクトーゲン

全國藥局、百貨店에잇습니다
日光비타민오리ー브 發賣元
虛弱兒의育兒料エレドン
乾卵食料品株式會社
大阪市東區伏見町
東京日本橋區本町二

『보—들레—르』死後七十年紀念
그의 生涯와 藝術的態度 ②
李軒求

『보—들레—르』의 運命이 그의 不幸한 家庭生活에 起因한다는것은 누구나 『是』認하는바 常識이어니와 義父를, 아버지라고 稱呼하지아니하고 「동무」라고 불러 스사로 自己自身을 『햄레트』의 運命에 比喩하야 義父에게 復讐的抗爭을 敢行한 少年時代가 벌서 이詩人에게 새로운 運命의 길을 가르처주엇다. 星座의 坐標가 그位置에 따라서 科學的인 事實以外에 더한層 아름다운 傳說을 만드러내고 가티 그社會의 道德과 秩序와 趣味에 適合하게하기 爲하야 東洋遠航의 먼길로 보내 그航路로 말미아마 『보—들레—르』가 더한層 反撥된 새로운 文學의 길—人生航路를 發見해가지고 도라온 廿歲의 이詩人의 面貌를 생각할때 人間意圖의 結果가 如何히 歸決지엿느냐? 하는 興味도 이에 添加되야 일어나지아니할수업다.

그러나 우리는 이 『詩』人에게서 『유고—』와 가티 誇大한 詩魂의 飛翔이라거나 『랭보』와 가튼 早熟的天才의 發露를 發見하지 못하는 反面에 人生을 凝視하야 그 靈魂, 그 肉體를 파고 캐여드러가며 때로는 그 全心身의 變化까지를 敢行하는 일으는바 鍊金道士的修練과 苦行에 戰慄되지 안흘수업다 한때는 단디슴의 徹底한實行者로서 社會의現實을 冷眼視하는 바 一種遊蕩兒的興趣에 相當히 沒入되든靑年時期도 잇섯건만 그가 한번 일어난 性格上 生活上 變革은 드디여 그에게 決定的인 詩人의玉座를 準備하여주게 되것이다 그러나 이變革은 實로 『단테』와는 全然對應的關係로서 『단테』는 一生을 『비아트리체』의 『恍』惚한玉步와 華容을 禮讚함에 바치엿거니와 『보—들레—르』는 『자—느 두발』이라는 魔婦라거나 妖婦一할수업는 말하자면 一種怪奇美라거나하는 分類表로서는 區別一的女性때문에 그一生은 犧牲되엿섯다 그가 이怪奇美的女性에게 바친바 數十篇의 詩를 읽으면 이르는바 『黑비너—쓰』와의 生活이 얼마나 慘憺하고 苛酷하고 論難되고 苦悶와 絶望에 가득찻는가를 想像하려니와 그보다도 肉身 骨髓에까지 파먹오드는 이 한女性의 斷末魔的捕虜行動에 對하야 이野生的肉의 權化인 한女性을 비—너쓰와가티 美化 理想化하는바 聖潔하고 淨化된

『反』面을읽을때 『보—들레—르』의崇高하고도 讚念에찬詩魂의 別世界에 恍惚과 戰慄을 느낀다 世人의常識的判斷에依하면 異性間의 두 肉體와 精神이 서로좀먹어들기 始作하고 愛情의 正常的經濟를 밟을수업슬때 그사이는 當然히 서로헤여저야하는것이언만 이詩人에잇서서는 두肉體와 두靈魂이 서로 딴世界로 달어나면 날사록 아니 서로엉키고 억매여저 地獄으로 轉落되면 轉落될사록 天國으로 昇華하는바 純粹愛의 權化를 차자 이를 具現하여왓다

이러한 悔恨과 呪咀와 倦怠와 憂鬱에潛伏된 좀먹은 詩人의 靈魂우에 나타난 다른한女性 사바티에夫人에對한 怨慕—肉體에對하야 靈魂으로 現實的欲求에對하야 오래憧憬하고 希求하든 理想的歡喜 光明의再現과가티 그압페 머리를숙이고무릅흘꾸는 敬虔을다하는바 이詩人의 矛盾되고 聖化된 一面은 古今의 모든 詩人의生活에잇서서는 到底히 차저보기어려운事實이다 肉體만임에 물리치는것이아니요 精神만이며 닥어서는것도아닌 當事者이면서 第三者인態度를 恒常이저바리지아니하고 焦燥하야 熱中하는것이아니요 冷徹하야狂惆하는心境, 이리하야 詩人의肉體와精神은 좀먹고消耗되야 거기따르는 生活의貧窮으로부터 現實에 부닥기는 苦難이 必至하는것이어니와 孤獨에싸혀 惡의生活에서 解放되지못하 悲慘을안은채 그의藝術에對한態度는 더욱 高調되고 그 속에 沒入되여갓다

(사진은보—들레—르의筆蹟과뎃상)

鍊金術
引用圖書의 注意
獨角生

어떠한 方面의 學徒든지 直接으로 남의말을 引用하거나 間接으로 다른書籍의 參照를 請할때는 반듯이 그冊名과 頁數를 明記해주는것이 通常의慣例다. 그것은 한편으로 自己立論의 正確性을 表示키 爲하야 또다른 한편으로 讀者의 부지런한수고를 덜기爲하야 다한께必要한일로써 그慣例를 勵行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自己立論의 正確性을 表示키 爲하느냐? 첫재 그書籍의 價値를評하여야지 無條件 아모冊이나 끌어오는것이 장사가아니요 둘재 그書籍의 眞僞를 區別하여야지 贋作을本錄로처서는 自己의 無識을 暴露요 셋재 심지어 그版本까지도 考證하여야하니 古典은 版本의 相異를따라 內容의相違가 생길뿐이 아니라 專門的著書에는 著者自身부터 改版할을따라서 內容의 改作을 하는例가 업지 안한까닭이다. 그와同時에 讀者의 수고를 덜기爲함이냐? 自己의 博學을衒耀할稚氣아래 數三頁의 장황한引用圖書目錄을 적어 놋는다거나 不必要한 參照를要求한다는것은 애초부터 禁物이다. 내가 왜 지금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고한즉 零散한 朝鮮의 出版界요 또 그中에서 다시 새벽별가튼 專門的著書언마멧개안되는 거기에도 引用參照에 對한 本意가 어그러지는배 만흐매 한마듸 不得己케 되는것이다. 오직 하나 가장 甚한 例를 든다면 漢文의 句讀을 똑바로 떼지 못하야 「눈에 서피」「장비 가마」式이 되야잇는것도잇다. 한두군데도 아니요 그冊 全部가 거의모다 그러하다. 自己가 아는것이 못되진댄 어떠케 敢히 引用은하며 남의參照는 請하는가? 어데까지 學徒답게 忠實하고 愼重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以外 價値가 업는 冊에도 一文錢의 價値가 업는 著書를 버젓이 引用하고 그로써 泰然自若한이도업지 안다. 이러케 가다가는 『三國誌演義』로써 正史의 校正을 도모할 사람도 생기지 말란法이 업슬것이다.

戰爭文學(五)
阿旦戰과 小說
湖岩

阿旦戰은 三國末에 잇新羅와 高句麗사이에 버러진 戰爭이다. 阿旦은 말할것도 업시 地名이니 本文에는 阿旦城이라 稱하엿는데 그所在는 不明하나 或은 漢江以南의 新羅어느城인듯도하다.

이 阿旦戰은 軍事上으로 몰때 決코 大戰은 아니나 다만 이戰爭의主役인 溫達將軍으로해서 戰爭그것도 有名하게되엿다.

溫達의 實在를 疑訝하는이조차 업는배아니나 설령 그가實在人物이라하야도 半쯤 小說化한것만은 事實인듯하다.

金瀆江(瀆榮)은 三國史의 溫達傳으로서 金富軾著述중에도 千古名文이라하야 韓麗十大家文의 첫牌頭에 실어거니와 名文도 奇事가 아니면 名文이될수 업슬맘이야 하겟다. 金富軾의 적은 溫達傳은 七百五十餘字의 長文이므로 여기 體載하지못하나 그槪意로말하면 溫達은 最初에 微賤한乞人으로 一朝에 平原公主를 尙하야 高貴한駙馬가 되고 그後 활쏘기를 工夫하야 一國의名弓이 되어 武功을 세웟고 벼슬이 大兄에이르러 君寵을 크게 바덧다하며 嬰陽王이 卽位함에 미처서는 溫達이가 新羅에 對하야 漢北의失地를 奮回하려는 意圖下에 自願出征할새 出征에臨하야 誓言하되 鷄立峴竹嶺以西의地를 恢復하지못하면 도라오지 아니하겟노라 하엿다. 그리하야 그가國境을 넘어 羅軍과 勇戰하다가 阿旦城에서 戰死하고말엇다. 웬일인지그의靈柩가 땅에 부터서 떠러지지 아니하더니 公主가 奔喪하야 撫棺痛哭한 然後에야 비로소 떠러젓다한다.

柳惠風의 二十一都懷古詩中에 이것을 울퍼갈으되

鷄立山前灑戰塵。丹旌依戀沁園春。平生慷慨愚溫達。自是龍鍾可笑人。

鷄立山은 곳鷄立峴으로 聞慶郡北二十里에 잇는데 이附近은 三國時代의 百戰遺場이다. 그러나 溫達의 戰死는 鷄立이 아니오 阿旦城이므로 鷄立山을 阿旦城으로訂正함이 어떠할가. 그러나史實은 어떠튼지 詩趣로 論한다면 阿旦城보다 鷄立山이라편이 그詩趣도 훨신 조타. 沁園은 平原公主를 指稱한것으로 溫達이가 死後에도 그戀情이 依然히公主에게 纏綿하엿슴을보면 그의一生은 로맨틱한 戀愛의小說로 始終하엿다 하겟다.

當時에잇서 國際戰爭을舞臺의 背景으로삼아 功名과 戀愛의 雙線을 가저가장美麗하게 짜낸것이 溫達傳이니 溫達傳을 小說이라할진대 阿旦戰이나흔 高句麗의 代表的 戀愛小說이 될것이다.

× × ×

文學上의 歷史的題材 (4)
그待望되는理由와意義의解明
韓植

그것은 또 正當한意味에잇서서의 우리들의 歷史를 數示하는 啓明文學으로서도 大端有益할것이다 荒唐滑稽한스토리—에 依하야 사로잡힌 뒤떠러진 讀者層의 獲得은 文化、文學의 眞實한大衆化를 爲하야 必須한條件일것이며 一封建一的義理、人情等의世界 奇怪하고 로맨틱한 卑俗化에 始終하는 그들의 營爲에對하야 리아리스트作家로서는 맛당히 歷史的테—마를 그 時代의 矛盾과 社會的雰圍氣가운데서 事件과 人間性格의 眞實을藝術的으로 形象化하지안으면 안될것이다.

우리文學者는 歷史家로도 되지안으면 안될것이다(우리들은그뿐만아니라 啓蒙家로도되며 文化의 傳道者, 擁護者, 言語의確立, 普及者等의 偉大한 任務를 맛고잇는것이다) 푸—쉬킨이 스스로『푸카초—프』의 歷史를 쓴것과가튼 態度야말로 우리들文學者에게 큰自覺과 數示를주는것이 아닐가 떠옥파—테、시라—、쉑스피어、카—라일等의世界的文豪들은 모다그들의 歷史에通曉하며가튼 一洞察一과노픈見識을 가지고잇스며 歷史에關한 著書조차 만히가주고 잇섯다。特히하이네가亡命地 巴里에서 타나의 參考書도업시 獨逸의 宗敎哲學의 歷史를 썻는것을 볼때에 우리는 얼마만한鼓舞와 激勵를 바들것이며 큰任務를 다하려는 情熱을 북도다야할것이아닌가。歷史的荒蕪地에선 우리는 그만큼더 우리自覺을 가다듬어야 할것이다。最近우리는 進步的文學者들의歷史的批判의눈이 어느程度로 培養되엿스며 그들의 歷史觀의 確立도 얼마만큼 進步하엿다고 볼수잇다。또白南雲氏、金台俊氏等의篤學者의손으로된 歷史硏究와 解釋은우리들作家들이 歷史文學을創作하는데 잇서서如干한도움이되는것이안이며 一歷史一的테—마의選擇과 [illegible] 民에잇서서 만흔材料를 提供하여주며 그를促進하는機運을 맨들어주는것이다。우리는民勢調査에까지參加하여단이며 凶作地方住民의救助運動에까지 直接으로現地旅行을단이면서 모든材料와統計的蒐集 生活報告의作成등과가튼것까지도 積極的으로 遂行하엿든 톨스토이와가튼 熱心과實證的努力을가저야 할것이다。또엥겔스로부터『모든專門的歷史家、經濟學者及 統計家의 著冊으로부터 배우는것보담 더욱만흔것을』배웟다고 말드른발작과가튼探求力과知識을 가지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並書와 雙書 ④
訓民正音의正當한解釋
洪起文

나는 以上에잇서서 ㄲㄸㅃㅆ 쓰의初聲은 漢字音으로나 朝鮮語音으로나 한個의 獨特한子音이라는것과 朝鮮語音의 慣例上 並書로서 成立되는 되시옷乃至 된비읍은 다가티 一種獨特한 子音인 各個音의 强音이라는것을 알기에 이르럿다。이미 이두가지의 事實을 안以上다시 한거름 더 들어가서는 그 두가지의 互相關係를 밝히려고할것이 必然의 일이다。ㄲㄸㅃㅆ는 되시옷 또는 된비읍과 어떠케 다를까? 아니、雙書의 音도 結局 各音의 强音을 表示하는것이 아닐까? 내가 突然히 이만한 疑問을 提起하얏다고 하더라도 내머리人속에는 이미 前半段의 究明이 前提되야 잇는것이언만은 不幸히 前提의 究明을 詳述치 못하얏스매 一種의 疑惑을 남기게 되엇이다 벌써 二十年이 지낸 일이요 내 本來 疏漏한 性格이라 똑똑히 記憶치는 못하나 그쪽의 究明을 새삼스럽게 수다부리는것은 도리어 우리의 學壇을 幼稚하게 본다고 誤解될까바 짐짓 簡略하게 하얏는듯도 하다 閑話休題하라 已往之事내친 길에 後半段에 잇서 나의 究明을 繼續하리라 雙書의 音이 各音의 强音이라? 아니라?

(一) 固有한 朝鮮語에 極히 그 쓴 例가 적다고는 하나 마 雙書를 全然 쓴 例가 업는것은 아닌데 그러한 雙書는 어떠한 音을 내는 것일까? 雙音의 ㄲㄸㅃㅆ가 一個의 獨特한 子音이라고 할진댄 그 것이 强音以外 무슨 다른 子音으로 되겟는가?

(二) 同一한 子音이 終聲과 初聲으로 連接된 학교(學校)라든지 잡보(雜報)라든지의 말을 發音하야 본다면 아래의 初聲이 어떠케 나는가? 다른 破障音이나 摩擦音과 連接할때보담도 더一層 分明한 强音으로는 낼찌언정 決코 그보담 덜 分明한 强音으로는 내지 안는 것이 事實 아닌가?

(三) 訓民正音에서 並書의 音을 附記한것이 모두 ㄱㄷㅂスㅅㅎ의 六項이요 또 그 諺解에잇서서 並書의 音을 表示한 漢字의 初聲은 六項모조리 各個의 雙書로 表示하얏는데 그中에서 ㅂ項並書의 初聲인 ㅃ는 곳된비읍과마찬가지요 ㅅ項並書의 初聲인ㅆ는 곳 되시옷과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적어도 ㅂㅅ項의 並書인 ㅃㅆ는 그 强音이 明若觀火치 안한가? 萬一 ㄱㄷㅂㅅㅈㅎ六項의 並書가 全部 雙書로 된 것을 一讀의 偶然으로 돌릴수 잇다고 말할진댄 ㅂㅅ의 雙書인 ㅃㅆ가 되시옷이나 된비읍과 形態를 가치한것은 그 얼마나 偶然으로 돌릴수가 업고 또 萬一 그 둘이 同一形態가 偶然이라고 말할진댄 ㅃㅆ가 된비읍의 ㅃ나 되시옷의 ㅆ와가치 同一한 强音이라는 나의 論證은 文字그대로 水泡에 돌아 갈것이다。偶然論이란 天羅地網속에 가치어 내가 措手足을 못하도록 되지안하랴면 비록 軟弱한 힘이나마 偶然論의 巨大한 怪物과 對戰을 避치못하게 되얏다. 그러나 멋처럼 一大決心아래 勇氣를 북도다 陣地에 서고 본즉 偶然論은 不過是 산범을 동여논 썩은새끼로 天羅地網도 아니요 巨大한 怪物도 아니다. 나는 그를 爲하야 이미 동여논 산범을 더 단단히 동일 秘訣은 깨오치 못하나마 애초부터 섯불리 산범을 동이지 안는 正道는 이끌어 드릴수가 잇다。겨오 六項中에서 그 二項이 强音과 同一한 形態인데 어째서 그것이 偶然일까?『ㄱ』자는 언제나『ㄱ』이요『ㅏ』자는 언제나『ㅏ』인데 何必『ㅃㅆ』는 同一形態로 兩種의 音을 所有할까? 正音 그 어대서 또 그러한 例를 보앗는가? 正音이 어떠한 文字라는것부터 理解하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種種의特異性을가진 濟洲의地理 ②
姜在鎬

至今向存한 牧童軍某도 元나라時代始作은 아니라 하더래도 元의軍馬養成을 因하야 盛旺해진것은 事實일것이다 다음에 濟州島의 山上部落의 原始農耕인火田農民의 毛皮帽를 쓰는것이라던지 犬毛皮를 얼거서 外套를 만드러입는 風俗이나 或은馬黃을 還突燃料로 使用하는 風習이거나 또는 三姓祠入口와 濟州邑에잇는 養訓鍊所이던 觀德亭前에선 그로테스크한 石物가튼것은 蒙古遺風이라고들한다이와가티 陸地人의 侵入을 밧아 섬의 民情 風俗까지도 陸地化하고말앗다 特히 日本內地와는 比較的 갓가운 距離에 잇슴으로 侵略안니 다른意味의 人種的或은 文化的交涉이 만엇던것은 前記傳說에서나 尙今遺存한 島內風俗을엿보와 알수잇다

다음으로 이섬이 널리 西洋으로알이게되것은 何時代엿던가 아마 저蘭船스페르웰號가 西紀一六五三年八月十六日 濟州島沿岸에 難破漂着하기때문에 濟州島와朝鮮內地의事情이 西洋에알리게되것이 아닌가한다 蘭船書記 헨도리크 하멜以下 三十餘名一行은 當時 朝鮮國法에 依하야 不幸하게도 十三年동안이나 囚人或은 머슴사리를하다가 마참내 日本長崎에 逃亡하얏다가다시 歸國한後 西紀一六六八年에 難破記를 지여發布하니 니여佛譯 獨譯 其他各國語로 飜譯이 되매 朝鮮의事情과 濟州島의位置가 널리 世界的으로 알리게 되엿다 이難破記에는 濟州島의 地名이 『퀠팟트』Quelpart 로적혀잇다 이地名이 西洋地圖에和蘭人이 朝鮮에 難破하기 前에 쓰여진것인지 或은蘭人이 처음으로 命名한것인지는모르겟스나 Quelpart란 音은濟州島大靜縣南方貂島인 加波島(耽羅志에는 蓋波島)音에依하야 命名한것이 아닌가 一般이 推測하는바이다。

다음은 이濟州島도 世界다른 大洋島의例에 빠지지안코 섬의 隔離性을 利用하야 한때는政治犯其他犯人의 流謫地로 또는蠻地의 凶年이거나 或은 異變時에 避難地로 利用된 것도 이섬의 環海孤島的 位置의 所產일것이다 압으로도 이섬이 大洋航路의寄港地 或은 航空路의 路中驛이될것도 發展的位置로因한 自然의推勢일것이다

三、標式的火山島

本島는 全部 火山岩으로 덥힌楕圓形의火山島(地質時代第三紀에噴火한死火山이나 有史以後 部分的活動의記錄이有함으로써 中央에서조금 西南에치우처서 主峰漢拏山(海拔一九에서五〇)이王座와가티솟아잇다。이는世界에서 그存在를 드믈게보는 標式的『아스피테』(Aspite)型의 火山에屬한다。火山活動이 旺盛한 時期에는 流動性이 豐富한 玄武岩의 岩漿이 多量으로 넘처올라 形成한 扁平한 圓錐體로서 그形態는 恰似히 삿갓을 덥흔것가태서 圓山、圓峰山、圓無峰의 別名이 잇스며 火山地形上으로는 楯狀火山이라고도 稱한다。따라서 周圍의 傾斜는 極히 緩漫하여 山의中腹에잇서서는 二度—三度의 緩傾斜를보인다。이러한 單調한 山麓一帶에에서 異彩를보여주는것은 三百四十餘個의 小獨立火山이 二三百米의高度로 이곳저곳에솟사잇다 이는學名으로는『cul de cone』噴石丘라하는 火山碎屑物인 玄武岩浮의噴出堆積으로 生成된 一種 寄生火山이다 그形狀은 截頭圓錐狀으로되여잇고 山頂에는 円形火口跡이잇서 火口內에는 淺池를 形成한곳도잇다。元堂峰가튼것은 그것이다。이小噴火口의 形狀을보와 命名된것이라고보이는 山名을列擧하면 다음과갓다。鉢山、窟山、臼山、圓頭峰、笠山、斗山、城山類다 이런多數의 小噴火口를볼적에 생각되는것은 濟州島가 火山活動이 旺盛할時代에는 마치버리(蜂)집처럼 數만흔 무서운火口에서 熔岩을내뿜어 山彈、火山礫을 全島에 散滿케 하엿슬것이다。

漢拏山巡禮記
海·岸·線·行·脚……30

金寧山의 蛇穴
—夕陽의月汀、長沙十五里—
李殷相

椰子林을 벗어나 月汀里라는곳을 지나간다。해는 어느덧 누엿이 西天에 기울고 十里沙汀에다시 바다의 시원한맛을 보게되니 幸福된 오늘하로를 또한번 裝飾하는 重要한 一景로 헤아릴수밧게업다。

여기 이軟白沙의 長汀은 全島의 海岸線에서 가장 特記할만한곳인데 或은이곳을 畊作無望의 不用地라하야 눈바게 버리고 그냥지날지도 모르지만 세상에는 良田沃沓으로 갑진땅이 되는곳도잇스려니와 이가티 바람에날리는 沙丘를이루어 비로소 금새나가는곳도 잇는것이다。

이곳은 耽羅誌에말한『長沙十五里、海浪所淘之沙、乘風飛散、自近及遠、自卑及高、日漸增益、埋草沒樹、成堆作山』이라한 바로 그곳이다。

들고나는 潮水를따라 젓고 마르고、運命을 바람에맛겨 하자는대로 흐은 밀려서 沙丘가되고 다시 뭇허저 平沙가 되는 十里長沙에、나도저기 任意로 서고 거닐어 人生의無限한 근심을 이저도보고십다。

長汀은 十五里
뜻업는모래
드나는 潮水에
젓고마르고
바람에 밀리면
언덕이되다
바람이 다시허처
平沙되는곳
지금은 夕陽일네
모래밧우에
뜻업시 나도저기
누워볼꺼나
덧업는 人生인데
무얼바라노
차라리 모래알이
되어지이다。

그러나 이가튼 嘆息은 禁物이기로 노래를 부르다말고눈을감고서 지나가 버린다。

車는 金寧里라는곳에 와닷는다。우리는 金寧山의 蛇穴을 찾기로한다。

蛇穴은 一名 金寧窟이니 穴口는 저蟠龍窟의그것과 恰似하고 隧道는 서로다르되、規模는다大者에 讓할만하다。

穴口前에 서[illegible]에는 長五町 高五間이라 적어둔것이잇거니와 이가티 壯大한 窟中을 보기爲하야 우리는 미리準備하엿던 蠟燭에 불을켜 들고 마치 祭壇으로 나아가는 聖者의 行進과가티 地下로 나려간다。

左右의 窟壁과 天井은 全部[illegible]으로 되엿고 地帶도亦是 가튼岩質로 되엿스나 土分이석기고 軟粉가튼 白沙가 깔린곳도잇서 濕氣를띄어 어떤대는 거이 발바닥밋헤서 찰삭거리기도한다。

左右穴壁은 人作의 콩크리트가아닌가하고 疑心할만콤天然의 所爲로는 너무나 規模的이다。

穴口에서 얼마쯤 나려가다가 다시 활등을 밟는듯이 도로 올라가매 數百步許에 地上으로 나오게되더니 두번재 또穴中으로 들어가서부터는곳이어되지 알길업도록 자꾸만 돌렷다。

兩壁은 氷盤가티 밀어나럿스나 바닥은 自然히 곱보를이루엇고 中路쯤하야 바닥이 제법廣해지면서 키가놉하지고 天井도 맛상구를처서 百千鬼가리 주머귀를알부로 내어밀며 키를나추니 우리는 저절로 罪人이 되듯이 빌고기고 것는질을해가며 더듬어 들어가는수밧게업다。

이러케 기어넘으니 다시또 넓어지는데 아마우리가 樓架嶺을 넘은듯하다。

그런데 이窟의稱號를 蛇穴이라한데對하여는 그由來의傳說이잇다。

이窟中에는 큰배암이잇서恒常妖禍를 지음으로 州民이每年祭祀를 지낸뿐더러 芳紀의處女하나식을 祭物로 바처왓다。

萬一 處女를 바치지아니하면一年이 넘도록 風雨가 大作하야 사람이 살수업게되므로不得已 處女를 바처온것이 年例가 되엇섯다。

그리다가 中宗十年(西紀一五一五)에 徐憐이란이가 判官으로와서 이말을듯고 나이는 비록少年이나 膽力이 잇는이라郡校數十人에게 鎗刀를들리며 薪炭과 炤礪等物을 準備하야 蛇穴로 들어왓다。

前과가티 設祭하매 큰배암이나와 祭祀를 먹으려는지라 徐憐이 鎗으로질르자 軍校들도 亂刺하야 끌어내어 불에태운뒤에 郡衙로 돌아왓는데 徐憐의뒤로 一條赤氣가 따라오더니 들어오자 徐憐은昏倒되어 그길로 죽엇스나 그뒤로는 다시 妖蛇의作亂이 업서젓다는것이다。(耽羅誌)

이러한傳說로因하야 蛇穴이라하엿다는것이나 내가 보기에는 이窟의形狀이 S字型으로 카브를이루어 배암가티 되엇스므로『배암굴』이라부르던것인데 거기이러한傳說을 加하야 그由來를 說明하는것처럼 되것이아닌가한다。

勿論 濟州島에 배암이만흔 것도事實이오 現在도 兎山에는 所謂『兎山堂』이라하야每年致祭의 遺俗이 盛한것을보아 이窟中에 배암이 잇섯슬지도모르고 또徐判官이 그배암을 죽인일이 잇섯슬지도모르른다。그러나 이蛇穴이란 名號는 窟自體가 배암가티 생긴데서 불려진 일홈일것이다

(사진은 蛇穴)

新刊紹介

▲月刊對談 九月號(內容) 深苑의長恨 廊房奇現 鄭北宸의心鏡 薩佛의코피 아버지와아들 浪俠自愁 楊貴妃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對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二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詩建設 第二輯(內容) 朔邊의詩人들에게 異鄕의碼頭에서 밤한時 追憶、逆行、누이、봄사리、白頭山打鈴、가을 等其他 發行所 平北 中江鎭 詩建設社 振替京城二一八三三番 定價二十五錢

少年九月號

漫畫特輯號!

十部以上團體注文 二割引提供 少年販賣所 全國的大募集

放學도다가고 그러나「少年」9月號 한卷만 가지면 放學보다도 더 즐겁게 지낼수가잇습니다

※이달의主要內容※

·시초이야기……金哲洙
·새소년독본……李克魯
·건강과햇빛……鄭潤鎔
·이상한姓들……崔鉉培
·짐승의양식……編輯室
·새동요곡보……尹克榮

●奇岩怪石大畫報●
사람처럼생긴바위 거북처럼생긴바위 코끼리처럼생긴바위 말처럼생긴바위 개처럼생긴바위 별별바위가 다 잇습니다

童話 白虎 洪一吾 金奎澤畫

★李克魯 ★桂貞植 ★金復鎭 ★宋影 ★李箕永 ★任貞爀 ★具本雄

벙글벙글漫畫大會
□밤따기……鄭青羽
□探偵少年……朴仁樹
□自業自得……鄭青羽
□바두기괴짝……林炳天
□베리강……趙春植
□캬라멜……金湘旭
□비행기사냥……高一天
□욕심쟁이……馬聲

□깔깔少年會 □曲馬團畫報
□讀者談話室 □少年娛樂室
□讀者寫眞帖 □척척問答室

•우리들의노래•
■비행기(童謠)……金永一
■도야지(童謠)……朴桂順
■잠자리(童謠)……朴泳鍾
■감감한밤(童謠)……文聖植

코찡찡이 連載漫畫 올림픽연습 鄭青羽畫

歷史 흑부리장군……車相瓚
小說 봉뚝섬……金福鎭
童話 웅철의모험……朱耀燮

探偵冒險 長篇小說 白假面 金來成作
똑가치 나타난 두사람의유불란! 어느게 진짜 유불란? 白假面이오겟다는 열두시는 닥아든다………

■愛讀者募集競爭當選者發表■

단十錢 (送料一錢)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八七八五)

人氣의 背後에 숨은 魔手

黃金을 노리는 惡德漢 兒役을 保護하는 判事

映畵의 兒役이란 잘하면 남에게 귀염도 만히 밧지마는 그 대신에 人氣의 比例로 給料도 올라서 百萬弗가량이나 벌어노흐면 그것을 뜨더먹으려고 노리는 惡德漢가 업지 안흔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는 政府當局이 나서서 『兒役의 保護』에 努力하게되는것이다 그래서 兒役自身의 人氣보다도 돈때문에 愛憎도 도라보지 안는 現實社會와 싸우는 米國映畵界의 少年少女들의 安全保護하는 로스안젤스의 『에메트·H·윌슨』判事인데 이 사람의 許可를 엇지 아니하면 아모리 大會社일지라도 各撮影所에서 兒役을 雇入하지못하게스리 法律이 서잇다。

人氣王 템풀

人氣者의 筆頭 『솨ー리·템풀』은 처음부터 慈愛잇는 兩親의 指導를받고 잇는만큼 아모걱정이 업섯다。彼女는 지금부터 三年前인 一九三四年十二月 [illegible] 女가 [illegible] 『쪼ー지』가 [illegible] 署名契約해서 [illegible] 한것으로 七年後인 一九四一年 即 『템풀』이 열세살될때까지 二十世紀폭스映畵出演의 約束이 되여잇다。그리고 열세살이되여서 [illegible] 人氣가 아직 떠러지지 아니하면 二年間을 더延長해서 同會社에 繼續해잇기로 特別한 約束이되여잇다。

제ー니·위저ー스

가튼會社의 少女스타ー 『젠·위저ー스』는 [illegible] 責任을지기로 되여잇다。

가엽슨바소로미유

그러나 『프레디ー·바소로미유』(『勝利』其他에出演)는 境遇가달러서 少年自身은 단돈 一弗도 [illegible] 마음대로하지못하게되여잇다。그것은 왜그러냐하면 少年의 實父가 英國으로 부터 나타나서 『프레디ー』를 길러 映畵界에 너흔 伯母 『미리센트』에게 『프레디ー』返還의 訴訟을 이르킨 때문이다。裁判所에서는 그訴訟을 却下시켯스나 兩親과 伯母의 生活이 [illegible] 『프레디ー』의 收入中 一割은 兩親에게 보내고 少年과 伯母의 生活費를 [illegible] 定하고 다음 그殘金은 『로스안젤스』 『유니온』銀行에 供託하기를 命令하엿다。이判決에 同情한 『메트로』映畵會社는 『프레디ー』의 三百弗의 週給을 一躍 一千百弗로 引上하는우에 가엽슨 『미리센트』伯母에게 一週百弗式의 手當을 支拂하기로되여서 『프레디ー』를사랑하는사람들의 賞讚을밧고 그 대신 『프레디ー』의 兩親은 [illegible] 밧게되엇다

막퍼ー란드

『스팡키ー將軍』의 『스팡키ー·막퍼ー란드』 [illegible] 規定한대신 五個年 [illegible] 가지못한다고 宣告하엿다。여기 [illegible] 다른 會社가 『스팡키ー』를 크게 [illegible] 하는 때에는 『스팡키ー』는 自由로 他社에게 가도조타』고하기때문에 [illegible]

구ー퍼ー와다ー빈

『쟈키ー·쿠ー퍼ー』는 [illegible] 『되ー나·다ー빈』은 그兩親의 [illegible] 契約이 [illegible] 다고。[illegible]

하빌란드姉妹

少年은 自由를 獲得하게되엿다。『오리비아·듸·하ー빌란드』와 그누의 『진·폰텐』은 모다 [illegible] (『勝利』其他에出演) 『하빌란드』 『작키ー·쿠ー퍼ー』 [illegible]

戰時經濟統制下의 日本映畵界動向 (下)

日活東京撮影所 李炳逸

映畵製作에잇서서 한作品撮影에 普通生필림이 어떤 比例로消費되느냐하면 日活의 例를들면 製作完了六千呎作品에 最少로 十二割乃至卄割, 例外로 三十割을 消費하는 때도 각금잇다。그러면 六千呎作品에 二倍, 三倍나 消費하는 原因은 즉 N·G·(不使用)가 만히나는까닭이다。N·G·는 如何한때에 생기느냐하면 左記와 가튼點에 잇다。

一、(俳優演技의 拙劣로생기는때) 監督이 시키지 안흔 演技 테스트를 慎重히 하지 안흔 原因이 만흐나 흔이演技者의 不注意로생기는때가만타

一、(마이크로폰에關한때) 토ー키ー部 모니타ー의 보ー음調整이不充分한때와 『테스트』하는때 演技者音量과 『本트』하는때音量이同一치안흔때와 電氣코ー드와마이크, 코ー드가技術者의 不注意로 『인닥숀』이 생기는때 赤靑 信號燈不注意等으로생기는때가만타

一、(카메라에關한때) 카메라맨의 操作不充分과照明技術者의 不注意로생기는때

一、(셋트에關한때) 셋트 衣裳 小道具 等의不完全으로생기는때도만타。

以上과가튼點을 愼重히 考慮하야 各監督者들이 率先하여 各關係部門에 適當한 注意를 喚起하는一方 여러가지 手段方法으로 필림消費 節約에 努力하고잇다。方今日本映畵界는 여러가지 對策에 大센세이숀을일으키고잇다。

흡소리가나흔 名曲보레로

近代의 鬼才 『모ー리스·라벨』의傑作 『보레로』는 近代的愛慾味를띈 甘美調로서 널리世界的으로 愛好되엿는데 게다가 이것을 主題曲으로한 『죠ー지·라프트』主演映畵 『보레로』에依해서 그일홈은 더욱 놉하젓는데 이名曲이 어찌해서 되엿는가는

花園속의 아니타·루이스

가을꼿 어지럽게 핀 花園을거닐면서 鈴蘭이니 野菊이니하는 꼿을 꺽거든채 [illegible] 아름다운 니스리에 꼬바노코 그윽한 향내를 마터 볼려것이엿다。때마침 차자온 동무를 바라보면서 微笑를 지을때 [illegible] 발은 『아니타·루이스』의 맑은 理智의 象徵이다。긴 옷자락을 거둥거듬 추려 얼골은 [illegible] 에 발은 마음대로 재발리 옴겨지지안는 [illegible] 다。

라디오

一日 (水曜)

◇午後六時 童謠와唱歌 1、獨唱 시냇물 2、齊唱 空中行幹 3、齊唱이뿔달 4、齊唱퐁당퐁당 5、獨唱 아기재우는노래 6、齊唱 잠자는방아 7、齊唱 박꼿아씨 8、獨唱 나의집 9、齊唱 보는아기노래 10、齊唱 집 宗橋少女會 伴奏 洪淳智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地震이야기』 辛國祚

◇同七時三〇分 講演『第七回世界敎育大會를보고와서』 李順鐸

◇同八時(東) 歌謠曲 一、……쓰모미 가、빗나는鐵루구 中山晋平作曲 나、情을두고 三宅幹夫作曲 다、銃後新婦 佐佐木俊一作曲 二、……德山璉 가、빗나는軍旗 深海善次作曲 나、皇國의봄 三宅幹夫作曲 다、빗나는銀翼 中山晋平作曲 伴奏 日本빅타ー管絃樂團 合唱 日本빅타ー合唱團

◇同八時二〇分 軍歌工夫 勇敢한水兵 指導 鈴美合唱團 李鍾泰

◇同八時三五分 女聲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南原山城 나、春香이謠上 올나가는데 [illegible]

◇同九時 古談 [illegible]

하ー프의 名手 『마릿싸』來朝

歐洲에서 『하ー피스트』로名響을 날니는 『마릿싸』라는名花가 例年과가티 米國의 定期演奏旅行을 마치고 八月末頃 로스안젤스를 떠나 九月七日 橫濱入港의 大洋丸으로 來朝하게되엿다。彼女는 엇더한 演奏會에는 지 『하ー프』를 두개식 가지고 다니는데 『엠프레스·죠세핀』이라고하는 名稱으로 普通때는 이것을쓰고 民謠를 演奏할때는 十八世紀頃 『아일란드』에서流行한 小型의 『하ー프』를쓰는데 來朝後 實演日程은 東京 大阪 京都 名古屋 京城等地이며 支那를거처 歐洲로가겟다는데 來朝中 重要한 『레퍼ー토리ー』는 『피에르네』 『그란자니ー』 『루로니에』 『못살트』 『핫셀만』 『브람스』等이라고한다

아직까지도 모르고지나왓다。그러나 最近 그作曲의 動機가判明되여 音樂팬들에게는 非常한 興味를 끄을게되엿는데 그이야기는 다음과갓다。『라베르』가 巴里서 살든집近處에는 製材工場이 잇섯는데 二十四時間동안에 挽材用大鋸機가 소리를내여서 잠을 자지못하는데 엇던날밤은 亦是 잠을이루지못한 『라베르』가 이러나서 『피아노』압헤 거러안젓든바 自己도 모르게 自己의손꾸락은 그톱소리의 리듬에 맛추어서 키를눌르고잇섯다。그래서 되것이 그 有名한 『보레로』라고한다

第一放送

◇同 六時(大) 物語
◇同六時二五分(東) 時局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 八時(東) 歌謠曲
◇同八時二〇分(東) 라디오風景
◇同 九時(東) 講談

二日 (木曜)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 銃後의赤誠 成東鎬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初秋 어린이洋服짓는法(一) 任貞爀

◇同六時 兒童劇 『사라진봉지』 指導 [illegible] 伴奏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講演 『今次事變에나타난 朝鮮同胞의赤誠』 李明 [illegible]

◇同八時 軍歌工夫 『日本海軍』 [illegible]

◇同八時一五分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尺八及箏曲
◇同六時(大) 物語
◇同六時二五分(東) 時局講座
◇同七時三〇分(城) 講演
◇同八時(東) 浪花節
◇同八時三五分(東) 長唄
◇同九時(東) 講演

三日 (金曜)

◇午前九時 國威宣揚及武運長久祈願實況…朝鮮神宮祭殿으로부터中繼……

◇同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魚膾』

◇午後〇時五分(東) 和洋合奏 一、意想曲 『노픈언덕에서』 種子島一夫作曲 二、意想曲 『한여름지나서』 酒井梅雄作曲 三、行進曲 『爆擊』 酒井梅雄作曲 江東音樂團 指揮 小畑錦浪

一、繼續ーㄹ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初秋의어린이洋服짓는法(二) 任貞爀

◇同六時 童話 『피만흔참새』 金泰午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農地令이야기』 崔鍾瑀

◇同七時三〇分(東) 管絃樂 一、歌劇 『로ー엔그린』前奏曲 와ー그너ー作曲 二、안단테·칸타비레 차이코프스키ー作曲 三、凶牙利行進曲 베르리오ー즈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 軍歌工夫 『日本海軍』 指揮 鈴美合唱團 李鍾泰

◇同八時十五分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흥타령 四、개고리타령 朴初月 朴玉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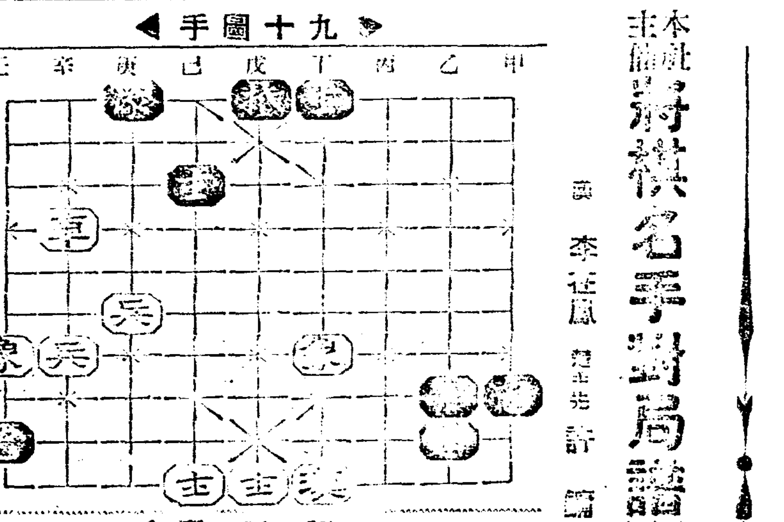
◇同八時三五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길軍樂 文明仙 徐山玉 金永根 金一宇

◇同九時(木) 講演 로마스牧師殉敎七十一週년에 際하야 吳文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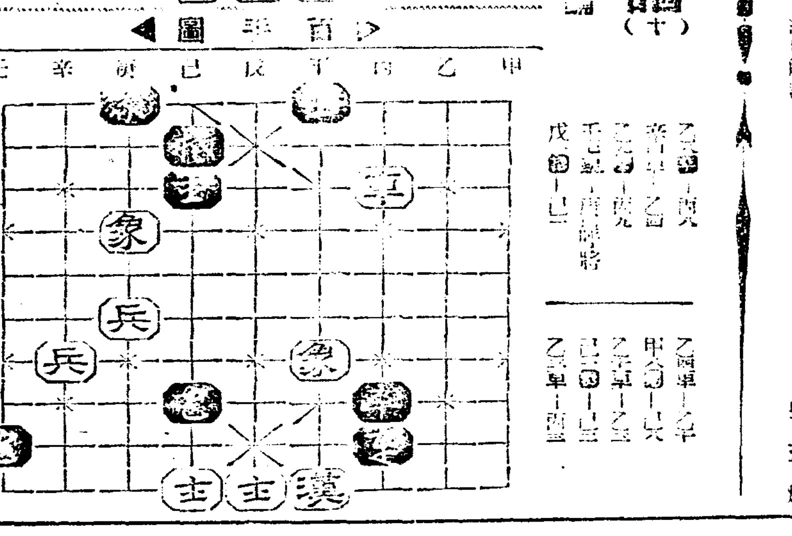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

漢 李徑鳳 楚先 許 [illegible]

九十手圖



百手圖



朝鮮에서처음나는그림雜誌 幼年 九月創刊號大好評!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八五七八番

幼兒生活趣味에 가장適當한것을 選擇하엿스며 特히 幼稚園에서使用할 每月保育案等 大端有益한 雜誌입니다

지금곳注文하시오

絶版되기쉬우니 來日이라 말고 오늘 곳注文하시오

定價20錢(送料2錢)

表紙 鄭玄雄 畫

全部五色 옵세트印刷 포스타用紙 一百五十斤 紙四六倍版

원두막 李香隣 畫 李軒求 文

기러기 鄭玄雄 畫 尹石重 謠

淸進幼稚園 朝陽幼稚園 孔德幼치園

美麗한 畫報 어린이는 누구나 보아야할 자미스런 그림잡지가 나왓다!!

여러가지새種類 崔根培 畫 洪祐伯 畫 李殷相 文

가재새끼

전에 타고다니든젓 시방 타고다니는것 金奎澤 畫

공주와난쟁이 鄭玄雄 畫

하이킹 崔根培 畫

朝鮮一流畫家總網羅

全朝鮮幼稚園敎育者諸彦에게

朝鮮에幼稚園敎育이創始된지 이미二十五年。兒童에對한關心은 이제完全히喚起되엇다고할것입니다。그러나 지금에이르기까지 園兒들의靈魂을길러줄만한 한개의敎材畵本이업다는것은 實로 우리當務者들의等閑한일이엇고遺憾스런일이엇습니다。그리하야 恒常西洋의兒童畵本을 볼적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것이誕生되려니하고 一種의重荷와가티 늣기더니 今番에朝鮮日報社出版部로부터이事業을시작하야우리幼稚園敎育者에게 提供해주게된것을보고 우리는참으로雀躍하야말지안습니다 이미京城市內各幼稚園에서는積極協助하기로決定한바이거니와이제全朝鮮七百幼稚園이一齊히援助하야 이盛事가빗나게 發展하므로써우리保育運動界의新機軸이되게하여주시기를 敢히 바라옵니다

그림잡지 "幼年" 編輯顧問

京城保育學校長 獨孤璇
梨花保育學校學監 徐恩淑
中央保育學校副校長 車士百
朝陽幼稚園長 李康林
新門內幼稚園長 車載明

光武劇場

◇九月一日부터 [illegible] 每日晝夜 [illegible] ▲新秋三大映畵封切▼ ▲米國마스코트社特作全發聲映畵 大連續活劇 流線怪盜列車 前篇 ◇유나이데드提供特作映畵 金發聲 日本映畵 쿠캉의大成功 [illegible] 晴の鈴鳴り [illegible]

黃金座

8月30日より9月5日まで
千惠藏美ち奴の顔合せ
時代劇 福へ春風 11·30 2·50 6·50
ニュース 北支上海戰況 12·50 5·10 8·00
一世の名作映畵化完成
現代劇 眞實一路 1·00 3·20 8·10
各席全部 大人30錢 學生小人30錢

新富座

◇九月一日부터三日間! [illegible] 晝夜三回公開 [illegible] 晝七時十五分始映 料金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二大傑作巨篇豪華上映) 大活劇 武裝한市街 ◇P·C·L·日活·テイチク合同超豪華オールトーキー版 現代戀愛歌劇 東京ラプソデー 監督 伏水修 主演 藤山一郎 星玲子 [illegible] 大村千吉 京城新堂町 (電本) 五六七七番

團成社

北支·上海變特報(新着) ◉朝日世界뉴ー스 ◉讀賣發聲뉴ー스 ◉大毎東日國際뉴ー스 ◇三十一日부터五日間 大人三〇錢、小人二〇錢均一 十一時半、一時半、六時半 三回興行 女同志 主演 [illegible] 吉川 [illegible] ◇新興키네마超特作 沙漠의花園 [illegible]

東洋劇場

八月三十一日부터 [illegible] 『港口의새벽』 三幕五場 [illegible] 『아우의幸福』 一幕 [illegible]

中部版

自由架橋裝置器 特許權利를獻納

【仁川】조선총독부 토목국인천출장소에 근무하는 인천부산근정(仁川府山根町)이십사번지 송전수천(松田秀天(？))씨는 지난 이십구일 전매특허신청중인 일만구천구백십오호의 자유가교장치기(自由架橋裝置器)의 제작권을 조선군사령부에 헌납하엿는데 이는 어떠한 난공사의가교라도 용이히 다행할수잇는 능력이잇는기계로써 군부에서는 가장적절하야 그의연구력에 감복하기마지 안는다한다

同志五人의發起로 隣保事業에着手

教化事業、醫療、兒童保護、防貧計畫等으로 四千餘名開城細窮民을扶助

【開城】소위부도(富都)개성에도 교육, 위생, 취미등의 명랑한문화생활에서 멀직어니 버림밧고 가난과기아에 허덕이는 불우한 세궁민이 약사천명이나된다 이가튼 세궁민을 근본적으로 구해보기위하야 린보사업을 하기로 유린관(有隣館)을 설립하자고 굿게약수한 오인동지가잇다 현재인술(仁術)에 직을가진 한철호(韓哲鎬)오기환(吳寶煥)량씨와 림병식(林 植)마호규(馬湖圭)우상공(禹相淳)삼씨는 평소에도 개성사회에 신망이놉흔유지로써 금춘남물때 유린관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만여원의자금을 비저내어 금번가을에는 남산정(南山町)개성고무공장부근에 기지 약오백평을 매수한후 만여원의공비로 전기 자선사업기관을 창납해서 세궁민교회운동에 유종의미를 나타내려고 오날것 활략해온결과 다음과가튼 호회사업의 실현을 머지안어 나타내게되엿다

1、社會敎化事業=不就學細民의 子弟에게 簡易學校를 施設하야 敎育케하고 또는生活改善及 育兒保健問題를 中心으로 母姉敎育講習會를 開催할

2、醫療保護事業=時間的 經濟的 餘裕가업는 數千細民에게 實費診療所、無料保健相談所를 開設하야 그들에게도 醫業의 恩典을입게할

3、兒童保護事業=乳幼兒死亡率이 가장만흔原因은 榮養不良、分娩時不衛生又는 育兒知識缺乏에依한때문인바、保健婦產婆를두워 無料로乳幼兒健康을相談할

4、經濟保護事業=少額의收入으로 生計를維持하는 細窮民에게 防貧的經濟施設에 一助로 經費理髮部設置

이상사대사업을 목표로 전기오인동지는 방금 재이단공작으로 유린계(有隣契)를 조직하려활동하는 한편 부당국에 건축비보조의의미로 잣차 헐닐 구부청사급 부속건물을 무상양여신청까지 진정하얏다

開城府舊廳舍跡의 無償貸付에贊成

隣保事業을積極援助키로 臨時開城府會서決議

지난팔월삼십일오후한시 부당국회의실에서 개성부회를 림시개최하고 전기부청사처분문제에대한 심의가 개막되엿든바 일반 부의원들은 전기건물을 유린관조직사업에 무상대부할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얏슴으로 부당국이 전기 오씨사업을 적극적원조하야 오개년내에 재단법인을 조직해서 영구히 경영하야 유종의미를 맺도록 격의하엿다한다

익어가는 大豆(金浦郊外에서)

遝至하는國防獻金 二千餘圓을獻納

纛島面民들의赤誠

【纛島】뚝섬에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천일백팔십육원육십전을이백오십사명이모아서 국방헌금으로 뚝섬면사무소에기탁하야 헌납수속을하도록 의뢰하엿다

五百圓 纛島面西纛島里 洞原田甫 百圓文雲益 五十圓式崔化允 李愚頭 李愚立 李奉龍 四十圓式 李慶夏 李根夏 三十圓鄭鎭泰 二十五圓 盧昌璡 二十圓式 山田彌太郞 盧東元 盧璡植 十圓式 有川萬吉 金永濟 洪萬興 金潤龜 盧秉柱 金仁化 八圓李奉山 六圓張元永 五圓式 山田七三 桑原英松 尾關喜藏 盧順龍 金益洙 金鍾泰 李春化 宋巨北 盧載益 三圓高橋瑞 四十五圓 東纛島里 久次米邦藏 二十五圓 林興瑞 二十圓式 李聖五 文道淑 李東協 金完洙 十五圓式 林興澤 李範相 盧鳳九 十圓式 荒川榮 李文善 金弼濟 崔榮秀 七圓式 金永云 宋鍾石 六圓裵辰甲 五圓式 文相哲 盧載元 延奉欽 申命勳 申斗泳 三圓式 李致祚 洪好成 二圓式 李丙珣 朴明煥 李愚鎔 五圓 松亭里 申泰元 三圓式 鄭生用 朱正鎭 金正祿 二圓李鐵伊 一圓 韓命先 四圓 部落民一同 三圓 華陽里李昌林 三圓 李根植 二圓式曹德根 曹春根 鄭在能 鄭仁寧 十八圓部落民一同 十圓毛 陳里方明雲 三圓式金德文 申廷均 二圓式崔龍仁 李學辰 安京三 十圓毛 陳洞部落民一同 二圓毛門洞部落民一同

落民一同 五圓 陵里池連奉 三圓金鳳奎 二圓式朴基榮 朴千奉 金俊寶 崔宗玉 崔允福 郭元春 郭辰天 郭辰亨 朴順天 朴基鳳 朴春石 李基俊 尹完伊 九圓五十錢部落民一同 五圓君子里 金德成 三圓式金珠植 金泰完 二圓式金德天 金德善 崔有學 一圓五十錢金鉉植 一圓式李完興 崔仲根 十圓五十錢部落民一同 五圓中谷里崔致萬 三圓申德順 二圓五十錢式金千福 金元奉 金文守 李命天 林聖學 劉基永 十二圓部落民一同 七圓面牧里 孫錫圭 五圓孫殷相 四圓池學順 三圓式李鳳根 池淑石 鄭一宣 崔承允(朝鮮煉瓦工場)安永樂 二圓六十錢鄭興朝 二圓式安命石 金應連 尹東天 尹龍富 盧興萬 崔文起 徐文煥 孫先福 鄭允哲 徐文敬 崔昌學 一圓式 崔先進 丁泰山 金士女 玄英集 尹致化 申貞均 孫敬順 孫茂仁 黃淳京 十三圓三十錢南村北洞部落民一同 十一圓八十錢 南村下洞部落民一同 八圓二十五錢 南村上洞部落民一同 五圓六十錢 北村中洞部落民一同

落民一同 五圓 古門洞部落民一同 四圓九十五錢 南村新洞部落民一同 四圓 北村上洞部落民一同 三圓五十錢北村下洞民一同 六圓九宜里孫龍甲 五圓 白雲植 三圓李景順 二圓式李福釗 廉壽銀 金炳一 劉同根 金石根 廉壽淵 金基泰 金成鎬 李春根 尹石昌 劉元弘 白順童 白雲學 金石基 朴喆鉉 劉四宗 柳氏封 全演寅 全鳳烈 林亨龍 金基浩 朴順通 金石化 全慶來 盧正完 朴奎煥 張志煥 金順童 二十一圓 九井里部落民一同 十圓第二區民部落一同 二十圓 金鍾濂 十圓鄭錫俊 十圓 李德善 五圓式 盧德洙 朴有英 崔燦淳 金在囊 權泰順 四圓五十錢式 朴永基 金永俊 金周三 三圓五十錢式 金允用 柳萬吉 宋完伊 張俊一 朴奇英 三圓 宋典萬 二圓十錢式 金昌順 朴命完 姜凡山 全麟聲 成千興 二圓式 廉壽旭 朴永植 張仁順 朴相龍 一圓式 廉長奉 柳丁茂 李興福 吳仁國 矢口榮村 安學辰 呂完煇 金明植 金漢用 林鍾哲 卄圓 靈宝里部落民一同

落民一同 三圓 新川里金春植 二圓四十錢 文元三 二圓卄錢式 金昌來 李萬成 一圓式 盧景石 文凡辰 崔景植 十七圓六十錢 部落民一同 五十圓 文承根 卄圓式 申南均 崔泰植 十圓式 延聖求 崔雲植 鄭熙朝 六圓 延昌用 三圓 孫慶鎬 二圓五十錢 孫敬鎬 二圓 文昌云 金守天 廉壽益 洪順根 洪漢祿 一圓五十錢 韓氏山 一圓式 金明淳 金昌先 金光雲 孫昌甲 白順奉 纛島面馬場里部落民一同 四十三圓 朝鮮企業煉瓦工場員及職工一同 合計二、一八六、六〇 二五四名

軍事後援聯盟에 三百餘圓을獻納

五圓 西纛島里 李奉龍 五圓 盧東完 二圓 李奉山 十五圓 文道淑 十五圓 東纛島里 十圓 金完洙 李聖五 林興瑞 金永云 圓式、松亭里 申泰元 鄭生用 朱正鎭 華陽里 李昌林 李根植 一圓 曹德根 二圓式 毛陳里 金德文 申廷均 崔龍仁 五圓 陵里 池連奉 二圓式 金鳳奎 朴基榮 一圓式 朴千奉 金俊寶 五圓式 君子里 金德成 金珠植 三圓 金泰完 一圓式 金德天 金德善 崔有學 金鉉植 李完興 崔仲根 五圓 中谷里 崔致萬 十圓 面牧里 池學順 二圓二十錢式 安相 池泰雲 三圓式 孫錫圭 孫殷命石 金應連 尹東天 二圓式 李鳳根 池淑石 鄭一宣 崔承允 安永樂 鄭興朝 一圓五十錢式 尹龍富 盧興萬 崔文起 徐文煥 崔先進 丁泰山 金士汝 玄英集 尹致化 申貞均 孫敬順 孫茂仁 黃淳京 一圓三十錢 孫先福 鄭允哲 徐文敬 崔昌學 九圓 九宜里 孫龍甲 五圓 白雲植 三圓式 李景順 李福釗 廉壽銀 金炳一 劉同根 二圓式 金石根 廉壽淵 金基泰 金成鎬 一圓式 李春根 尹石昌 劉元弘 白順童 白雲學 金石基 三圓六〇錢 文元三 三圓 金春植 五十圓 文承根 十圓式 申南均 崔泰植 計三百圓 八五名

軍人後援會入會者

五十圓式 纛島面西纛島里 洞原田甫 文雲益 崔化允 李愚明 李愚立 李慶夏 鄭鎭泰 五圓式 盧璡植 盧載亨 金永濟 洪萬興 久次米邦藏 卄五圓 文相哲 五十圓 文承根 計四五〇、〇〇一 四名

面行政講習會 水原郡主催로

【水原】수원군에서는 군내십구면일동에서 직원두사람식을 선발하야 오는구월일일부터 십사일까지 이주일동안 면직강습을 수원군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데 강사는 군속강태연씨이하 십구인이고 강습과목은 읍면행정실무 회계도세 국세 권업 농촌진흥 농지령 경찰 금융(金融)등계등 십일과목으로 종전에업던 장기강습일뿐아니라 금번강습을 필하는 최종일인 십사일에는 수업시험을행하게되며 이번강습이 필한후에는 읍면행정에 현신될것이만흔줄로 일반의 기대는 다대하다

事務處理에支障

事務職印이업서서 江華溫水金組에非難

【江華】강화군 온수시장에(溫水市場) 잇는 온수금융조합리사 중천씨(中川)는 출장을 하거나 또는 사사여행을나가도 늘직인(職印)을 갓고 다니여 일에 만흔지장을 보게하엿다 이번에도 지나간십구일 사사여행으로 별부(別府)방면에 갓는데 역시 직인을 갓고갓는바 그조합에다가 동온수리(溫水里)에사는 김용제(金用濟)란 사람이 토지 저당을 하고 다시그것으로 모회사에 융통키위하야 저당을 하게되여 전차금 오백원을 금융조합에 환부하고 저당권말소를 하얏는바 문권중에 소재지가 틀인바잇서서 이것을 정정치 안코는 엇지할수업스무로 전기조합에가서 정정을 요구하얏스나 직인관계로 정정이 못되게되야 마친내 랑패를 보게되엿다한다 이가티 리사가 직인을 갓고 다닙도 처음된일이고 또 규정으로보아도 리사가 출장우는 여행시에는 수석서기나 조합에게 직인을 맛김어 출래로 되엿슴에도 불고하고 이와가려 장시일의 여행일에도 직인을 휴대코 다님으로 사무정리상 지장이만타한다

楊州公普後援會費 復活시키기로決定

【楊州】기보=양주공립보통학교 후원회는 소화칠년제가의공황으로 월사금을 내리는 동시에후원회비까지 중지하얏든바 그간 유칠년간아동교육에 물질상으로 적지안음을 느껴 이를 부활시키고저 지난삼십일 양주공립보통학교내에서 여원회를열엇는데 회장은 물론부회장까지사고로출석지못하야 다시회합하기로하고 해산하얏다한다 그런데 듯는바에의하면 일개월후원회비가수십인 일지라도 일개월십전으로하고 한회원의 자제만흔원회비로내게될방침이라한다

換節期에乘勢하야 府內에赤痢猖獗

卄九日에만龍山署管內에四名

절후가 밧귀짐을따라 각종전염병이 발호하며 최근 적리병(赤痢病)이더욱창궐 하게되여 이십구일에 새로 발견된 룡산관내의 환자만하여도 네명이나된다 그들은 시내 삼판통(三坂通) 일백구번지 청화전의웅(千和田義雄)의 둘재딸 경자(京子)(三)가적리병으로 판명되여 부근암영병원(岩永病院)에입원 식엿고 시내한강통(漢江通)십일번지 백팔십구번지 좌등천심(佐藤千尋)방에잇는 강엽죽차(岡葉竹次)는 모의적리병 이라하야 룡산육군병원에 입원가료 중이고 시내공덕정(孔德町)삼십구번지김옥희(金玉姬)(구)는 적리병으로 판명되여 순화원(順化院)으로입원식엿고한강통십륙번지의일백구호에사는전대목부(田代睦夫)(九)는 적리병으로 판명되여 철도병원에서 가료중이다 환절기에 걸리기쉬운적리병 그타전염병방지를하려고 소관룡산서위생계에서는 각종음식물의취체를 엄중히한다는데 각자가 음식물에대한주의를 할필요가잇다고한다

水原消防界의彙報

【水原】수원읍구천정(龜川町)에 사는 심재갑(沈在甲)(？)은 소화십년팔월오일 수원소방조제일부소방수로 임명되여 그동안자기의생명을 젼력을다하다가 불행하게도 지난사월이십구일 오후세시 신풍정고모의 집에화재가 낫슬때에 사력을다하야 소방에노력하다가 실족하야 화염중에 떨어저 와인왕복을 부상하엿스나 끗까지진화에 노력하고 이래도립수원의원에서 치료중 발성만저(發聲萬狙)를 병발하야 좌족발목을 잘는지안으면안되게되엿다 지난 이십오일에는 당임의사가 수술시기가 점점느저가니 하로밧비 수술을하자한즉 심소방수는 한참묵묵이생각하더니 금일은 나의당번날이니 소방수의 최후임무로 오날당번에 직무를맛치고 이십육일은 수술을하자하고 이십오일은 심소방수로서는 최후인·소방조당번직무를 다하고 이십육일좌족발목을 잘넷스니 수원소방조창립이후 최초의 불구자라한다

伊川을中心으로 橋梁架設을渴望

小雨에도交通은杜絕

【伊川】교통발달이 지방발전과 산업경제상 중요한것은물론이지만 강원도이천군은 현재이천평강간(伊川平康間) 이천안협간(伊川安峽間)이천남천간(伊川南川間) 이천금천간(伊川金川間)이천원산간(伊川元山間)의 다섯개의 요등도로가잇서서 지극히 교통상중대한 지위를 점하고잇는바 이천평강간은 웬만한 비에도 관계가업스나 기타 사개선로에잇서서는 조고마한비만와도 교통이두절되야 실로 일반군민의 큰두통거리이며 제일불평이 만은 문제의하나이인데 이천철원간에는 이천군서면까지 네곳의 하천에잇는 다리도 노와줄생각도 하지안코 그게획조차업다하며 이천 금천간은 산점리(山岾里)의 비낭길이 매년한두번식무너저서 통행키어렵고 더욱히림진강의다리가 큰문제이고 이천남천간은 고성진(古城津)다리와 산내면 송정리(松亭里)의 압개천다리가 전부다 업서진관계로 조고마한 비만와도 교통이 끈허지고 이천、원산간에는 여덜개의 다리관계로 조고마한 비에도 개천이 넘처서 통행치못하는 불편막심한 곳인데 모처로 탐문한바에 의하면 이천군은 평강토목관구(平康土木管區)에서 관리를하는데 평강토목관구내의 도로가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성적이 불량하다는데 이는 전혀 책임자들이 태만한것이라고 일반관게당국의 불평이 만타고한다

華陽江에投身 悲觀自殺未遂

【洪川】시속이변천함에따라 더욱냉정하여가는 인심에 항의를 감행하야 허비극을 비저낸 토막의극적장면이잇다 지난이십륙일오후네시반경에 홍천군홍천면 희망리(洪川郡洪川面希望里)에거주하는 모부호의서제(庶弟)용인묵(龍仁默)(假名)(三二)이라는청년은 술을마음것마시고 십미돌이나되는높다란 홍천교(洪川橋)에서 화양강(華陽江)정류에 몸을던저 자살을도모하든중 때마츰강변에서 세탁을하면서 광경을 바라보고잇든 그안해는 실생낙담하야 김흔물을 한숨에 달여들어가 사랑하는남편을 구원한바 인정비극이잇다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기용인묵은소유의가산을탕비하야 부모 형제처자를징차 이러한

京畿道廳의徽章

경기도청에서는 이번에그도청원의 휘장(徽章)또는 도청기표(旗標)에 사용하기위하야 경기도『마크』를 다음과가튼규정미테 현상모집하기로 되엿다한다

(가) 경기도를표징(表徵)할것

(나) 작품은염호로다섯치 가리여덟치로하되 아래에설명을부칠것

(다) 구월십일까지에경기도지방과(地方課)에도 착되도록 보낼것

(라) 상금 일등오십원 이등이십원 삼등십원

(마) 발표는구월십삼일에각본인에게통지함

開城에좀盜賊

常時管制를機會로

【開城】개성부내는 지난이십륙일부터 상시등화관제(常時燈火管制)를 실시함에따라 빙옹일흔거리는 적막하고 인구가 주밀한 골목은 심산(深山)과 가티 감감하게 되엿다 이런기회를 기다렷다는듯이발생하는 좀도적은 날로 심할것이라하야 부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싸혀잇는바 안령과 질서를 보호하는 개성서 사법계에서는 서원이 총동원하야 물샐틈업는 비상경계진으로 감시활동하는한편 일반가정에도 비상한 경계를해서 각자가 밤이면 집을비지말도록 하라는 삐라를 배포하야 안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시키는데 만일 밤늣게 거리로 배회하는 불량배들은전부 용의자로 인정하고 체포구금하리라한다

地方人事

◇李壽永氏(江華金組書記)今般纛島金組로榮轉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長篇小說＝ 花冠 【34】

李泰俊作 金奎澤畵

세화살 (十八)

가정을 가지면 처자를 위해、그처럼 노예가 되는걸 뻔-히들 보면서……。

또、

막연하게 연애하고、막연하게 결혼하고、자식나코……。

동옥은 인철에게 뺨이나 마즌것처럼 귀까지멍멍하게 날래 사라지지 안는 말들이다。

『가정? 안해람 그다지 남편을 구속하는것인가? 여자도 경제상으로 독립할수 잇는것 아닌가? 남편에게 의뢰하지 안코 살아나갈만한 생활력만 잇다면야 왜 남편의 압길을 저해할것인가? 오히려 그의 예술이나 그의 정치나 그의 사업을 정신상으로라도 도아줄수 잇는게 안해아닌가?』

동옥은 여성이편으로서 인철에게 얼마쯤 반감이 생긴다。

『바선생님?』

『네』

하고 불럿다。

『가정도 가정나름 아닐가요? 주부가 경제적 생산력만 잇다면 왜 그 남편이 노예가될가요? 그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시대나 사회에 몰리해한 구식여성의 가정에나하실 말슴이 아닐가요?』

『실례입니다만 신녀성도 별수업죠 아모리 신녀성이라도여간 여자처럼 사는데만 여자된보람이 잇지、여자가 여자처럼 안 사는데는 어디서나 비극인줄 압니다』

『건 무슨 말슴이야요? 여잔남편을 꼭사회적으로 존재하지못하게 구속하는것만 여자다운 생활이란 말슴인가요?』

『어떤 사상가가 한말입니다。여자의 첫재와 둘재되는 목적은남편과 자식이라구요 또 여자의 최대관심사는 절대개인적 행복이라고요 여자는직공이되거나 경관이 되거나무슨 사무원이 되는것보다 또그런 사업을 하기보다 안락한가정 사랑하는 남편、귀여운 자녀들을 더열망하는것이라고요… 이건 평범하나 여성이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란걸 정확히관찰한 건줄압니다。그리게 여잔 남편이 경제적으로 유지식혀주는 가정에서 집안을 아룸답게 꾸미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것만이 여자다운 생활이 되는겁니다。여성으로 가정을떠나하는 모든것、그건 예외요 임시적이요 비상시적이요 그려니까 부자연이요 그려니까 여자다운 생활이 아니라고할 수 잇겟지오』

『여잔 그래 모두 개인주의자란 말슴이야요? 남잔 개인주의자가 업나요 하나도?』

『남자에게도 물론 잇죠 그러나 남자가 개인주의가 되는덴 대부분이 여자때문입니다 내 친구들에게서 만히 봄니다。여잘 알기전엔 돈을 가진대로는 친구들과 가티 쓰다가도 한번 연애만 하게되면 친구나 일을 위해쓰던돈이 끈허질뿐 아니라 모든게획과 행동이 여간개인의주의가 되는것 아닙니다 그건 여자가 개인주의의적인것이기 때문이 아닐가요? 우리 남자끼린 아모리 단짝으로 친해도 친구가 생겻다고 해서 그사람이 개인주의가돼 버리는법은 업스니까요』

동옥은 머리부터 흔들엇다。

『건 인식부족이십니다。건 여자가 개인주의의기때문에 전연 이 돼 그런게 아니라 가정을 목표하니까 다른방면엣소비를 절약하는것 아닙니까? 그건 가정이란 그것에 죄가 잇던、공이 잇던 할것이지 왜 여자만이 피고가 됩니까?또 남자들만 그런가요? 우리여자들로도 그런 논법으로 본다면 남자는 모다 개인주의자라고 할수잇서요 왜그런고 하니 여자도 평소엔 사회니 대중이니 하고꽤 열렬하던사람도 한번 남자와 친해지면 집을 사느니 과수원을 사느니 저금을 시작하느니 하거던요? 건 남자가 개인주의니까 그러케되는것 아닐가요? 박선생님 논법대로 한다면?』

『……』

인철은 빙긋이 웃기만한다。

『안 그럿습니까? 왜 대답못하세요?』

『그건 올습니다 그정도에선취소해도 조슴니다。그건 서로자기편에서 보는 때문이겟지오 그러면 결국 그개인주의의본영으론 가정이란 그놈이더뚜렷하게 나타납니다그려』

하며 인철은 그래도 천연스럽다。동옥은 너무 모질게 처다보며 대답을 한것이 미안해진다。눈은 모진채로나 입으로는 방긋이 웃어주엇다。그도 따라웃음을 띄인다。

『가정……그럼 박선생님은 가정이란걸 근본적으로 저주하십니까?』

를 동옥은 다시 못는다。

지금부터점점심해지고

재발하기쉬운부인병 자궁병월경불순은

병원에가지안코도자기집에서 남몰내손쉽게곳칠수가잇으니 이치료법을실행하기바람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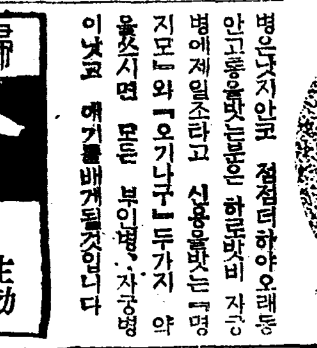
여러분가운데 나는 엇재서애기를못낫는가하는불행을 평화한가정의 주주들이도시여 시부모와남편시중애쓰시는 젊은부인들의애달푼하소연이며 설움과비애를한 몸에늣기시고 말씀하시는딱들겨운 고함일것입니다。참으로 세상에는 귀여운보배와 귀여운복건이만흐나 방긋거리고재롱부리는 아해들의어리광이야말로무엇보다도 더욱탐스러우며 귀여옴것이니 그의부모들에하로남의모든 쓰라림과고통을 재롱부리는천사와가튼 아해들로하야금모도 이저버리게되며 내일의희망을、새로 힘차게 갖게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에넘치면가정도귀여운아드님따님을낫지못하면 드듸여 쓸쓸한가정생활을이루게되며 쓰라린세월을보내시는분이 얼마나만흠니가?

대하증이홀으는것은 부인병이잠복된증거

애기를못낫는부인은 애기를낫케하는방법

원래에 부인의체질은남자와달너서 생리적으로복잡하게되엿스므로 항상건강하게할나면 특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다시말하면 남자에게업는 월경이나 임신갓튼것이 특수한 생리적작용이고 이기능에 고장이생긴것이원인이되여서 여러가지 부인병이생기는수도만흡니다 더욱이요새갓치불순한일기에는 두통현기가난다든가 허리와수족이어름갓치냉하고 아래배가압흐고 신체가이상해지는동시에 안색도 낫버지고 식욕이줄어질뿐만아니라 쉽새업시끈적끈적하고 게라한자나 누런코물갓흔 대하물이흘으는것은 두말할것업시 부인병에걸린것입니다 부인에게는이병처럼무섭고 도둑행한일은업습니다 지금새삼스럽게말할필요는업지만 부인은 가정의중대한책임을 두엇개에질머지고 일가정의중심이되여살림을잘하지안흐면안됨으로 주부가 건강치못하면 가정살림에대하야 가장손해가만흘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명랑과 부인의미모와자녀출산가튼것을 생각할때에는 더한층건강에주의하고 만일부인병에걸인때라도 하로밧비치료하야 그병근을 전멸식히지안흐면안됩니다 세상에서 가장말이만흔가정비극의대부분은 남자들이방랑하는탓이라고말하지만 사실에잇서서는 가정부인측부에게 부인병이잠복되여서 부부생활이맘과갓치잘되지안흠으로 자연히가정에취미가업서저서 쓸쓸하고적적해지는결과 화류계에침범하고 색주가에서 놀기도하고 기생집에드나들게되는것이니 이러한것은 모도주부가건강치못하고 병

그러면부인병을 경홀이보거나 경증이라고내버려두어서는안됩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고재미스럽던 가정생활이깨여지기전에 신용잇는약을복용하고 하로밧비근치하지안흐면안됩니다。부인병에는반듯이냉습대하가흘으는것입니다 이병에 걸이셧을알거던 될수잇는대로몸을편안이하고 부인병양약으로유명한『명지모』를복용하면 얼굴에화색이돗고 주름살이퍼지고、아름다워지며 손발이 더워지고 체내에잠복된모든병독을 전부죽여버리고 원기를회복식혀주무로 얼마안되여 애기를 배게되는것입니다 또한 외용약 『오기나구』를사용하시면 음부와자궁속에잠복된병독을 죽여버리므로 불순하던월경이순조롭게 되며 대하증(냉증)이근치됩니다 또한 아래배가압흐고 가슴이답답하고 머리가압흐던병도자연히 낫게됩니다。그러므로 지금까지 이것저것 여러가지약을써보아도 병은낫지안코 점점더하야오래동안고통을밧든분은 하로밧비 자궁병에제일조라고 신용을밧는『명지모』와『오기나구』두가지 약을쓰시면 모든 부인병、자궁병이낫고 애기를배게될것입니다



본포에서는 약을선금으로 주문하시는분에게 송료를전부부담해 드리오며 본포에는 여러분의체질과병세에꼭맛는 특제가잇스니 본포로측접주문하고자하는 분은병세에꼭맛는 약을대금인환으로보내드리오니 여러분께서 편리한방법으로 약을주문하시기 바라나이다。약가는

소 일 코 오양간곳치기

평소의주의가 제일입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子宮出血 白帶下症 赤帶下症 手足冷症 頭痛眩氣 下腹腰痛 產前產後 히스테리 不姙症等

產前產後에는 이와가튼조섭법

姙娠中에는 평소보다도더한層몸을편하게하고 힘드는일을하지말고 冷하게하지안토록 特別注意하시고 姙娠中에생기기쉬운 脚氣가튼것을 豫防하고 胎母의健康을保重하기爲하야 命之母를服用하시면 健康한몸으로 무사히 出產하실수잇스며 또한產後에 一週日동안은 絕對安靜이必要하오니起動하시지말고

產後의疲勞回復을速히하기爲하야는 產前에服用하시던命之母를繼續하야服用하시면惡血을淸潔히하야 新鮮한血液으로調整하야 날로元氣回復이잘되고 얼굴에화색이돌고 주름살이펴지고 몸에살이쩌서 얼굴에화장을하지안허도 產前보다 더욱어엿부게되며 產母에게서 젓이充分히잘나오므로幼兒의發育이잘됩니다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六日分	一圓	八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二十七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본포에서는 조선부인에게 편리하도록 약의용법、보관법 생지식을 보급식히기위하야 조선말로 알기쉽게 자세히씀부인병자택치료법이라는 책을누구에게던지 한권식 거저드리오니약을 주문하지안는 분이라도하로 밧비청구하시기바랍니다

本舖 合名會社 笹岡省三藥房 東京市京橋區入船町三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六八七番

公債消化陣編成
大衆方面도動員

戰時經濟體制整備 ②

「金」과物의動員

近代戰爭은 科學戰이다 그러므로옛날과달라서 巨額의 物과金이 必要하다 그러타고 하야서 이제 日本에 物과金이 不足한것은아니나 戰時인 만큼 時局에 應하야 不必要한 것과 不急한것은 되도록 그만두고 一切를 軍需工業이나 緊要輸出産業 重要資源開發産業에 集中하지 안흐면 안되다 이에잇서 物과金의 非常的 體制가 생기는것이다 우선金을 中心으로하는 戰時體制부터보면

戰時財政의膨脹

金의問題로 가장 直截明瞭한것은 戰時財政의 膨脹이다 北支事變勃發의最初는 第二豫備金에서 一千萬圓을 臨時支出하얏는데 特別議會에서는 約五億圓의 北支事件費 追加豫算이 成立되엇다 그結果十二年度 豫算은 三十四億圓이라는 超膨大豫算이되고 公債發行豫定額은 十三億七千萬圓이되어 財政의均衡이더욱 保持되지못하게되엇다 그런데 以前과가티公債가 消化되면 問題는없스나 生産力擴充資金의需要旺盛等에 依한 金融의逼迫으로 公債는 一向팔리지안코 日銀이 가지고잇슬뿐이다 그우에 臨時議會에는 다시二十億圓이라고 傳하는 第二次事件費追加豫算이 提出되게되엇다 이러고보면 安閑할수는업는일로 公債消化의 非常時體制가 出現하게되엇다。 그러타지만「나치스」獨逸과가티 强制的으로 公債를사게하는것은아니다 여기에도 自主的協力이 强調되고잇다 그러므로 戰時非常時의 體制라고는 하지만 相當한 餘裕가 今後 남어잇는터이다。

公債消化總動員

公債消化戰線을보면 消化의 對象이되는 機關은 大別하야 預金部其他의 政府關係機關과 銀行信託會社等의 金融機關、保險會社、公共團體及國民大衆等으로 되엇는데 此等을 總動員하야 極力消化를 圖하려는 것이다 우선 政府關係의 機關을보면 何如間 金融界가 變態的狀態에잇슴으로 極力으로 그保有總能力을 한껏 올속이기로 하엿다 即預金部資金으로서 이미 今春에 二億圓을 買入하기로한것을 비롯하야 九月에열릴 運用委員會에서는다시 相當한 額의 買入限度를 擴張하려고하고잇다 그外에지난二十五日에된 金資金特別會計에서 日銀所有의 公債二億圓을 買入하야 [illegible] 五、六億圓의 國債分이 吸收될것으로 五、六億圓의 [illegible]될터이다。

國債「신」團出動

그러나 아모리 金融狀況이 그대로 放任할수는 업스니이 조치못하다하야도 金融機關을 것이가장大口消化者이기때문이다 그럼으로 日銀이中心이되여 北支事件公債中 一億圓을 國債『신지케―트』에서 引受하기로되엇다 國債『신지케―트』引受의 方法이 近年에업는일이엿어 引受한 公債는적어도同一個年間은 一般에賣出치안키로되엿다 여기에 非常時性이 잇다고할것이다 그러라고하면 引受額이너무적지안흔가하는 疑問이 이러날는지 모르나 그는 어려운 問題로서 너무만흔 消化를 바라면 도리혀 金融逼迫에 拍車를加하게되다 現在에 잇서서는그다지無理를하지안는것이 조흔것이다 그러므로 拂込에對하야

도한꺼번에市中資金을 吸收하지 안토록二回로 分割拂込의方法을取하얏다 그他의保險會社나貯蓄銀行地方銀行等에對하야도同樣으로日銀이 中心이되어 모다相當가 잇섯는데아다 그러나何如間이러케 수集직此等引受額은 決定되지안엇다 그러나何如間이러케 全機關을 總動員한것을보면 戰時體制이오 또그前夜이다

大衆方面도開拓

그러나 公債消化의 大衆動員에잇서서는 特히 戰時的色彩가濃厚하다 이때까지 處女地로서 全혀開拓이 되지안엇든만큼 意味가깁다 이處女地開拓의 着手에잇서서 政府가 우선하려고하는것은 周知하는 바와가티 小額公債의 郵便局窓口 賣出이다 二十五圓이나 五十圓의 小額公債를 國民이 가지도록 하는것인데 그發行豫定額은 最初 五千萬圓이엇는데 北支事變勃發과 同時에 特別議會의 協贊을어더서 一億圓으로 倍加하얏다 그러나 이는第一期으로 第二期의 割增付貯蓄債券의 發行에이르러 果然戰時體制的色彩를 띄게되엿스니 郵便局賣出은 公債消化라기보다 차라리 國民貯蓄獎勵工作이目的인 公債教育이 主眼이며 非常時에 割增貸付貯蓄債券을 零付로 公債消化를 엿보고잇는것이다 가령割增金이 勸業債券이나 萬國博覽會의 入場券보다 적다하더도 割增金自體가 誘致의 手段이되는것으로 大體의 方式은額面十圓 賣出價格十圓의 割引債券을 勸業銀行에서 發行하고 그대신도를 預金部에가저다가 그것으로公債를 引受한다 發行總額은事件費追加豫算의金額如何에依하야 定할터인데 割增金의最高는 千五百圓으로하고 額이적은 대신에 當籤을만히하자는것이다。 이法律案은 臨時議會에 提出되는데 實際의賣出은 來年一二月頃부터일듯하다 如何튼이러한二重線으로 公債消化에大衆動員이되는데 政府의 이에伴한 宣傳隊도 公債消化의宣傳『포스터―』나 標語를募集하는等 이때까지업는 緊張을보히고잇다 要컨대 公債消化에對하야서도 愛國運動이展開되려고하고잇는데 割增金을付하는點에잇서서 아직眞實한 愛國公債發行이라고 하지못할것으로 그一步前인 半戰時體制라할것이다。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錢)	今日後場	比前日同限
仁川期米先限	三三、三二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三九、七〇	[illegible]

	今日	比前日
㊂三等米一石	三三、八〇	一〇高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三一、四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고무靴片現在錢高	三錢高	

◆株 (單位十錢)	今日後場	比前日後場
朝新	六八九	三低
東新	一三六	一〇低
鐘新	三三四	七〇高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後場	比前日後場
大阪三品 綿絲	三六七	[illegible]
棉花	二九五	[illegible]
人絹	七六五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朝鮮對外貿易
事變影響으로逆轉
入超로、貿易額減退

朝鮮의 對外貿易은 七、八兩月을通하여 北支事變關係가 相當히 濃厚히 나타나잇다 特히 下半期는 輸[出]期에 들어가는것이 年來의常例이든것이 今年은 上半期中六月가른 달은出超까지 보게되든것이 七、八兩月에 들어서는 輸出貿易額이 모다 減退되여 오히려 入超를 보게되엿다 即 八月中의 輸出入品額을 보면 (單位千圓)

	八月	比前年同期
▲輸出 朝鮮産	四、六〇六	一、八〇九增
內地産	二、七六四	三三減
外國産	一七六	二三″
計	七、五四六	一、八七七增
▲輸入	九、二八六	一、六五四″
▲合計	一六、八三二	三、六八一″
▲入超	一、七三八	一、三一三″

으로前年同月에 比하면 外國産品의 輸出만이 減退되엿슬뿐으로輸出은 增進되엿스나 輸入亦是增加되여 入超를 보게되엿다 이것을 다시六、七、八三個月間을 比較하면

▲輸出 (單位千圓)

朝鮮産	六月	六、七六五
	七月	五、六八三
	八月	四、六〇六
內地産	七月	二、四六一
	七月	三、三五七
	八月	二、七六四
外國産	六月	二、四三七
	七月	六四四
	八月	一七六
計	六月	一二、四六三
	七月	九、六八五
	八月	七、五四七
輸入	六月	一一、一五三
	七月	一〇、三二一
	八月	九、二八五
合計	六月	二三、六一七
	七月	二〇、〇〇七
	八月	一六、八三三
出超	六月	三一〇
入超	七月	六三六
	八月	一、七三八

로 以上表에 보이는바와가티 月次로 各項의額이 減退되엿고入超는 七月보다도 八月에드러서 다시 增加를보이고잇다 그리고 八月貿易을 重要品目別로 보면 輸出은鹽魚 水産物 林檎 牛皮 革物 綿織絲 綿織物 人造絹織物 陶磁器 琺瑯 紙 木材 藥叺 電球等 十五種의 增加가잇는外 其餘十七種은 모다 減退를보이엿다 大體에잇서서 滿洲南洋方面의 輸出品外 北支方面으로가는것은 大減을 보이고잇다 輸入의重要品은 原油及重油 爆發藥 石炭 鐵 機械類·硫安等의 增加가눈에띄엿을뿐이다

支那麻布
地盤一掃

支那麻布輸入은 一時朝鮮內에서 防止關稅問題도 擡頭되엇스나 事變影響으로 完全히 中絶狀態에 陷하얏다 朝鮮內의家內工業의復興과 紡織麻布及代用品의 入荷에依하야 이것을機會로 支那麻布地盤은 完全히 一掃되리라한다 即家內工業으로서의麻機業도 割低인 支那麻布의 杜絶로 恢復되고日本內地로부터의 紡織麻絲의 移入에依한 機織으로有利케되어 朝鮮産自給의 機會를迎케되고 紡織麻布와 代用[擬]麻布의 普及은 이機會에 徹底케되리라고 豫想된다 支那麻布의産地는 四川省을中心으로 當分間輸入再開가無望한 狀態이다

通關代辨料不要

鐵道局에서는 來十月一日부터 內鮮間發着荷物通關取扱規則을改正實施하기로되엿는데 그要領을 보면 從來에 安東發로 朝鮮內及內地行의 小荷物의 通關代辨料는 荷主負擔이엿스나 今後는 鐵道側에서 無料로 取扱하기로 된것이다

林業開發創立
資本二千萬圓·十分一拂込
總監臨席·重役任命

林業國策에 準據할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資本金二千萬圓 十分一拂込)의 創立總會는 九月一日 午前十時半 銀行集會所에서 開催하고 創立委員長 大野政務總監議長司會下에

一、創立事項報告件
二、定款、變認件

을 原案대로 承認하고

三、監事報酬額決定의件

重役會一任을 決定하고 이어서 大野政務總監으로부터 如左히 社長 理事 監事를 任命하얏다

社長 矢島杉造(前農林局長)
理事 伊藤重次郎(前農林課長)
〃 足立利夫(前東拓林業課長)
〃 小林準一郎(王子製紙山林課長)
監事 賀田直治(帝國山林會理事)
〃 韓相龍(朝鮮山林會副會長)

四、朝鮮民事令에 依할것을 定한 商法第百三十四條의 規定에依한調査報告의 件은檢査役에朴榮喆氏를 選任하야同氏의調査報告가잇고 午前十一時散會하얏다 (寫眞은創立總會場)

監理官任命

朝鮮林業開發會社의監理官은 一日附로써 林政課長山下眞一氏가 任命되엇다

木材資源充實
大野政務總監談

林業開發創立總會後에 大野政務總監은 如左히말하얏다 이會社는 國策的會社로서 最初는 造林을 主로하며 이에依하야 治水治山의 實을擧함이 事業이다 地味한 會社임으로 株主도잘 諒解하고 社會全體도 諒解하야 이事業의効果가 잇기를바란다 造林面積은 約四十萬町步로愛知縣만한 面積인데 木材資源이 不足한 이때會社의 責任도또한重大하며後援이 잇기를바란다

中央無盡開業

朝鮮中央無盡은 九月一日부터 開業하얏는데 三十一日午後五時부터 重役會를開하고、協議한結果、職制人事를 決定하얏다

朝鮮建物開業

朝鮮建物會社에서는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近澤빌딩三階同社에서 第一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決算承認後重役補選을 行하고 陣容을갓추어 强化擴大를圖하야 九月一日부터 營業을開始한바 同社의營業方針은加入者에게家賃程度의 月賦로容易히 住宅을得케하는것이라한다

鮮銀의保準擴張
臨時總會에서可決
二日부터實行

鮮銀에서는 九月一日午前十時부터 東京支店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保證準備擴張에 件한 定款改正案을 附議可決하고 直時右改正件을 當局에 申請手續하얏는데 本日中에 認可될豫定으로 二日부터 擴充이實行에入할것이다

一이億圓으로 擴張되얏는結果、當行定款第五十三條第二項의變更을要케되어그것을 決議키爲한것이다 當行의 銀行券保證發行限度를 沿革的으로 말하면 當行創立際 其限度는 二千萬圓으로 定하얏섯스나 朝鮮經濟發達 其他事情에基하야 明治四十四年에 三千萬圓으로 擴張하고 大正七年에 五千萬圓으로 增額하야 當行創立以來前後二回 保證發行限度가 擴張되어今日에至하엿다 그런데 右大正七年의 保證發行限度 擴張以來 今日까지 十有九個年을 閱하고 其間朝鮮의 産業貿易等의進展은 자못顯著하얏다 試하야 二三統計에 徵하면 農林水産鑛工業等에關한 一般生産物의價額은 最近十七億圓에 達하고十九年前에 比하야 約二倍이며貿易額도 十二三億圓을 算하야六倍以上에 達하얏다 其外朝鮮內의 會社拂込資本과 如함도 約十倍를 넘엇고또 朝鮮內 銀行의 預金貸出도 各七八倍의 激增인 盛況을 呈하얏다 그다음으로 當行券 發行高에 就하야 보면 現在의保證發行限度를 制定한 大正七年中의 平均發行額은 七千百八十餘萬圓인데 昭和十一年中의 平均發行額은 一億六千七百三十餘萬圓에 達하고其間約 二倍半의 增加를 示하야 最近의 本年上半季中의 平均發行高는 [illegible] 滿洲國의 當行券撤收事實에 不拘코 尙一億七千萬圓以上에 達한 狀態이다 以上은 지금까지의 實績에就하야 其一端을 說明한것에不過한데 다만이것만의 理由로써도 現在의 保證發行限度로서는 到底히 滿足할수업슴이 明白하다 그러데다가 이에 拍車를 加한것은 近時朝鮮經濟의 異常한進展就中內鮮滿經濟『블럭』의 强化를 爲하야 倍나 生産力의擴充이 必要한 關係上 多額의資金 需要를 喚起한 事實로서이 急을 要하는 資金은 朝鮮의現狀에 잇서서는 主로 日本內地로 부터의 供給에 依하는外에업고 從하야 日本內地의 金融情勢에 制約되며 時로는 其需要를 充足할수업는 境遇도 잇을뿐아니라 金利와가튼 것도日本內地에 比하야 幾分高率을 免치못하는實況이다。 如斯한 事態下에 잇서 資金의 圓滑한流通을 圖키爲하야는 結局 朝鮮銀行券을 適當히 增發함으로써 가장 得策이라겟는데 現在와가티 當行의 保證發行限度를 依然五千萬圓의 限度로 據置하야둠은 使命遂行이 容易지 안타 右의見地에基하야 當行은 政府에對하야 此際적어도一億五千萬圓程度까지 保證發行限度를擴張할必要가 잇는所以를 力說要望하얏는데 政府도 其趣旨를諒하고 지난特別議會에서 朝鮮銀行法第二十二條의 改正을行하고 保證發行限度를 一億圓으로 增額되어 其結果로서 本日에臨時株主總會를開하고 定款變更件을 議題에供한것이다

加藤總裁演述

本日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한것은當行이 多年懸案하던 銀行券保證發行限度擴張問題가 解決되어今回 朝鮮銀行法이 改正되고 從來의 保證發行限度 五千萬圓

國防産業樹立要望
北支慰問團派遣件附議
朝鮮商議緊急總會

朝鮮商議에서는 三十一日理事會決議에 基하야 九月十日午後三時부터 緊急臨時總會를 開催하고

一、國防産業振興에 關한建議件
二、在支將兵慰問件

을 附議할터인데 國防産業振興에 關한 建議案은 如左히原案을 決定하고 北支將兵慰問은 賀田會頭、稻福副會頭 其他各會議所의 有志를모아 北支慰問團을 組織하고 今月二十日頃 出發할 豫定인바 國防産業에 關한 建議案은 如左하다

國防産業振興에關한建議案

帝國現下의 重大時局에 鑑하야 大陸政策遂行上速히 朝鮮國防産業의 積極的振興을 講究키를 要望함

理由 = 今次事變을 契機로我朝鮮의國防的地位 特히 兵站基地로서의重責이 痛感되므로 當局은非常時國防과大陸政策遂行上의見地에서速히 我朝鮮에서國防産業의 充實强化策을 樹立하야 人的 及物的資源 總動員下에 그完成을 急히하는 同時에 運輸、金融機關擴充整備를 期하야 帝國의 隆昌과 東洋平和의 確立에 資키를 要望함

漸落不勢

國際關係에잇서서는 蘇支不侵略條約을 中心으로 蘇支親善工作이 加速度로 進展되고 잇스나 現在狀態로는 다만그 推移가 注視될뿐이고 目前의 威의 材料는 되지안는모양이다 그러나 經濟統制의 强化及 二十億의 對支事件費追加豫算에 伴

株式 突込後에 引返
今日의市勢 (一日)

前場漸落

昨後場續軟大引後今朝도 人氣不良하야 東新八十錢低인 百三十二圓八十錢 朝新十錢高인 二十九圓二十錢 大新六十錢低인七十二圓五十錢 日產七十錢低인六十四圓九十錢 鐘新五十二圓五十錢拂込賣買로 九圓七十錢高인 二百十五圓에 寄附된後 不勢商狀으로結局東新百三十三圓 鐘新二百十四圓 朝新二十九圓에漸落大引

後場突込

後場은 平凰에 寄付한後 東新百三十一圓臺 鐘新二百〇六圓臺까지 突込하엿스나 押目買로 反撥止場되엇다

金融難益深刻

一時低價位의 市勢에는 漸次底力을生하야 事件費의增大에伴한 物價高의『인풀레』를 期待하는傾向이 不無하엿섯스나 蘇支不侵略條約의成立、戰局의擴大長期化念慮、靑島의形勢再惡化等으로 人氣漸次再不良이엇스나大體로 閑散市況을呈하면서 下向코잇다 그우에銀行側의 證券貸付에對한 依然警戒로現物取引에 잇서서뿐아니라 淸算에 잇서서도 影響이적지안흘터이다

今後의 增稅如何가 걱정거리이며 戰局逐日擴大로 市場人氣는 去益不良하야 買方은前進치못하고 賣物에눌려 漸落步調를 示하고잇다

鐘新全額拂込賣買

九月一日前場부터 大阪當地의 鐘新은 五十圓全額拂込으로賣買되엇다

國債 換金賣로 低迷

【東京電話同盟】 當局의 金融緩和策을 好感하고 또 越月後이므로 短資는 幾分軟化하얏다 一般銀行의 債出傾向을 傳하야 繼續換金的賣物이 不絶、日本內地債는 大概 五錢低、佛貨債도 五錢低이다

二回四分利 一〇〇八五

米期 厄日無事 暴落

前場亂波

今日은二百十日인데 東京大阪은快晴 下關은晴 當地는薄曇으로 阪地中限三十一圓〇四錢인 二十二丁突高로先限三十圓三十五錢인 六十九丁下發會하얏슴을하야 中限은八圓四十一錢인八丁高 新甫十一月限은二十七圓七十九錢인 六十二丁下로發會한後 阪地四節六十九錢까지 返戾함을따라 九十八錢까지 奔騰하엿다가 阪地三十三錢으로二十二錢에 急落止場함을딸어當地는 四節九十八錢에 吹上하얏다가 七十錢에 急落止場하다

後場續落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二錢인 十八丁低로始場한後續落步調로 二十一錢까지暴落되엇다

十一月限誕生

新甫十一月限은 阪地六十九丁下한 三十圓三十五錢에 發會되고 中限은 依然强勢로 昨納會價보다의 二十二丁突高임을 伴하야 一丁七圓七十九錢인 六十二丁下로 誕生되고 中限은八丁高로 場을始하엿다 今日은二百十日로서 東阪兩地의 快晴下에 府米大量買上說이 買氣를 刺戟하야 前場의 騰勢를 비롯하야 그餘波가 先限에까지 미치는모양이다

市場六感

㊑……九月新甫도不勢▲月初高期待도 歸於水泡▲十二圓五十錢 最終拂込한 鐘新賣買도 拂込前市勢로 還元한程度의不勢▲東新도 百三十圓이 危殆▲비록 最惡의境遇를豫想한市勢는 나와지만 特別議會를 앞두고 統制經濟를 다시 걱정하야 人氣衰▲더구나戰局이 擴大될뿐이니 金融難과아울러 買氣蘇生은 至難之勢▲惡材料論者의 氣勢도 다시 꺾길가?

㊍……當地中限은 今朝二十八圓六十七錢으로 二丁未滿의 百丁反撥▲此限의賣方은 學者來客側으로서 昨今兩日에 總落城의 慘境에빠진모양▲今後의捲土重來를누가알라 更嘆!戰이如何▲暴利取締令을 實施하는 今日더구나 米穀에도取締令을適用하게된 朝鮮에잇서高價買는 警戒를要치안흘수업는걸▲要하면 政策市勢는一巡된뒤이업지 아니하고 二百十日은 無難通過되는모양이니 低落一聲을免치못할듯(鞏山)

好天候도無關

二百十日인 今日의 天候가 無事經過함에도 不拘하고 市勢는例年에 보지못하든 正反對의 現象으로 昂騰一途를 示할뿐이다 要하면 東京으로日에 開催되는 臨時議會에서 米穀統制에 對한 어떠한 强化策을 施하지안흘가 하는 商談이 濃厚하야 政治的源地인 東京의 昂騰을 비롯하야 阪地 其他 各市場이 一齊히 그影響을밧게되엿다 今回 議會에서 어떠한程度까지의 强材를 비저낼지는 모르나 別서 先驅的 行動을 하엿스므로 政治的 市勢는 旣히 一巡되엿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오 압흐로 注目을 要할것은 天候의 如何일것이다 勿論今日 二百十日의 好天候를 度外에 付한만큼 萬一 今後의 天氣가 繼續 好順인때는 又一層軟弱하야 訂正市勢가 또한 크것을 묘히알수잇다 그럼으로 目前의 追擊買는 一考를 要할必要가 잇지 안을가한다 그러나 此에 一考를要할것은 非常時局에 處한 政府로서 暴利取締令을 實施하기로 되어서 아무리 米穀에는 適用치안는다 하더라도 米穀도그 餘響을 밧지아늘수 업슬거시오 더구나 朝鮮에 잇서서는 米穀에까지 取締令을 加하기로 되엿스니 無謀히 買賣成하기에도 不安이업지아니하다 그러므로 政治的市勢가 一巡한後에는 豐作의本格的市勢가 展開되고야 말것을 覺悟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모양갓다

正米 月初買로 少堅

京城頑强

厄日인二百十日도 天候가全國的으로 好順이며 市中에 多少軟潮의 氣先가잇섯스나 各地期米高 月初原料買의 精米側의 進出로 市勢十錢가량 上向하얏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仁川强調

今朝二百十日의 厄日도 全國的으로 平穩無事하야 順氣意識을 强하게하얏는데 價位가 各地期米 新甫의 昂進과 그우에 月初實需의 注文으로 市勢는 十錢가량上進하다

穀良 三一、八〇 三一、五〇
銀坊主 三一、〇〇 三一、七〇
多摩錦 三一、四〇 三一、一〇
一等白米 ㊤三三、六五 三三、四五

釜山續硬

定期好勢로 産地의 强硬을 傳하엿스나 精米側도 市中商品薄으로 市勢도 十五錢高로 買氣를보하어 續硬을 告하엿다

㊂三三、一〇 三三、一〇 一等

大邱少堅

不噸行의此際繼續하야 取引閑散을 呈하고잇는데 今朝 期米의 急反撥로 人氣多少好轉되고 市勢도 五錢高로少堅保合이다

㊂三三、七〇 三三、五〇 一等

群山硬化

出廻殆無로依然 賣物薄을 報하고잇다 市勢는定期堅調와 日本內地側의 入往期待로 十錢高의 上放이다

㊂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一三、六五

木浦保合

月初의今朝期米는 氣高下를 示하얏는데 一般은 沈默狀態이다

㊂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一三、六五

京城物價 (一日)

▲白米(石、單位圓) 多摩錦特 三二、七〇 一等 三一、六〇
▲麥粉(二二瓩、單位錢) [illegible]
▲肥料(一〇貫、單位錢) 二〇、六〇 카메리아八、〇〇
▲硫安(各種袋) 一九、九五
▲石炭 無煙塊(仁川沖) 一三、〇八
▲紙物(單位錢) 豆粕(安東到一平)枚 一三、五
A複造紙(斤) 一二、二七
中質印刷紙(同) 一二、一七
半紙輸因州手四貫四〇、〇〇
朝鮮模造紙(塊)一二〇、〇〇
澄紙(全州) 一四、五〇
▲燃料(俵、單位錢) 撫順石炭 塊 一九、五〇
煉炭 二六 二、九〇
京畿檢查木炭一等 (一〇瓩) 一、四五
▲洋炭 (五〇瓩袋、單位錢) 小野田 一、〇八 淺野 一、〇八
▲砂糖(百斤、單位錢) 白 二二、五〇 黑 一四、三〇
分蜜 一八、八〇
▲鐵物(單位錢) 亞鉛引平板 一、一九
丸釘 一七、四〇
鐵線 一〇、九五
丸鋼 一〇、八〇
▲海産物(單位錢) 乾明太(駄) 一四〇、〇〇
乾大口魚(斤) 二八
▲染料(斤、單位錢) 김 치(手) 七〇、五〇
藍 (手) 一、二〇
軍人染 一一、三〇
黃 四〇、〇〇
▲塗料(單位錢) 白페인트 八、八〇
▲木材(才、單位錢) 紅松 一、三五
落葉松 一、一八
杉材(壹等) 一、四四
라왼 三五
▲人絹(單位錢) 本絹織(疋) 二、五〇
毛本緞 一、五〇
▲毛絲(封度、單位錢) 文化絹 一、一〇四
寬珠紗 [illegible]
▲牛皮(乾百斤、單位錢) 京大皮 九〇、〇〇
小皮 八〇、〇〇
中皮 七八、〇〇
同 一等 六八、〇〇
외나무(日東印)(一瓩) 一、二〇
에나멜(黃色)(一瓩) 一、二〇

海外經濟 (三十日)

倫敦金塊	一四〇志二片
倫敦銀塊	一九片四分三
紐育銀塊	四四仙四分三
紐育綿花	九〇磅
印度綿花	[illegible]
米國綿	[illegible]

銀行券 (三十一日)

◆朝鮮銀行券

前日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東京金利

翌日物	〇錢九〇
無條件	〇錢九〇 —— 一錢〇〇

◆大阪金利

翌日物	〇錢八〇 —— 〇錢九〇
無條件	[illegible]
普通物	一錢〇〇
商業手形	一錢〇〇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賣價	買價
金	[illegible]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六弗一六分一五
對英 一圓에	[illegible]
對上海 百圓에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京城穀良都		九、二〇	九、一〇	九、〇〇
仁川銀坊主		九、二五	九、一五	九、〇五
大田穀良都		九、三〇	九、二〇	九、一〇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現物糖(ST) 賣買中値 二一·七〇錢

期米 益 康益夏 仁川
株式 期米 證券部 京城·仁川 吉村取引店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